

한 정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애관계를 통해

재구조화되는 ‘행위성’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최 현 숙

연애관계를 통해
재구조화되는 ‘행위성’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정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최 현 숙

인 준 서

최현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성을 둘러싼 이 사회와 여성 개별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과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근중심적인 사고와 철학이 지배적인 후기근대 사회에서 여성이 여성임을 긍정할 수 있는 사유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성과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철학 사상에서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은 또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적 영역’이라 치부되는 감정 영역에 대한 성찰은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에 어떤 행위성을 부여하는가.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된 연구자의 물음은 결국 우리 시대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계’와 ‘연애사건’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빌어 이야기 하게 되었다.

여성적 자아, 주체성 그리고 행위성에 대해 사유할 때 전통적으로 굳건한 역사를 가진 서구 남성 ‘철학’은 비판적인 해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여성과 감정을 동일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며 이성과 대립되는 의미의 감정, 이성보다 열등한 의미의 감정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후기근대에 들어 가부장적 이성에 제도가 얹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감정’ 영역 안에서 해결하려는 남성들의 관심과 연구들은 다시금 여성학이 소위 여성적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감정’에 대한 재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의 자아, 주체성,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을 위해 현재 20-30대 비혼 여성들의 감정의 과장을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연애관계’와 ‘연애사건’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상호인정과 그 안에서 재구조 • 재사유되는 여성적 자아, 주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에 주목했다. 또한 여성들이 감정과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

해서도 집중하였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풀어내는 이 같은 ‘자전적’ 이야기는 또래집단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 외에도 풀어내는 과정 자체로 여성들에게 어떠한 힘이 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이는 로고스, 즉 언어가 성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들의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여성학의 비판을 되짚어 보는 작업임과 동시에 현재 여성들이 언어를 어떻게 차용하여 그들의 주체성, 행위성에 역전적 전유를 꾀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제가 되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II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남근중심적인 사회문화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한계와 비판을 시작으로 새로운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였다. 여성의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과 긍정성 인식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이론적 성찰은 관계와 사건 안에서 여성의 행위성 획득이 가능함을 드러내 주었다. 이를 통해 여성학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진정한 여성적 자아, 주체성, 행위성에 대한 개념화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담론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시대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 14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분석했다. 그들에게 ‘여성’이라는 의미와 일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관계와 사건에 대한 의미가 여성들의 삶속에서 어떻게 전유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개별자아로 이 세계와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긍정적 여성 행위성에 대한 발견과 좀 더 나은 여성성에 대한 성찰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찰해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근대에 이르러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적 영역’이라 치부해 온 ‘감정노동/감정영역’에 대한 재발견에 주목하였다. ‘감정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여성들이 이것에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 어려움에 주목하면서 현재 여성이 처한 ‘이중의 곤경’을 살펴보았다.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과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 사이를 오가며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감정을 들을 수 있었다.

둘째,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관계와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경험은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 형성에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나는가. 여성들이 처한 각각의 개별자적 위치는 상이한 경험을 유발하게 했고 이것은 여성의 행위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볼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관계/사건을 통한 긍정적 자기개념의 성립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어떤 힘을 부여하는가. 여성이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한다는 것은 개별자들의 인식여부를 떠나 긍정적 여성 행위성의 존재를 각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넷째, 여성들이 관계와 경험 안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적 곤경들에 이야기할 때 가지는 자전적 성찰에 주목하였다. 나의 이야기를 타자에게 풀어냄으로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에 역사성을 부여하며 상처와 대면하기도 한다. 여성들의 자전적 성찰은 곧 여성학에서 말하고 있는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거치는 연애편제와 연애사건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그녀들이 삶 속에서 크게 의미화하고 있는 사랑과 경험들과 같은 감정적 영역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제도적으로 이분화 시켜 놓은 사랑, 연애, 경험과 같은 감정 영역의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서 남성중심적인 이분법적 등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여성들의 감정에 대한 긍정적 전유를 시도하였다. 이는 ‘감정의 전문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이중의 난관을 설명하고 대안적인 여성성을 성찰해보기 위한 여성주의적 시도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적 경험들을 토대로 개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불연속적 경험과 비동일적인 자아 인식에 대한 보다 깊은 존중과 관심에 대한 필요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적 사유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서 남성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적 영역에 대한 탐구가 두 번 다시 여성을 이분법적 등식의 열등항으로, 혹은 여성을 사각지대 안에 머물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적 자아, 여성적 행위성, 여성적 공간에 대한 성찰은 상이한 개별자들의 경험 안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주제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10
II. 주체성과 사랑의 공존	19
1. 재구성되는 여성적 자아/주체성.....	19
2. ‘연애사건’의 재구성과 행위성.....	28
III. 감정노동의 제도화	36
1. 제도화되는 사랑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36
2. 사랑으로 치환되는 감정노동.....	43
3.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연애관계’.....	48
IV. 경험을 감정으로 말하기	56
1. 로맨스 문화와 성역할.....	56
1) 로맨스와 판타지에 대한 순환 고리.....	56
2) 연애의 여성화.....	60
3) ‘낭만적 사랑’의 현재적 재현.....	65
2. 자연발생적인/구성된 감정으로서의 사랑.....	70
3. ‘여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제.....	75
1) 일상성의 재구성.....	76
(1) 상처와 대면하기.....	81

(2) 타자의 시선으로 감정의 거리두기.....	85
2) 개인적 경험을 공론화하기.....	90
(1) 연애, ‘사건’으로 명명하기.....	90
(2) 연애, ‘경험’으로 의미화하기.....	94
(3) 연애, ‘경험’을 공유하기/또래집단의 역할.....	97
V. 여성성과 행위성.....	100
1. 행위성과 재구조화되는 자아.....	100
1) ‘관계’와 ‘경험’ 안에서 여성의 위치.....	103
2) ‘행위성’과 사랑에 대한 욕망.....	106
2. ‘관계’를 통한 자아발견.....	109
1) 의미화/치유/실험의 장으로서의 연애.....	112
2) ‘자전적’ 이야기의 성찰성.....	116
IV. 결론.....	120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30대 비혼¹⁾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의미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발현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사랑과 친밀성과 같은 사적 영역 안의 내밀한 감정구조에 주목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9)의 말처럼 우리 시대의 ‘신혼종교’로서 부상한 ‘사랑’에 대한 묵직한 의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남 모두에게는 한 번 짚화두가 되었을 법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가시화되며, 여성이 교육과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을 드러내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다. 여성학의 대중적 확산과 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는 현대 여성들에게 이전 시대의 여성들과는 좀 더 다른 가치, 그러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여성다움’에 대한 이중의 기대치를 낳았다. 여성학이 운동으로서나 의식으로서나 조금씩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가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이며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가정, 가사노동, 아이 양육, 돌봄, 감정노동, 친밀성의 영역 등)을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유혹적 제스처로 여성이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성미라, 2006)

여성들의 실제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여성들은 감정노동에 대한 의무화에서 오롯이 자유

1) 이에 대해 여성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미혼(未婚)이라는 말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미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혹은 ‘미처’ 못 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결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아우르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결혼중심사회에서는 ‘비혼(非婚)’ 또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좀 더 풍요로운 대안적 개념과 어휘들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여성, 배우자와의 이혼 후 또는 사별 후 혼자 사는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좀 더 자유로운 20-30대 여성에 초점을 둔다.

로울 수는 없다. 오히려 현대 여성들은 전 시대의 가치로 치부되는 사적 영역과 오늘날 여성들이 지향해야 할 것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가치들이 마구 혼재되어 있음을 느낀다. 여성들에게 더 이상 사적/공적 영역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남성들은 ‘안’과 ‘밖’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부여받고 있는 기대치는 결코 낮아지거나,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개인적 인간관계’ 내에서 급격히 변한 사회상만큼이나 달라진 의식을 ‘관계’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때로 투쟁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며 체념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능동적으로, 때론 의식적인 수동성²⁾으로 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제 이성애 제도³⁾ 안에서의 ‘연애’는 사랑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연애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적극성은 세대 차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 되었다(김현경 2003). 비혼 남녀의 연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근래의 일이 아니다. 산업화 이후로 여남의 연애가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 그리고 재생산과 연결되어 근대의 사적영역⁴⁾을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애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감정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나 사회·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재생산 영역의 핵심 토대로 직결되는 문제이

2) 이는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성애주의의 이분법적 등식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기 인식에 대해 여성들은 그녀들의 개인적인 힘이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오히려 이러한 폄하된 여성성에 대한 ‘역전적 전유’를 통해 여성 자신의 가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인 수동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이 논문은 이성애 관계 안에서의 ‘연애’ 경험 사례만을 1차 자료로 하여 연구 되었다. 이는 동성애 관계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간과함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인간관계 및 경험이 바탕 되었기 때문이다.

4)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해 공/사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좀 더 폭넓게는 가부장제 이성애 제도 하에서 여성들에게 일임했던 가정, 가사노동, 아이 양육, 돌봄, 감정노동, 친밀성의 영역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 역시 여성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위임받고 기대 받는 ‘여성다움’의 영역에서 늘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 한다면 이 이분법적 구분이 얼마나 무의미한 지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차후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 구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 하다. 바로 연애가 갖는 이러한 특성 상 사회적 현상으로서 국가의 감시와 문화의 카테고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⁵⁾

후기 근대⁶⁾의 연애와 결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 대개의 결혼에 토대가 되었던 것은 서로 간의 성적 매력이나 정서적 유대가 아닌 경제적 상황이었다. ‘점잖은(respectable)’ 여성들의 성적인 방종이 널리 수용된 것은 오직 귀족집단에서 뿐이었다. 서로에 대한 자유로운 호감과 매력에 기반을 둔 성적인 자유는 권력에 뒤따르는 것이었으며 또한 권력의 표현이었다(Anthony Giddens, 1996: 77). 근대에는 ‘낭만적 사랑’⁷⁾에 근거한 정서적 결합 혹은 서로 간의 성적 매력을 기반으로 한 결혼은 실질적 삶에 있어서 의미화 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었다.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후기 근대에 이르러서 가부장적 이성애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을 섬기고 재생산과 가사를 돌보는 아내라는 이항 대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근대 이후의 결혼은 경제활동이라는 남성의 사회자본과 가시화되지 않는 여성의 노동력이 결합·교환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결혼 전의 연애는 이

5) 이는 뒤이어 살펴보게 될 연애를 ‘사건’으로서 정의하는데 유용한 의미이다. 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포함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현재 이 사회에서 왜 연애를 ‘사건’화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해답 역시 제공해 주고 있다. 연애란 단발적이며 개별적임과 동시에 동시성을 함께 갖는다. 가부장제 이성애 주의의 근간이 되는 결혼을 많은 부분 지탱하고 이루는 것이 ‘연애’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연애라는 기존의 의미 위에 연애 ‘사건’을 나누어 의미화 할 것이다.

6) 후기 근대라는 용어에 대해 페미니스트 이수자는 “탈근대라고 하지 않고 후기 근대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의 당대가 근대를 완성하고 이로써 근대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그것은 당대를 탈근대(post modern)의 의미보다는 고도 근대(high modern) 또는 글자 그대로 후기 근대(late modern)로 규정하는 기든스나 하버마스의 어법에 접근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수자(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노동, 몸,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 p. 8,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7) 낭만적인 사랑이 가진 성찰성에 주목한 기든스는 근대 이전의 결혼제도를 넘어 혼외관계, 열정적 관계, 성적인 자유 등과 같은 주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삶에 어떤 서사(narrative)의 관념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숭고한 사랑이 가진 성찰성을 근본적으로 확장한 형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낭만적 사랑과 혼동할 수 있는 ‘열정적 사랑’에 대한 그의 분리적 사고이다. “낭만적 사랑은 종종 찰나적 매혹(‘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함축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매혹이 낭만적 사랑의 일부가 되려면 열정적 사랑의 성적이고 에로틱한 강박충동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고 구별 짓고 있다. 위의 책, pp. 78-79.

러한 조건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시대의 ‘연애’란 일종의 ‘모의 결혼 실습’ 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Ulrich Beck&Elizabeth Beck-Gernsheim, 1999)⁸⁾

그러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독립의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결혼은 더 이상 여성의 ‘생존’과 ‘의무’의 문제로, 혹은 남성의 보호와 경제적 안위를 위해 자신의 성(性)을 맞바꾸는 행위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여성은 자신의 처녀성(性)을 매개로 모종의 타협과 교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안정적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혜택을 과거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핵가족 세대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통과 해 취업을 하며, 함께 어울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결혼 ‘제도’에 묶이기를 과감히 거부하고, ‘남편과 아이’가 주는 안정감을 사회적 성취욕으로 달래는 세대이기도 하다.⁹⁾ 결혼으로부터 보다 자유를 얻게 된 여성들에게 ‘연애’란 더 이상 결혼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다.

8) 이는 남성이 ‘결혼을 하려는 여성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에 적합한 남편감에 대한 탐색’이라는 서로 간의 조건이 부합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혼이 후기 근대에 행해졌던 노동력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더 여성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도, 좀 더 개인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백과 백-게른스하임은 “개인화는 남자와 여자들이 헤어지도록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나 그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양쪽을 서로의 품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있기도 하다. 전통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 가까운 관계가 갖는 매력은 증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개인화에 대한 갈망이 적어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p. 73,

9) 이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20-30대 비혼 여성들은 그녀들의 삶에 있어 결혼이 꼭 ‘필수’적인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자신이 교육 받고, 노력의 대가로 얻은 사회적인 성취들을 어느 면에서는 결혼보다도 더한 상위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와 ‘아이’에 대한 분리적인 사고였다(“굳이 내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아이’는 하나 낳고 싶다”던가, “나는 결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아이를 보면 결혼 생각이 들기도’ 한다” 등). 이들 여성 대부분은 또한, 결혼과 아이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흔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삶을 마감하는’ ‘선택’과는 확실히 다른 사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여성들이 후기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제는 사회제도적으로 많은 역사성을 가지고 개별자인 여성적 자아가 스스로 욕망하는 선택만을 취할 수 없게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연애의 ‘관계’와 ‘경험’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연애=결혼’이라는 공식이 깨지게 됨으로써 단발적인 연애 ‘사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연애와 그로 이어지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근대 이전에도, 단 한 번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우리 부모 세대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예전과는 상이한 만남의 방식은 또 다른 의식의 변화도 함께 가져왔다. 1990년 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여성의 성적 욕망’¹⁰⁾에 대한 담론들은 여성의 성과 욕망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와 만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고, 연구들 또한 비혼의 여성들이 연애 관계 내에서 맺는 성관계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이숙경 1993; 이경미 1994; 조운정 1996; 장수정 1998, 최원영 2003; 김지영 2005).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과 핵가족 제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남녀의 만남 자체를 뛰어 넘어,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성에 대한 탐구가 좀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여성학적 분석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당신은 왜 연애를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기’위해 연애를 한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이제 연애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결혼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다거나, 의무와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과 의지의 문제로 방향을 달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거로 다시금 의미화 할 수 있는 ‘연애’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또한 이러한 연애‘사건’이 그들의 자아와 주체성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시도할 것이다. 후기근대의 주

10) 물론, ‘여성의 성적 욕망’ 앞에는 아직도 ‘비혼의’, ‘젊은 여성의’ 등의 부가 설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중년 여성의’, 혹은 ‘결혼한 여성의’ 더 나아가 ‘노년 여성의’ ‘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성’을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만으로 보거나, 그것을 충분히 계급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라 하겠다.

체들은 성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성, 주체성을 사유할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이들에게 사람과 사회, 문화와 국가라는 ‘관계’는 나라는 개별자를 존재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사적인 문화의 대변자’, ‘관계지향적’이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있어 ‘관계’에 대한 경험은 ‘너와 나’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있어 만남과 관계의 다양한 경험들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내부로 돌리게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치부되었던 연애사건에 대한 여성학적인 분석이고 제안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한 존중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깊은 의미를 뚫으로써 여성들이 의미화하고 있는 개별적인 주체성과 행위성에 대한 여성학적 성찰을 의미화 할 것이다.

여전히 가부장제 이성애 제도 안에서의 만남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또렷이 높이고 있다. 자신의 상처와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연애 ‘경험’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신감과 힘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등장은 여·남간의 만남 자체를 틀 짓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애가 개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떠오른 현상을 20-30대 비혼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아직도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습을 많은 관계 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오래된 공식은 연애 ‘관계’ 안에서 여성을 이중의 곤경¹¹⁾에 처하게 만드는 탓이기도 하다. 이들은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여성

11)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공/사 영역에서의 혼재된 ‘여성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 문화, 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여성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기대하는 가부장제 이성애 제도 하에서의 전통적 고정관념과, 새로운 시대를 맞아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허락받은’ 우리 시대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는 분명 다른 것이나, 여전히 여성들은 이 두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 노출되고 있다.

답게 관계 내에서 당당하고 주체적일 것이라는 요구와 함께, 여전히 ‘여성
은 여성답게’라는 이율배반적인 요구와도 마주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아야’ 하며 ‘사랑하지
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많은 경우,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도 생각하며 때로는 양보, 체
념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독립과 의존, 개인적
성취와 친밀성의 영역 구축 사이에서 남성들보다 더 심각한 딜레마에 처하
게 된다”(성미라, 2006). 현대에 와서 그 위상이 달라진 여·남의 만남은 사
실 참 달라지기도, 또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미묘한 지점에 여성학의 개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는 여성들의 언어로 ‘경험’과 ‘관계’가 다시 의미화 되어져야 하며, 여
성들의 ‘자전적 이야기’¹²⁾가 힘을 발휘할 때, 행위자로서 여성이 진정한 주
체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 연구가 탐구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와 사랑에 관련하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것은 개인의 의식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 기제를 통해 구성되고 여성들이 가지
고 있는 ‘낭만적 사랑’과 ‘현실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란 무엇이며, 이러한 이
데올로기는 ‘관계’와 ‘연애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이에 대해 펠만(Shoshona Felman)은 “여성들의 자전적 이야기autobiography의 실종이 내가 보기에
는 오늘날 여성 조건에 특징적이다...나는 다시 한 번, 다시금 간접적으로, 다시금 여성들이 자기 자신
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수많은 가까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읽어냄으로써, 자기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자전적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들을 참조하라. Shoshona Felman(1995). *What Does a Woman Want?: Reading and Sexual
Difference*. p. 15, Baltimore: Johns Hopkins UP.

둘째, 여성들은 ‘연애’와 ‘사랑’에 어떤 자기개념을 가지는가라는 틀 안에서, 여성들이 ‘경험’과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한 여성들은 ‘친밀성’과 ‘거리두기’라는 욕구 안에서 어떠한 분열과 갈등, 딜레마를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양립 병행 또는 조절해 나가는가?

셋째, 연애의 ‘사건’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과연 이것이 여성들의 자전적 이야기와 행위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애사건’을 재구조화면서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와 주체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개별적 경험을 의미화 한다는 것이 과연 여성들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대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중의 곤경은 연애관계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곤경의 철학적·사회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는 여성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혼란, 의문, 도전 등에 대한 여성들의 새로운 대안이며, 철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서구 정전들 틈바구니에서 여성들만의 언어와 가치로 새롭게 쓰인 명쾌한 목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여성’ 안에서만이라도 혼재된 ‘다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고 상호인정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다.

관계와 경험 안에서 행복하기도 했고 상처 받기도 했던 여성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에게’ 만족스런, 조금 더 ‘우리에게’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극히 개인적인 수다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의 경험이 ‘말하기’ 자체로 얼마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서사를 지니는지, 개인적인 영역과 그 바깥에 존재하는 관계들 사이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딜레마를 경험하는지에 대해 20-30대 비혼 여성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주체적 자아, 행위자로서 여성들이 품고 있는 관계성과 행위성이 연애 관계 안에서 서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이 말하고 바라는 ‘관계’에 대한 조명을 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진입하기 전에 혹은 온전히, 관계에서 오는 긍정성을 바라고자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이러한 연애 관계 안에서¹³⁾, 여성의 가치와 기대, 두려움 그리고 한계 등을 의미화 하고 곱씹어 보는 작업은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기존의 가치와 신념체계, 그 구조들이 가지는 방식과 시선이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굴절되어 왔으며 권력화 되어왔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과 날카로운 비판을 멈 없이 해왔기에 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이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라 여겨지는 이성, 합리성, 객관성 등의 기준들이 사실은 얼마나 남성 편향적인 가치인지에 대한 발견과 이러한 의식들을 좀 더 해방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작업(re-gendering)을 병행해 온 페미니즘의 큰 틀 안에서 여성이 가지는, 혹은 부여되는 ‘여성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성들이 그 가치들을 어떻게 개념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 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연애’라는 관계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타자화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여성적 역할의 감정적 구조들을 연애 관계 안에서 다시 살펴보고 해체하는 과정들과, 관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발현되는 여성의 관계성, 행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후기 근대에 이르러 ‘감정’과 ‘관계’들과 같이 여성성이라 폄하되곤 했던 가치들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필요성, 아울러 삶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되새김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와 함께 새로운 여성 주체성에 대한 성찰이 될 것이다.

13) 이는 모든 여성들이 연애 사건을 경험한다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연애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혹은 많은 여성들과 경험한 여성들과의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연애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또래집단에 의한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것은 여성들의 안과 밖을 아우르는 모든 기억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성찰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에서 20대 후반의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구자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호기심과 적당한 환상, 그리고 두려움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연구자는 이성애자이고, 결혼제도에 관한 깊은 회의와 의문을 품고 있으며, 연애 ‘경험’이 있고, 그것은 이미 만료된 경험이기도 하다. 2000년 대 초반, 페미니즘을 학문으로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내면화하고 한 모든 가치들에 대해 품었던 많은 의문들과 부조리한 이 사회와 제도에서 부적응자로 내몰렸던 기억에 대한 분노는, 이를 나와는 다르지만 함께 ‘고민’하며 언어화하지 못했던 우리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자체로 힘이 되었다. 어떠한 관계가 됐건 이 제도에서 여성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이성애 관계의 부당함, 가족이 갖는 이중성,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거기서 오는 한계 등을 느꼈다면 여성학이 가야할 길은 아직 거기 있다. 여성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여성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타협하며(혹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주변의 여성들에게 늘 귀 기울이며 그들과 이야기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여성학이 갖는 존재 이유에 대해, 여성학자와 우리의 작은 사회가 부르짖는 신념에 대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무관심, 혹은 적개심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학, 혹은 여성학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의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은 가벼운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 여성학은 끊임없이 사유하고 갈등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힘이 넘치며 나 자신의 욕구에 충실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서기 위해 필요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후기근대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함께 사유되는

시대에, 문제의 실마리는 그 관계와 제도일 것이다. ‘자매애(sisterhood)’가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한 방향은 아니지만, 관계와 경험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연구자는 페미니즘이 여성 주체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과 의문을 늘 품고 있었다. 그것은 연구자 자신이 여성으로서 혹은 행위자(agents)로서 당당히 서지 못했다는 회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억들은 의존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친밀감(intimacy)과 여전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감정과 경험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회와 가족, 여성과 남성 등으로부터 고립당한 ‘남성적 여성’의 모습으로 보여 지는 대안은 아니었다. 여성학에 대한 학문적 고민과 연구자 개인의 경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나’라는 자기성찰(self-reflexivity)을 통해 나와는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 행위성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학문적 이상(ideal)과는 다르게 일상적인 상황과 어떤 관계들에서는 그 행위성(agency)의 끈을 놓친 경험 또한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연구자가 겪어 보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여성들의 세계였다. 그렇기에 가질 수 있었던 보다 풍성한 시각은 여성을 에워싼 안과 밖의 세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자는 연애 관계 안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지만, 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관계의 안과 밖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연애 경험을 ‘행위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여성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어

14) 그렇지만 연구자는 이를 ‘자매애’에 국한해서 판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험을 공유할 때 근본이 되는 ‘자기이야기’/‘자전적 이야기’에 대한 탐구가 주가 되었다. 이에 관해 III장에서 자세히 살펴졌다.

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6년 5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20-30대 여성들의 연애에 대한 내밀한 접근을 시도했기에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 면접으로 참여자들과의 거리 좁히기를 시도했으며, 이 중 연애 관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통일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총 14명의 여성들을 만나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 중 2/3 정도가 연구자의 지인과 그들에게 또 다른 이들을 소개받는 알음알음(snow-bowling)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주로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때로는 맥주 집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목소리(voice)와 그들의 언어 표현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분석은 녹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질문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9-10가지 정도로 구성하였고, 질문지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가 참고로 하는 질문지는 존재했다. 질문의 주요 구성내용은 여성들의 관계 혹은 경험에서 ‘사랑’을 경험했다고 보는가, 과거·현재를 아우르는 연애의 일대기, 그 관계 혹은 경험에서 상처받았던 기억은 있는가(있다면 왜 상처가 됐다고 보는가, 어떻게 극복했나), 일상적인 관계들과 연애관계는 어떻게 다른가(왜 그렇다고 보는가), 사랑 혹은 연애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본인의 기획하에 실행되는 연애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관계와 경험 안에서 ‘친밀감’과 ‘거리두기’라는 개념¹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그렇다면 그 두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와 사랑이

15) 이는 연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적이고도 일상적인 사건들이 가지는 여성주체성에 대한 고민과 파트너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등이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적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 그리고 감정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을 가져오는가의 문제를 뜻한다. 여성들은 관계 안에서 자아와 타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들의 ‘친밀감’과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존재 하는가(연애의 고정관념), 경험 안에서 본인은 얼마만큼 자신의 욕구에 정직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경험을 또래 집단과 나누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연애와 사랑이라는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러한 관계와 경험들이 본인의 자아와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보는가 등이었다.

인터뷰 마지막에는 참여했던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인터뷰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들은 “기껏 친한 친구한테나 털어 놓을 수 있는 ‘수다’ 정도”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거나(“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말하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느낌, 내 연애 경험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느낌, 지금까지도 상처가 났다고 여겼던 지점에 대해 말을 하고 나니까 풀리는 기분, 과거를 되짚어 그 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라도 하니 감정의 해소가 되는 느낌, 상담을 받은 기분 등”),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고(“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등”),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들의 인터뷰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걱정하기도 했다(“그런데 내가 잘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도움이 되겠냐, 잘 써주기를 바란다 등”).

또한,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성들은 자신의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연구논문 주제로 적합한지, 도움이 될 런지 등에 관한 의문과 의심, 질문들을 연구자에게 내비쳤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에 답을 하는 가운데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었던 지점은 바로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연구목적이었다. 여성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고민과 성찰들을 우리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연구자의 생각을, 인터뷰 들어가기 전, 연구목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의 목소리로 이

야기해 주었다. 여성들의 언어가 안에서 밖으로, 좀 더 고민하고 사유하며, 관계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연구자의 고민에 크게 공감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쏟아내는 ‘나의 이야기’가 대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하되, 이것에 대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다양한 시선에 대한 고민과 다름에 대한 포용적인 사고로 결론을 지었을 뿐, 보다 근본적이고도 다양한 시각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내기에 본 연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기 검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라면 숙고해 봐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비혼 여성들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이(한 명을 제외하고) 대졸 혹은 대학원 재학의 고학력이며, 대부분이 자신 혼자이거나 1-2명의 형제를 가진 ‘핵가족’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수도권 도시 거주라는 특성은 새로운 문화의 발생과 수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고 지역적인 소속감이나 결집력이 덜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자라온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좀 더 주목 했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어떤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지되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 전원이 1회 이상의 종료된 연애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연애 관계에 놓인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족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룬 여성들도 참여자의 1/3에 달했다. 대부분이 사랑과 결혼, 그리고 연애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¹⁶⁾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애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16)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현재 연애 관계에 놓인 여성들도 포함하여), 연애 관계 혹은 결혼에 대해 “언제든지 나에게 맞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답했으며, 설사 그 관계가 “실패”로 그친다 해도 여성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픈 욕구를 접지 않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III장에서 다룬 자전적 이야기(autobiography)와 말하기, 나누기가 갖는 힘과 연관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성관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¹⁷⁾ 물론, 연애 관계와 경험에서 성관계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맺는 연애 관계와 경험들이 여성의 주체성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또 여성의 행위성은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현 되는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에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단순한 질문만을 하였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고학력 여성들로 구성된 점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선정 시 이 연구의 객관화를 위해 좀 더 숙고했어야 될 지점이었다고 본다.

“연구자에게는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누가 ‘듣는가’가 중요하다”(Sandra Harding, 2004).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일부 참여자들 같은 경우, 인터뷰를 통해 알지 못했던 ‘사건’을 들을 수 있거나, 더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다.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통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신뢰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간 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조차 들을 수 없었던 솔직한 감정과 경험에 대한 고백(confession)¹⁸⁾이었으며 새로운 발견

을 것이라는 말들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17) 물론 성관계가 연애 관계와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성경험이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이고도 너무나 상이한 경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경험에 대한 개념화와 분석 작업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로, 관계 안에서의 ‘성’이라는 의미에 관해서 여성들이 각기 어떤 사고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 정도로 그쳤으며, 본 연구에서는 따로 의미화 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18) 이에 대해 한 참여자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너에게 평생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얘기”라며 인터뷰에 응해주기도 했다.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이뤄 낼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말하기를 강요하거나 본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에 젠더화re-gendering를 강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페미니즘이 다시금 사고해 봐야 할 어떤 경계편 가르기 혹은 자매애 sisterhood가 갖는 판타지 그 너머의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고학력인 만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남달랐다. 그들 중 일부는 ‘여성학’을 학부의 개설 교양 강좌로 수강한 세대인 만큼, 능동적으로 여성단체 활동과 모임 공부를 통해 진지한 고민을 해 온 참여자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페미니즘에 대한 다소의 거부감과 범접할 수 없는 학문적 괴리를 느끼는 이도 만날 수 있었으며, 또한 어떤 여성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규정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쉬지 않는 여성들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적상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¹⁹⁾

이름 (가명)	나이	학력	직업	인터뷰 당시 연에관계	가족구성	거주형태	비고
박혜옥	28	대졸	대안교육 교사	없음	부모, 1남1녀 중 첫째	가족과 거주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조미주	27	대학원 재학	학생	없음	부모, 3녀1남 중 첫째	동생과 거주	여러 번의 연애경험 이 있음
이혜규	28	대학원 재학	초등교사	있음	부모, 3녀 중 첫째	가족과 거주	20대 초반에 만나 8년간 연애 중
이규은	27	대졸	구직 중	있음	부모, 1녀1남 중 첫째	가족과 거주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정선영	30	대졸	프리랜서	있음	부모, 2녀1남 중 둘째	가족과 거주	20대 초반 단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김혜영	32	대졸	직장	없음	부모, 1녀1남 중 둘째	혼자 거주	대학시절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구자원	33	석사 수료	직장	없음	부모, 2녀1남	동생과 거주	30대 초반

19)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들의 개인생활과 의견을 존중해 모두 가명을 사용했고, 그룹 인터뷰를 시도했던 두 건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참여자 서로의 교류는 없었다.

					중 둘째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최정은	28	대졸	미술학원 교사	있음	부모, 1녀1남 중 첫째	동생과 거주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임정완	25	대학원 재학	학생	없음	부모, 1녀2남 중 셋째	오빠와 거주	대학시절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김수진	27	대학원 재학	학생	있음	부모, 외동	혼자 거주	두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고주희	28	대졸	프리랜서	없음	부모, 3녀 중 셋째	혼자 거주	대학시절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윤지호	30	석사 졸	홍보사 근무	없음	부모, 1녀1남 중 첫째	혼자 거주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서은영	27	석사 졸	구직 중	있음	부모, 2녀 중 둘째	가족과 거주	동일인과 두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 연애를 하고 있음
류지현	25	고졸	아르바이트	없음	부모, 1녀1남 중 첫째	친구와 거주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음

II. 주체성과 사랑의 공존

1. 재구성되는 여성적 자아/주체성²⁰⁾

인류가 등장하고 진화를 거듭해 온 이래로 지금까지도 감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던 적은 없었다. 근대 이전에는 결혼이라는 장에서조차 ‘감정적 헌신’이라든지, 인내, 사랑 등의 영역은 주요 덕목이 아니었다. 여·남은 단지 필요에 의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는 많은 바람(want) 따위는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연애’라는 감정의 사치는 어디까지나 특정 계층에게나 허락된 것일 뿐 이었다. 그러나 이성에 방해요소일 뿐이라던 몸에 대한 반추가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여성적 영역으로만 취급되던 감정이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은 지금, 후기 근대에 들어와 ‘감정(emotion)’²¹⁾은 더 이상 노동으로만 묶이고 설명될 영역은 아니

20) 여성적 주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장을 통해 계속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조금 다른 의미로 혹은 근본적인 의미로, 여성 주체와 여성적 주체성에 대해 논의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49)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보부아르는 여성학의 고전이 된 자신의 저서 『제2의 성』에서 남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자주성을 획득한 여성들이 주체성 획득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열에 대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남자는 인간이라는 천직과 남성이라는 운명이 완전히 조화되어 모순을 느끼지 않는 반면, 여자는 여자다움이 의존성 혹은 복종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체성이라는 최고의 것’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다. 여성다움은 여성의 자유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갈등은 해방된 여자의 위치를 특징짓는 특이한 것이다. “자주적인 능동성이라는 것은 여자다움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독립적인 여성-특히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지적인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열등감에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성에게 남겨진 길은 “새로운 종속자로서의 여자”가 되거나 종속에 대한 거부를 통해 “메마른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보부아르가 보기에 “그녀는 자기 확립의 욕망과 자기 부정의 욕망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져 어느 쪽이든지 분열되고 만다”는 것이다. 보부아르가 보여준 여성성과 주체성의 양립불가능성은 여성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의 해방된 여성들은 복종과 희생, 의존적인 사람에 벗어나 자신의 직업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분열과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다. 이처럼 그녀는 교육받은 중산층인 자신을 포함한 여성의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 탁월하게 분석했으나, 여전히 보부아르에게 여성성이란 인간성과 주체성 획득을 위해서 부정되거나 객체화 되어야 하는 타자를 의미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1993), 『제2의 성』. 조홍식 역, pp. 461-508, 서울: 을유문화사. 로즈마리 통(1995), “실존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성미라(2006), 『‘상호의존성’의 여성주의적 진유를 통한 주체성 연구』. pp. 28-2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21) 에번스(Dylan Evans)는 “감성이 이성과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흄, 스미스, 리드 등의 사상가들이 설명한 감정(sentiments)과 열정(passions)이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현존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가에 주목했다. 특히나 에번스는 이러한 자신의 관점을 진화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기계론자의 말을 빌어 “생태적 합리성

다. 수많은 세대와 인종과 켜켜이 쌓인 오랜 시간을 걸쳐 진화해 온 ‘감정’은 인간을 이루는 매우 특징적이며 구별적인 요소이며,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상대방과 한 없이 가까워지기만을 바라면서도 그와 똑같은 무게만큼 ‘자기만의 방’을 원한다.

현대에 와서 급부상한 사랑, 친밀성,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감정 영역의 여러 문제들은 더 이상 소수의 심리학자와 인류학자만의 탐구 영역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성(modernity)이 당면한 난제들을 설명할 주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20세기 이전에는 이러한 감정영역 안의 문제들을 억압해 왔지만, 후기 근대에 이르러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남아 있는 의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성적 영역으로 치부해 온 감정에 관한 해묵은 담론을 다시금 펼쳐 든 것이다.

복잡하게 발전된 개인의, 그리고 현대 사회의 구조를 전제로 친밀성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슈미트바우어(Wolfgang Schmidbauer)는 “사회적인 역할수행의 본질이 예전엔 감정을 지배하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감정을 가능한 한 잘 드러내고, 잘 유도하는 데 있다. 그것은 억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감정을 마침내 자발적인 상태로 놓아두도록, 있는 그대로 허용하도록”(슈미트바우어, 1999: 139)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처한 곤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현대인들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까워지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개별자들의 사랑이 피상적인 감정만을 소비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만 개인을 좌절시키고 파괴시키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슈미트바우어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감정 표현에 대한 통제 역시 가속화되었는

(ecological rationality)”, 혹은 다른 용어로 “진화적 합리성”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감정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감정의 ‘진화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딜런 에번스(2002). 『감정』. 임건태 역. 서울: 이소출판사.

데, 급기야는 감정이 이성이 아닌 여러 감정들 중 ‘두려움’에 의해 통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이와 같이 사회적 현실과 얽혀 있는 두려움을 ‘신경증적 두려움’(이것은 ‘실제적인 공포’와는 다른 맥락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이라고 말한다. 열정적 사랑에 의한 관계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밀성을 매개로 한 관계이든 간에 현대인들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바란다. 이는 다시 말해 대상과 한 없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픈 환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후기 근대에서 ‘신경증적 두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여·남간의 연애관계가 아닐까 한다.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가족에게서만 안정적 애착관계와 바람직한 감정노동의 역동성이 발현된다고 기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녀들은 친구와 그와 유사한 관계가 주는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과 감정의 상호교환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대이니 만큼 감정과 사랑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연애관계 안에서의 사건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또한 사랑과 연애관계, 자신의 감정에 보다 자유로운 우리 시대 여성들은 전시대와 비교해 조금은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도 되었다. 그녀들은 이제 사랑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조금 달리 말하자면, 감정에만 충실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사랑’ 앞에 출현한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 주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성실한 답을 산출할 기회 없이 사랑과 감정 앞에 놓인다. 그것은 가부장적 이성에 제도 하에서 여성들을 짐 지우는 또 하나의 굴레로 작용한다. 여·남간의 성차는 사랑과 연애라는 현재적 상황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기서 다시 문제는, 남정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성차(gender difference)’라는 ‘차이’가 더 크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지금껏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남근중심적 사고는 남/녀, 정신/육체,

이성/감정, 문화/자연 등의 이항대립에 근거하여 앞의 항에 절대적인 우위와 권력을 부여해 왔다. 이는 매우 이성중심적임과 동시에 언어중심적이기도 하며, 나머지 다른 대립항들에 대한 타자화를 의미했다. ‘차이’와 ‘권리’에 대한 투쟁을 넘어 후기 근대에 이르러서야 남성적 영역으로 구획화 해온 잃어버린 주체성에 대한 여성적 복권과 더불어, 여성 안에서의 여성적 재현이 가능해 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²²⁾. 이제 여성성, 혹은 여성적 차이에 대한 성찰과 강조는 전 시대와는 다른 의미로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다 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에 이르러 성차는 여성적 주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시대 여성들의 감정과 사랑,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자아와 본성, 주체성의 형성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아 개념의 합리성과 그 개념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은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역사적·물리적 사실들과는 다른 범주의 자아가 다른 자아들과 맺고 있는 관계(성)에 주목했다.²³⁾ 그들은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통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온전히 인간의 자아와 본성의 구성 요소인가 혹

22) 이에 관해서는,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테레사 드 로레티즈(Teresa de Lauretis)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페미니스트 글쓰기에서 출현한 것은…복수적인 변환의 개념과 종종은 자기 모순된 정체성, 언어 속에서 분할되었다기보다는 서로 갈등하는 주체이다. 이 정체성은 실은 언어와 문화를 가로지르고, 젠더, 인종, 계급의 이질적이고 타율적인 재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 정체성은 복수적 동화의 역사로부터 재주장되고, 전략으로서 주장된 것이다”(Rosi Braidotti, 2004, p. 366, 재인용).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여 브라이도티는 “여성주체성을 재정의 하려는 기획은 성들 간에 근본적인 차이를 규정하고 강조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여성주의가 여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눈높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Rosi Braidotti(2004).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3) 이에 관해 일부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자아와 타자들 간의 근원적인 상호관계성 혹은 상호연관성”에 관한 ‘자아의 관계이론(relational theories of the self)’을 옹호하며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여성적 자아에 대한 본성과 그 관계성에 대한 이론들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미셸 무디-아담스(2005). 「자아/타자」. 엘리슨 M. 제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 『여성주의 철학 1』. 한국여성철학회 역., 서평사.

은 이러한 맥락들과는 별개로 어떤 다른 작용이 근본적인 자아 구성에 역할을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여성적 자아/남성적 자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기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여성주의자들은 정신과 육체에 대한 데카르트(R. Descartes)적 자아, 즉 이원론(dualism)적이고 유아론(solipsism)적인 자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⁴⁾

그러나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결국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아가 다른 자아와 맺고 있는 관계성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무디-아담스(Moody-Adams, 2005)는 여성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옹호되는 두 가지 관계이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아와 타자들 간의 근본적인 상호연계성 혹은 상호연관성에 관한 ‘자아의 관계이론(relational theories of the self)’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여성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두 가지 커다란 갈래로 분류되고 옹호되는 관계이론에 대해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가족 내에서의 주양육자와 피양육자 간의 관계가 자아의 본성과 정체성에 기초가 된다고 보는 시각과, 둘째로 친구관계가 적어도 보호자와 자녀들 간의 가족적인 결속만큼이나 자아의 구성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주장이다.²⁵⁾

24) 데카르트는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자아의 본질이 연장적 실체인 육체가 아니라 사유적 실체인 정신임을 명시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의 각인, 즉 근세의 인식론적인 주-객도식과 그 주체성의 확립은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판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데카르트에게서 자아의 외적, 객관적 세계와 분리된 의식 내면에 밀폐된 자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아론의 자아 역시 그 동안 상실해왔던 타자, 주변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노성숙, 2003), 이는 정신에는 확실성을 부여하고 육체에는 개연성을 부여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이분법적인 성별상징성을 등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Brison, 1997: 15)이라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서구 철학 사상 안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한 공식이 되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고립되고 추상적인 자아와 정신에 우선성을 부여한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남성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노성숙, 2003), 노성숙(2003), “사이렌들과 오딧세우스: 비동일적 자아의 탐색,” 『哲學』, 제76집, 2003 가을, pp. 290-291, 韓國哲學會, S. J. Brison(1997), “Outliving Oneself: Trauma,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Feminists Rethink the Self*, D. T. Meyers(ed.), p. 15, Boulder: Westview Press

25) 연구자는 여성들이 사회적·문화적·정치적·철학적으로 남성들에게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부여 받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에 대해, 관계이론의 두 가지 지류 중 두 번째 이론을 지

자아와 일부 특정한 타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의존성의 개념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관계에 대한 잘 알려져 있는 가정들을 의심한다(Whitbeck, 1983). 따라서 자아에 대한 관계이론은 자아와 타자 간의 대부분의 상호작용에는 경쟁과 갈등이 뒤따른다고 가정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 이론들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무디-아담스, 1998). 역사적으로 그리고 엄연한 현실로, 철학의 정전(canon)이나 사상에서 여성의 경험-어머니 되기와 같은 감정적 경험, 출산과 양육 같은 육체적 경험 등 여성이 남성과는 달리 겪는 무수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폄하되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들을 다시 의미화해 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고, 철학 사상 안에서 여성의 자아와 본성, 행위성 등에 대한 가치에 대해 진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도 한다. 여성만이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에 대한 존중과 이러한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철학적 사고가 가능하다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여성들에게 이중의 굴레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본다.

다시 말해 여성적 경험과 사고가 철학적 사상에 미친 것은 출산과 어머니 역할 등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경험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그동안 철학적 전통에 의해 무시되어 온 여성적 경험과 사고를 철학 사상 안에 자리 잡게끔 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지지와 함께 비판도 떠안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이 이론이 어머니가 된 적이 없으며, 그러할 의지가 없는 여성들에게도 온전히 통용될 것인가의 문제제기이다.

여성 특유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다시 이야기되어 지고, 의미화되고, 그것이 인간 자아나 본성 등에 까지 확장되어 담론화 된다는 것으로

지한다. 그것은 단순히 첫 번째 이론에서 나오는 비판과 한계에 대한 반동이 아닌 친구 관계 및 그와 유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유대가 가지는 자율성과 결속력, 그리고 개별자의 자아와 행위성이 어찌면 가족관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프리드먼, 무디-아담스, 코드 등 일련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더 강한 근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에 대한 어떤 가치가 지금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리라는 낙관을 해보기도 하지만, 과연 그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여성들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이야기 인가 하는 부정의 의문을 떠올리게도 만든다. 그렇다면 경험에 의해 여성의 여성, 여성들 간의 여성으로 계층이 나누어지고 계급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답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친구관계 안에서의 자아 구성과 정체성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설득될 수 있는 성숙한 자아, 그리고 자아와 타자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쉬울 거라고 주장한다(Friedman, 1993). 왜냐하면, 친구관계와 그와 유사한 관계들에서 볼 수 있는 관계의 유대적 자발성, 또는 자발성에 준하는 어떤 것 때문에, 보다 성숙한 자아를 구성하는 데 더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같은 일차적 관계에서는 개별자의 자발성은 고려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선택이나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하지만 친구관계와 그와 유사한 친밀한 관계들에서 보이는 안정적 유대감은, 자발성이라는 개별자의 선택과 사고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관계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연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로 인한 성찰로 여성들의 자아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들²⁶⁾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그 자아로 인한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새로운 함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여성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임과 동시에 여성이 관계지향적²⁷⁾ 이라

26) 벤하비브(S. Benhabib)는 울프의 『올란도』와 테일러의 『자아의 원천』을 분석하면서, 버틀러가 제시하고 있는 “행위적(수행적)” 모델을 대신하여 동일성에 대한 “내러티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 Benhabib(1999). “Sexual Difference and Collective Identities: The New Global Constellation”.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ruew and Society*. pp. 341-348, vol. 24,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7)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여성성’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관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 중 대표적으로 ‘대상관계이론’이 있는데, 이는 “자아란 관계적 맥락 내에서 발달하고 존재하는 개인적 영역이며, 스스로 개인의 여러 측면들 간에 내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라는 믿음 위에 근거한다”(조혜자, 2002)는 이론이다. 디너스타인(D. Dinnerstein, 1976)이나 초도로우(N. Chodorow, 1989)같은 여성

는 가부장적 이성애제도에 대한 편견에 여성주의자들이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많은 여성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관계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논의들을 꺼안고 갈 수 있는 여성적 주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되는 그러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성찰은 우선 그에 앞서 가족 내에서의 관계만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었던 여성 자아, 여성 주체성에 대한 폭넓은 소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아의 구성이 어떤 방법론적 검증의 경로를 거쳐 그 근간을 이루는 간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타자에게 필연적인 영

주의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여성 억압의 근원이 여성의 양육 역할에 있다고 보면서, 남성도 동일하게 부모 노릇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성의 구분은 철저히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첫째로 이들은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을 사회적이기보다는 심리적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루지 않고 양부모가 있는 이성애 가족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남성들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여성들도 공적 영역이나 권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특히 디너스타인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로 전쟁과 생태학적 무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해결책은 또다시 남성을 구세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가정 밖에서의 정치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조차 남성에게 개인적 심리적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한다. 이와 함께 보살핌 윤리와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 초도로우의 이론을 발전시킨 길리건(C. Gilligan, 1997)이 있다. 그녀는 “사랑이나 인간관계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된 심리적 과정들은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되었던 폭력이나 권리 침해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화에 저항하기 시작한 다른 목소리는 바로 관계적인(relational) 목소리이다. 그 목소리는 연결, 특히 여성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율이나 자아(selfhood) 또는 자유라는 미명으로 합리화되어 온 심리적 분리가 더 이상 인간 발달의 불가피한 귀결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되어야 하는 인간의 숙제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p.14). 디너스타인과 초도로우와는 조금 다르게 길리건은 온전한 여성들의 관계성, 여성들의 관계적 목소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Scott(1988)은 길리건이 성차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성이나 도덕적 추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 자료를 단순화함으로써, 자기들이 반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생각에 도리어 공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scott은 이항 대립이 갖는 고정적이고도 영속적인 성격을 거부하고, 성차의 조건을 진정으로 역사회화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가 말하는 연애‘관계’는 대상관계이론이나 여성의 관계성에만 한정되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준다. 오히려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연애‘관계’란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보듬어 안고 가고자 하는 주체성의 논의가 덧입혀진 ‘관계성’이 될 것이다. 즉, Code(1987)가 말한 대로 “점점 더 많은 여성주의 철학자들이 어느 한 종류의 관계만을 성숙한 자아의 본성과 정체성에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우선시하는 것이 관련 의미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는 Code(1987)의 질문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 여성주의 사상과 많이 연계되어 있는 관계이론에 대해 보다 절충적인 접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다. Joan W. Scott(1988).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조혜자(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철학과 현실사. 캐롤 길리건(1997).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미셸 무디-아담스(2005). “자아/타자”. 엘리슨 M. 제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 『여성주의 철학 2』. 한국여성철학회 역. 서광사.

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어떤 근거로든 간에 정해 놓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정의되기도,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이다. 여성적 자아, 여성적 행위성에 대해 남근중심적 사고를 비판/배제하고 다시 성찰해 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껏 내려온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토대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는 아니다.

데카르트는 개인의 행위자가 정신/영혼 또는 단지 몸으로부터 기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만을 증대시켜온 정신과 육체의 형이상학적 분리를 이론화하며, 여전히 외부적(body)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인간의 자유의지(mind)를 구별하는 의지로서의 심리학적 특질을 정체화하려고 애썼다. 반면에 헤겔(G. W. F. Hegel)도 사회적 방식으로부터 행위성의 정신적 구성을 해석했고, 막스(K. H. Marx)는 사회적 방식에서 행위성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설명했다(Mann, 1994: 12). 비록, 철학 사상 중에 여성학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많은 철학 개념들(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의 사상 등)도 현재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자아에 대한 관계이론의 다양한 형태에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무디-아담스, 2005).

결국 자아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행하는데 명백히 중요할 뿐 아니라 남성중심으로 구획화된 도덕성의 본성과 사회적·정치적 삶의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인 함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구획화된 공/사 영역에 대한 이분법적인 분리가 어떻게 또 다른 억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과 더 나은 방향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적 자아·주체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남근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인 이 세계의 근간을 이해하려는 여성학적인 인정(認定)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일방향이 아닌, 상호인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여성적 자아·주체성·행위성에 대한 근본적 고찰과 철학적 재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동안 철학 사상 안에서 전개해 온 사고패턴은 감정과 이성의 대립, 이론과 실천

의 분리 등으로 점철되며 철저히 여성적 경험과 여성들 특유의 사고방식, 여성적 ‘관계’와 ‘감정’ 등을 배타해 왔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존의 철학적 사고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자아와 정체성, 더 나아가 여성적 ‘행위성(agency)’에 대한 보다 풍성한 사고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 연애 ‘사건’의 재구성과 ‘행위성’

현재 ‘agency’는 행위성, 행위주체성, 수행성 등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만(Mann, 1994)에 따르면 행위성이란, “모더니스트 윤리나 철학적 이론들은 정체성의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적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을, 또는 전통적인 막시스트는 사회적 집단 정체성(social group identity)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현 상황에서는 정체성이 젠더화 되거나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것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들은 전통적인 젠더나 인종·계급·직업, 또는 친족 정체성의 척도와 교차하면서 외부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대신에 유동적이고 특별하며 모호하게 작동하는 정체성에 의지하고 있다”(Mann, 1994: 6)라고 하면서, ‘정체성(identity)’에서 ‘행위성’의 개념을 조심스럽게 추출해내고 있다.

오늘날의 여성과 남성은 사회 안팎으로 저마다 다양한 사적/공적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관계에서 각기 다른 많은 ‘역할(position)’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들에 맞는 정확한 형식적 개념이란 없다. 더군다나 개별적인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인종이나 섹슈얼리티, 그리고 젠더화된 맥락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개념만을 가지고는 현재 합리적이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개념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따른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우리의 재사고(re-thinki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성을 구성하는 것

이 개인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이론들이 또한 현시대의 젠더화 되고 다문화적인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버틀러, 1989)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정체성 형성에 대한 하버마스(J. Habermas, 1979)의 상호주관적인 설명을 곁들여야 하겠다. 하버마스는 먼저 개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서로 관계하는 사회적인 행위자들의 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사회적인 관계들의 결과물로서 개별적인 자기 자신이 산출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들은 그 자체가 평등 혹은 불평등, 자유 혹은 억압, 권위 혹은 이성이라는 규범들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공동체적 삶을 규범적으로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의해서만 오로지 가능하다”(미현, 2005: 129에서 재인용)고 말하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자아와 타자에 대한 규범적인 이상들과 그것들이 협의되는 성별화된 담론적 맥락을 사고하게 하는 이론적인 공간을 펼쳐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균열을 가로지르는 가능성을 창출한다.”(미현, 2005)

여성적 자아를 말할 때 그 자아의 출신성분이나 구성요소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여성들이 왜 자기 젠더·자기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성차화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이 어찌면 여성적 자아를 구성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나를 여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쉽게 단언하고 넘겨 버릴 일만은 아니다. 여성적인 가치라고 이름 붙여진 타자성의 능력들이 전 시대에는 무가치한 것들로 여겨지다가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야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그것이 여성의 문제이든 남성의 문제이든, 혹은 그 둘 다를 아우르는 문제이든 간에 해

결 할 새로운 대안적 가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성적 자아, 그리고 주체(성)에 대한 솔직한 고민들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이다.²⁸⁾

모더니티 안에서 여성에 대한 재성찰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는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2004)는, 여성들을 노동예비군으로 '사용'하며 수세기 동안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들의 자격을 박탈해 온 남근중심적 문화 내에서는 그녀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말하며, 모더니티는 여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이 기회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후기 근대에서 인식하는 자이자 행위자로서 개별 자아들에 대한 존재적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결국 이런 믿음이 여성적 경험에 대한 합리적 견해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으로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여성의 자기 인식이라는 질문 안에 놓였다. 여성의 자아 주체는 주어진 물리적·사회적·철학적 환경들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분리된 채 구성되어 질 수 있는가, 혹은 온전한 개별자의 본성에서 기인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본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지는가. 여성적 자아, 주체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테레사 드 로레티즈가 말한 '페미니즘적 여성 주체'와 같은 정치적이고도 이론적인 범주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에 여성주의가 나아 갈 방향이기도 하다. 브라이도티를 인용하자면, 여성주의에서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몸에서 출발 한다는 것이다. 주체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체현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코드화되고 사회화된 존재이다.

28)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agency'라는 용어를 '행위성'으로 통일할 것이다. Patricia S. Mann(1994), *Micro-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London.

그렇기에 후기 근대에 이르러 이성·문화·정신·(남성)자아로 풀 수 없었고 해독 불가능했던 감정·자연·육체 등의 문제를 여성적 자아와 주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적 자아·주체성에 대한 출현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도 하에서 남성적 저항과 적개심에 부딪힌 것은 놀랄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남근중심적 제도와 그 영역에 도전하고 그것을 둘러싼 문제들을 법적인 이슈들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들의 가치와 기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젠더관계가 약화되는 근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적 행위성이나 행위자로서 여성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사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의 욕망에 대한 가부장적인 성적 정체성이 젠더화된 주체성 생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은 여성적 주체성 형성과정을 알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성적 욕망은 성적 행위성(sexual agency)의 남성적 특질로 간주되었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행위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욕망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여성에게 있어 남성을 대상으로 취하는 직접적인 성적 응시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타자를 성적대상으로 삼고 욕망을 품는 것은 금기시 되어왔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성적 욕망이 없는 존재, 혹은 그 욕망을 남성을 통해 채워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상과 능동적 의지를 가진다면 그것은 ‘창녀’로서의 주홍글씨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라캉(J. Lacan)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인식을 위한 개인적인 욕망은 모든 인간행위를 위한 원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개인들은 타자에 대한 인식을 그들 사회의 언어와 기표(signifying)시스템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라캉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기표 시스템 안에서 근본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섹슈얼리티와 지배/섹슈얼리티와 권력이라는 담론

에 이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에게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권력을 부여하려는 작업의 성과로서, 그리고 지배 권력의 새로운 담론처럼 보이는 몸·섹슈얼리티·감정 등에 대한 논의들로 이제 여성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권력층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이야기해온 것처럼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재생산에 대한, 그리고 욕망에 대한 몰이해와 억압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현대적 담론에 맞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어 여전히 여성들을 복속시키고 있다. 섹슈얼리티가 여성 억압의 울가미로 작동하는 기체로서 비판되고 다시 정의 내려져야 한다기보다, 푸코의 말처럼 그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간주체로서의 ‘진리’가 판가름 나는 재판소”(푸코, 1995: 21)이기도 한 이유이다.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은 그 특징이 ‘본질적으로 논쟁적인(essentially contested)’개념이라는 점에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²⁹⁾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행위성을 이야기할 때, 여성 행위성은 오로지 남성의 행위성과 관련한 지배적인 형태로 드러나며, 이것은 곧 가부장적 이성에 제도의 성적 상황(sexual situations)에 대한 분석의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해, 행위성에 대한 이러한 젠더화된 분석은 개별 인식주체로서의 여성적 행위자에 대한 이중의 시선을 견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을 대면할 때 분열된 이중의 상(image)을 경험하게 하는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는다. 여성들이 자신의 자아·주체·행위성을

29) 낸시 하트삭(Nancy Hartsock)은, 푸코의 권력이론에 대해 여성주의적 논의를 덧붙이며 ‘권력’이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녀는 이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갈리(W.B.Gallie)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말하며 “권력은 내적으로 복잡적이며 개발되어 있고 공격적으로도 방어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갈리는 자기 입장의 인식론적 함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낸시 하트삭(1995). 「푸코의 권력이론: 여성을 위한 이론인가?」.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황정미 역. p. 123, 새물결.

인식하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모순된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고 젠더화된 남성적 사고의 틀 안에서 작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했던 여성들은 너무나 과편화되고 분열된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행위성에 앞서 개인과 집단, 지배와 억압, 사회적 권력이 실린 행위성에 주목하고 쉽 없이 비판하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은 여성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여성적 사고의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여성적 행위성은 “여성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 안에 침몰시키지 않으며 여성의 삶을 대리만족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메이어스, 2005: 75)

‘여성=타자’라는 공식을 만들고 열등함이라는 또 다른 항을 설정한 남근중심적인 태도에 대해 이리가라이(Luce Irigaray 1974; 1985a)는 이러한 이원론에 대한 전도된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남근중심주의가 ‘타자’에 덧씌운 부정적이고 중첩되는 여러 열등항들에서 성들 간의 ‘차이’는 차이를 열등한 것으로 떨어트려 온 권력관계들에 역사적으로 식민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러한 차이를 ‘본성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행위자/사유자들을 일회적인 실재들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틀에서 권력은 다중적으로 위치지워진 입장들-텍스트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징적인,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입장들-간의 폐쇄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세트에 주어진 이름이다(브라이도티, 2005에서 재인용).

브라이도티는 성적 차이에 대한 이론에서 이리가라이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말한 ‘차이’에 관한 개념을 빌어 와, “권력은 몇몇 관념들, 개념들 혹은 한 세트의 개념들에 ‘참된 가치’나 혹은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들에 속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성과 유색인종이 열등하다는 신념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평가절하된 혹은 경멸적인

타자성은 사회적 성차들의 모든 등급들을 관리하고 악용하는 것을 허용한 위계적 규모에서 차이를 조직화 한다...따라서 차이의 악용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남근중심주의 의미체계와 그 체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질서에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경멸에 대한 지시적 대상들인 경험적 주체들을 자신들의 구체화된 현존 속에서 이러한 부적격한 효과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성적 차이는 철학적 이원론과 사유의 이항적 습관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브라이도티, 2005: 4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리가라이의 비판과 브라이도티의 수공은, 여성주의자들이 섹슈얼리티를 출발점으로 이용해서 그것들을 식민화하고 다른 주장들로 넘어간다고 했던 푸코(M. Foucault)의 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될 수도 있다.³⁰⁾ 이리가라이는 서구 철학의 주요 텍스트로부터 여성들의 조건과 지위라는 역사적 현실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묻혀져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대한 역사적·현재적 재발견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많은 고전 철학 텍스트 안에서 재현되는 여성성과 그 여성성에 대한 텍스트라는 두 가지 견해를 유지하며 텍스트를 수용한다. 브라이도티는 오히려 이리가라이가 이 텍스트를 탈피해 읽는다(un-read)고 보았다. “어떤 텍스트가 ‘여성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바를 그 텍스트에 다시 되비쳐 주는 이러한 전략적 모방 게임은 매우 전복적인 담론 비판 실천이 된다.”(브라이도티, 2004)

이러한 논의에 따라 주체성의 변수들을 재정의 하려는 이리가라이의 기획과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차가 가지는 근본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30) 푸코는 레비(Bernard-Henri Lévy)와의 대담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피력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차이에 의해 시달리다 18세기에 이르러 여성을 병리학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며, 이러한 역사에 관해 여성주의 운동은 도전적으로 응답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여성주의자들이 “우리의 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다면, 성의 고유성, 환원 불가능한 특수성에 따라 살기로 하자. 성차를 명백히 하고 여성에 고유한 유형의 삶,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등을 다시 만들어 내라...즉 여성이라는 성(sexuality)를 출발점으로 이용해서 그것들을 식민화하고 다른 주장들로 넘어가버리는 것이죠.” 위의 책. pp. 24-25.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들 간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며, 차이에 의해 인간 간의 경험은 달리 구성된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존재론적 사고들과 나란히 배치되어야만 한다. 성차란 인식주체가 그것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후기 근대의 이성애 제도 하에서의 여/남 간의 연애‘관계’는 다시, 성적 차이를 재현하고 또한 이를 여성이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문화적으로 그들에게 감정적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여성적 감정과 사랑이 여성이 말하는 바대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고, 또 관계 안에서 제대로 발언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로고스 중심적인 이 땅에서 여성적 자아와 행위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근거가 될 것이다.

현재 20-30대 비혼 여성들은 자신의 연애를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기획하고 관리 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연애란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서 존재하며, 이 사건들은 이제 여성들에게는 어떤, 경력(career)이 되고 있다. 각각의 연애‘사건’은 자기 이야기를 가지며 맺고 끝남이 존재한다. 매 ‘사건’마다 등장 인물이 다를 수도, 혹은 동일한 사람과의 여러 ‘사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³¹⁾ 연애는 ‘사건’으로 명명되어짐으로써 관계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는다.³²⁾

31) 후기 근대 들어 여성들의 변화된 사랑과 연애관에 따라 다시 정의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연애의 ‘사건’화이다. 여성들은 만남에서 이별까지 각 ‘(연애)사건’마다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으며, 관계 안에서 기·승·전·결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기획 하에 발생하고 소멸되는 관계도 경험하며, 얼마든지 이벤트적이고 일회적인 만남도 가능함을 알고 있다. 연애는 사건으로 명명되며 이 개별사건은 각각의 사건마다 등장하는 파트너가 다를 수도, 혹은 같을 수도 있다. 또한 동시에 여러 명의 파트너가 등장하기도 한다. 즉, ‘연애의 사건화’란 각 사건마다 이야기가 있고, 여성은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이며, 각 사건마다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연애의 ‘사건’화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2) 이 말은 연애 사건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후 ‘말 할 수’ 있게 된 여성들의 경우를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소통할 수 없었던 ‘말’들을 관계가 끝나고 난 후, 다시 꺼냄으로써 그 때의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도 상처를 대면할 수도 있게 된 여성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지는 힘에 관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비혼 여성들이 연애를 ‘사건’으로 경험함에 있어서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연애사건이 갖는 ‘욕망(desire)’과 ‘환상(fantasy)’이다. 여성들은 연애 경험의 유무를 떠나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 그것은 물론 어떤 여성에게나, 대상을 향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론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생리적 충동 체계로 보는 대신 인간에게 중심 되는 것은 ‘관계’라고 보는 견해는 비단, 프로이트를 위시한 정신분석학자나 여성주의자에 국한된 관점이 아니다.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많은 비혼 여성/남성들도 감정과 정서가 그 중요성을 획득해 갈수록 ‘관계’에 대한 무게만큼이나 그것에서 오는 환상을 꿈꾸고, 욕망하게 된다.

Ⅲ. 감정노동의 제도화

1. 제도화되는 사랑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지배와 권력, 그리고 억압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다. 남성의 역사에서 그들은 권력·지배·억압에 관해 계층 간의 혹은 인종 간의 문제들로 이러한 교집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학자들은 이러한 권력과 억압에 관한 문제들을 성(sex)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한 성이 다른 성에게 얼마나, 어떻게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지배당해 왔는지에 주목을 했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다. 21세기의 서막을 이제 막 열기 시작하는 우리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인식의 여러 관문을 통과해 왔으며, 교육을 통해, 그리고 경험과 기회를 통해 전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차원의 개인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론적 사유를 요구하는 시대에 다다랐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사랑에 대한 억압이 사회적 통제의 기제로 사용된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원전부터 존재하는 여러 문화의 수많은 연애 시(love poetry)에서 사랑이란, 자아를 압도하고 개별자의 세계관을 넘

어서는 일종의 정신병적 징후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원전에 가능했던 사랑과 연애에 대한 이러한 낭만적 사유는 많은 세대를 거쳐 후기 근대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현대성의 어떤 특질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 많은 세대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감정에 대한 억압 담론은 물론 늘 존재했었다. 우리의 유교문화와는 다르게 읽혀야 하겠지만, 서구에서 봉건시대의 결혼 제도, 빅토리아 시대의 섹슈얼리티적 강박, 그리고 계몽기의 성해방 담론에 대한 사유는 현재 이 땅의 비혼 여성들에게까지 현실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도록 전유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유교문화의 미망은 전근대를 섹슈얼리티와 여성적 자아, 주체성에 대한 사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 근대적 성찰에 대한 이수자의 표현을 빌자면

1960년대 이후 추구한 경제 계획은 민족주의적 주체를 활용한 경제주의 근대 기획으로서 한국인들을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민족적 자아’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주의/진보주의/제국주의 담론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제 개발도상국의 산업 역군으로 활약했던 지금의 50,60대는 한국적 근대 기획이 만들어 낸 ‘무반성적 근대 주체 제1세대’(조혜정, 1998)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무반성적 근대 주체는 근대 주체가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발전 지상주의의 가장 선봉에서 계속 앞으로 내몰려 온 피해자적 근대 주체다. 왜냐하면 서구의 근대 주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요건이 자유와 자율, 그리고 주체적 결정권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제 1세대 근대 주체는 이러한 요건들의 상당 부분이 유보된 상태로 근대화해 포섭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러한 주체 형성의 중심에는 남성들이 위치해 있고 여성들이 그 주변부를 형성하거나 또는 아예 주체적 의식을 가질 상황에 처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수자, 2004: 20).

이후 1960-70년대를 관통하면서 여성은 근본적이지만 숨겨진 사회적 노동자본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와 교육을 책임지며 그 자신, 여성으로서의 많은 욕구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비가시화

된 사회의 노동 자원으로 활약하던 여성들은 결혼 제도에 진입해서도 여전히 노동 자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여성이 근대적 노동 자원으로 주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가정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며 그들에게 ‘일’을 짐 지웠지만,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노동력이 근대적 자본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잉여 자본’, ‘남는 손’으로 주변부를 맴돌 뿐이었다.³³⁾ 이후, 학생운동과 여러 군사적 혁명들을 거쳐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더욱 거센 세계화의 파도에 몸을 맡긴 시대적 상황들이, 발전 속도에 버금가는 여러 변수들을 도입하며 여성적 주체성과 여성적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성찰을 촉구했다.

후기 근대의 비혼 여성들이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의 성립은 두 여·남의 첫 만남에서부터 다른 여러 감정들과 매우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은 ‘첫 눈에 반함’을 동반하며, 이러한 매혹은 기든스(Anthony Giddens)에 따르면 “열정적 사랑의 성적이고 에로틱한 강박충동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기든스, 1996: 79). 18세기 이전, 사랑과 결혼이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했을 때, 결혼이란 상호 조건에 부합되는 혹은 가족과 가족 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일종의 타협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쳐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시대로 들어선 19세

33) 이미 여성학에서는 전후 근대 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산업화가 발화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어엿한 노동 자원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이 시대에 여성들의 노동력이 근대 노동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는 하나, 그것은 엄연히 가부장적 이성에 제도 하에서의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와 비하에 따른 자조적 시선일 것이다. 이에 앞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그 시대에 여성이 노동력을 가진 한 가정의 실질적 ‘가장’이었던 상황과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을 향한 보살핌의 윤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떤 희생들이 있었는지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그 ‘여성 가장’의 노동이 기실 가족의 ‘장남’이나 ‘아들’들의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과 근대적 여성 주체에 대한 사유와 맞물려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근대적 여성의 성찰성에 대한 더 자세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라. 조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서울: 또하나의 문화. 고갑희(1999). “여성주의적 주체생산을 위한 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성 이론』 통권 제1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김진송(1999).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소.

기 이후에 사랑은 ‘자아를 압도’하고 ‘몸과 마음이 이끄는’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어떤 구체적 제도로의 실험적 편입이었던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 한 가운데,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결혼 관계에 있어 경제적 가치 판단과는 좀 더 다른 감정적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섹슈얼리티, 권력, 몸, 성에 대한 가치들의 재평가로 귀결되었다. 특히나 19세기 이전에 부르주아 집단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사회에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로맨싱(romancing)’은 곧 구애와 동의어가 되었으며 ‘로맨스(연애소설/romance)’는 대중들의 손에 닿는 최초의 문학형식”(기든스, 1996: 86)이 되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상은 많은 부분, 가족 제도의 단절과 분리를 가져왔고 결혼 제도에 대한 변화로까지 확장되었다. 전 시대와는 다르게 구조화된 ‘가족’은 이를 유지할 토대로 부부의 정서적 유대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가정’은 일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환경이 되었다. 즉, 사회적인 환경과는 다르게 이 독립적인 환경에 기대하는 정서적 역할이 형성된 것이다.

가족이 정서적 유대와 친밀함을 강조하는 하나의 기본 단위로 개편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를 이루는 토대를 이뤘으며, 이에 따라 ‘가정 안에서도 공/사 영역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 졌다.’³⁴⁾ 또한 여성들은 곧 ‘모성의 발명(invention of motherhood)’(A. Dally, 1982; E. Badinter, 1981)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성의 지위와 자리에 관련되는 이 모든 현상은 밀접히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성찰을 요구하는 시대에 여성들은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낭만적 사랑, 혹은 자유로운 연애관계라는 당의가 입혀진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제도 안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로로 연애란 여·남의 사랑을 규정하는 지극히 개별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대칭

34) 다시 말해, 근대 이후, ‘가족’을 이루는 단위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면서 발생하게 된 눈에 띄는 변화를 말한다. 근대 이전에 결혼 제도가 갖는 목적성과 방향을 달리 하지만 이러한 소위 ‘핵가족’의 등장은 가부장적 이성에 제도 안에서의 여·남에 대한 성역할 구분이 명확히 도드라지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성은 이제 암묵적이고 규범적으로, ‘가정’ 안에서 공적인 영역(남편)에 대한 비가시화된 노동(감정노동도 포함하여)을 수행해야 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을 이루며, 개인과 문화/개인과 사회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연애란 사랑과 감정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연애, 사랑, 감정 등은 ‘말’로써 풀어 질 수 있었다.³⁵⁾ 감정의 자유로운 발화라는 측면에서 낭만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여성화된 사랑이며, 친밀성 영역 안의 문제이기도 하다. 낭만적 사랑의 특성에 대한 기든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것은 욕정이나 노골적인 섹슈얼리티(earthy sexuality)와는 양립불가능하다. 이는 단지 그것이 사랑의 대상을 이상화하기 때문만은 아니며(비록 이것이 그 일부이기는 하지만), 낭만적 사랑 자체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즉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는 성격을 띠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는, 단지 그가 딴 사람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 결여가 예전부터 인식되고 있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것일 수조차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여가 직접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낭만적 사랑은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다(기든스, 1996: 85-86).

가히 종교적 속성을 능가하는 열정적 사랑의 파괴적인 기능은 낭만적

35) 남근중심적 가부장제도 하에서 연애관계, 혹은 사랑이라는 ‘감정’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여성적인 특질로 간주되곤 한다. 그것은 이 사회와 문화의, 그리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전통들이 공모한 결과물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중심 기제가 바로 ‘말/언어’라는 사실이다. 로고스 중심적인 사고체계에서 감정과 여성성에 대한 배제는 여성들에게 일상이 되었다. 감정과 마음을 전하는 매개는 거의 예외 없이 ‘언어적 수단’이었는데, 이러한 말과 글은 남성들의 이성적 전유물이다. 사랑과 감정을 통해 여성들이 남성적 수단을 어떻게 여성적으로 차용하고 전유하는지에 관한 이러한 행위성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했던 것은 어쩌면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사고 때문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연애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이고도 근원적 문제들을 ‘말’로써 풀어내려 한다는 것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소통이 순탄치 않다는 사실을 여성들의 경험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사고 기체인 ‘언어’를 여성들과 나누려 들지 않는가. 이에 관한 여성주의적 사고들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엘프레드 엘리네크(1997). 『피아노 치는 여자』. 이병애 역., 문학동네. 줄리아 크리스테바(1997). 『포세시옹 소유라는 악마』. 김인환 역. 민음사. 뤼스 이리가라이(2000).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역. 동문선., 엘렌 식수(2004). 『메두사의 웃음』. 박혜영 역. 동문선

사랑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성질이다.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섹슈얼리티, 혹은 성적인 매혹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다. 기든스는 아울러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남성에게 대한 정복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적인 정복이 추가 되는 남성적 정복과는 다르며, 이러한 모티프 안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시 하는 남성의 닫힌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음으로써 결국에는 상대방 남성의 사랑과 관심을 얻게 되는 여성적 능동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기든스는 이를 “그녀의 사랑은 그녀에게 되돌아와 다시금 사랑받게 만들며, 타자의 무관심을 녹여버리고 적대를 헌신으로 바꾸어 놓는다”(기든스, 1996: 87)³⁶⁾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사랑을 쏟는 타자에 대한 감정으로 자신의 모자란 점을 메우려 한다는 이러한 전도된 논리는 기든스로 하여금 낭만적 사랑이 가지는 여성적 성향에 대한 완결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기든스는 열정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에 대해 이것을 현대성의 한 가지로 설명하며 그 구조적 성찰에 있어서도 탁월한 논리를 보여주었지만,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여성적 전유는 후기 근대의 비혼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지지받기는 힘들 듯 하다. 후기근대 시대의 여성들에게 섹슈얼리티의 사회·구조적 억압이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조건이다. 특히나 20-30대

36)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가지는 여성적 성향과 남성을 향한 정복자 모티프에 대한 여성주의적 전유를 폐하기 전에 비판의 가치를 놓지 말아야 하겠다. 글로벌 소비대중문화가 선호하는 이미지로 ‘나쁜 남자’ 신드롬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는 과거에도, 또 지금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이미지 너머에는 여성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나쁜 남자’에게 약하다는 여성성의 폄하를 조장하는 가부장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대상을 타자화 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에게 사랑을 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적 결여를 발견하고, 자아와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한 결여를 메우려는 사유는 매우 긍정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위성이다. 이렇게 발현되는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단순히 여성을 ‘잘 해주면 기어오르는’, 혹은 ‘애 닳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치 절하하고 폄훼하는 것은 여성을 또 다른 억압의 기제로 지배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든스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숙고하여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비혼 여성들이 가지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는 매우 구조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을 지나고 온 좋게 과학적 피임법을 마주한 세대가 아니다. 위 세대가 학생운동에 신념을 걸고 혁명을 부르짖는 것을 목도 했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틀 안에서의 근대적 사고와는 상반되게 끊임없이 가족과 부모, 사회로부터 순결을 지키라는 압력³⁷⁾을 받고 자라온 세대임과 동시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변하는 사고를 자신의 몸으로 체화(embodied)해 온 세대이기도하다. 이러한 현재의 비혼 여성들에게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은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든스의 논의대로 섹슈얼리티, 혹은 성적인 매혹을 배제한 감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후기 근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 앞에 최대한 정직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성들의 경험이 증거가 되고 있다.³⁸⁾

여성들이 경험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비록 사회적인 구성물로 엄연히 존재하며, 구조적 환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마냥 울고 웃지 않는다. 여성들은 사랑과 감정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시 점검하는 방법으로 ‘관계’에 대한 사고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37) 연구자가 학부시절을 보냈던 98년부터 2000년도 까지도 공공연히 캠퍼스 내에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도사들이 등장하곤 했다. 그들은 ‘여’학우들에게 순결과 정결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곤 했고, 이것은 비단 연구자가 속한 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다른 많은 비혼 여성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8) 이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물론,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혹은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서사도 포함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경험’이란 앞서 말한 관계적 자아가 지향하는 ‘경험’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주체성에 바탕을 둔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여 ‘경험’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와는 마냥 동떨어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상적 체의만을 하려 함도 아니다. 개별 주체로서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존중과 성찰이 토대가 되어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관념이 지금보다 폭넓게 사고된다면 근본적인 여성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믿음과 이해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연구자 개인의 고민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랑으로 치환되는 감정 노동

감정, 사랑, 연애, 결혼, 자녀양육 등에 관한 예리한 성찰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학자 백과 백-게른스하임은,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을 얼마간이나마 전통적인 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중요한 변화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대기가 전과는 달라졌고, 둘째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발전이 가속화돼 가사 노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 셋째로, 모성의 발견은 가부장제도 하에서 남성들을 위한 가장 편리한 발명품이었던 데 반해, “여성들을 전통적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있어 피임법과 합법적 낙태 허용이 지닌 중요성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백&백-게른스하임, 1999: 68). 넷째, 이혼율의 증가는 결혼제도에 대한 균열에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준다, 다섯째로 교육 기회의 평등화가 비혼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 하려는 구체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여성들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은 여성들의 개인적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동기와 자극이 될과 동시에 개별 자아로서 여성의 감정적 영역에 까지 침투하였다. 더 이상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역할에 그녀들의 삶을 걸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려 했다면, 후기 근대의 여성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 결혼으로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만족하려 했던 보살핌의 자리에서 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투쟁과 발전을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흔히 ‘남성적 영역’이라 일컬어지던 공적 영역에로의 진입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성찰과 발전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고, 여성들은 기꺼이 그에 따른 노력의 대가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성들이 남성적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 노동의 부재’이다.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많은 학자들은 사랑과 연애, 보살핌과 같은 감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이제는 양성 모두가 감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논의의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결국 결론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여성의 노력과 희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폄하하고 배제해 온 감정영역이 어째서 사회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지금도 온전히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인가. 여태껏 남성적 영역이 여성적 감정들을 배제해 왔으면서 왜 ‘공적영역’에 진입한 여성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감정노동을 바라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결국, 왜 여성에게는 가정과 일터, 그 안과 밖에서 항상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에 대한 가치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1970년대 미국에서 슈퍼우먼 콤플렉스(super-woman complex)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도 이미 그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비혼 여성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래로 이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다. 여성이 결혼과 일을 놓고 선택의 투쟁을 벌일 때, 이것은 결과에 대한 과정과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기제가 작동했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과만을 염두에 둔 투쟁을 말한다. 이 사회는 이제 가정과 일터를 오가며 부지런히 ‘너의 본분’을 행하라고 지시한다. 여성들이 이러한 감정 노동에서 한 쪽의 끈을 놓아 버리려고 하면, 가차 없이 야유를 퍼붓는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결혼을 거부했을 때, 혹은 보살핌의 윤리를 실행하려 들지 않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자. 여성의 나르시시즘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 문화에서 오히려

자신의 여성적 나르시시즘을 구현하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신비한 매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추앙받는다.

니체는 여성적 나르시시즘을 초월성과 자족성에 두었다. 여성주의자 임옥희는 이에 대해, “나르시시즘적인 여성의 자족성을 남성들은 한편으로 동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싫어한다. 그것은 오래 전에 포기했던 자기중심적인 만족을 이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 때문”(임옥희, 2003: 39)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나르시시즘 속에 사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족성과 초연함 속에서 남성을 선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선망하는 쪽은 남성이 되는 것이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원초적 자족성과 나르시시즘을 여성에게 발견하고 그 여성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인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되돌아 올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옥희의 이러한 분석은 여성의 나르시시즘을 타자지향적인 것이며 대상애적인 것으로 분석했던 프로이트와는 매우 상반된 견해이다. 이것은 곧, 여성에게 본성이라 규정되었던 이론들의 기저를 흔드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원초적 나르시시즘이 단순히 여성적 자기로 강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논의들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감정과 관계라는 것이 결국 이 사회가 구성한 구조물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남성문화가 그들의 제도와 사상을 유지하는 기반을 여성의 정서와 감정 노동에서 찾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즉, 다양한 관계들에서 오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관계와 감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과 영원한 사랑의 결합이라는 이상은 두 파트너 사이의 밀접한 감정적 결합으로부터 자라나며, 두 사람의 삶에 실체와 유의미성을 제공”(백&백-게른스하임, 1999: 99-100)한다.

다시 말해 이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대인관계가 가져 오는 안정성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별자들의 삶에 준거점이 되었던 가족과 결혼제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희석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열망들을 사랑 안에 쏟아 붓게 되었다. 여성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희망의 많은 부분을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쏟아 붓고 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 되는 사랑은 양성에게 같은 무게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데서 논쟁이 시작된다. 특히나 이 제도 안에서 여성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범주화하는 오류를 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여성의 사랑, 여성적 감정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보살핌의 윤리’가 자리하고 있다.

“심리학자 콜버그(L. Kohlberg)는 경험적인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성숙한 도덕적 추론은 항상 정의, 공정함, 권리라는 도덕 개념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을 때, 길리건은 콜버그의 주장을 자신의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실패한 이후에 도덕적 성숙에 대한 콜버그의 견해에 심각한 난점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무디-아담스, 2005: 364에서 재인용). 이어 길리건은 여성들이 도덕적 영역과 도덕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남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숙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목소리는 보살핌의 언어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그녀는 자아와 타자가 근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호퍼(A. Maihofer)는 길리건에게 있어 “도덕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은 결코 어느 한 성에게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마이호퍼, 2005: 88)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어떠한 도덕도 공/사 영역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러한 각 개념들에 대한 비환원성 때문에 각각의 도덕적 관점들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길리건의 주장에 힘을 신는다.

이와 관련하여 벤하비브는 도덕이 가지는 추상성, 그 추상적 자아가 결국 도덕의 영역을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며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의 문제들과 좋은 삶의 문제들 간의, 다시 말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간의 엄격한 구분에 이르게 된다”(벤하비브, 1986)고 말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여성의 경험과 이해관계는 도덕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고 주장한다. 결국 여성이 개인적인 영역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문화가 내재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적 도덕성과 도덕 영역의 분리·구축을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은 가치 판단의 실체가 이렇듯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제도 안에 촘촘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적 도덕성과 도덕적 영역 안에서 재단되고 판단되어져 왔다. 때문에 여성이 인식적인 주체로 그 도덕성을 심문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여성의 감정을 노동으로 치환하고 타자화 하는 가부장 제도의 편파성이었다.

여성이 도덕적 주체로 이 세계와 현상을 성찰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은 개별 자아로서의 주체성을 훼손당한 것과 동일하다. 하물며 여성적 영역이라 폄하되었던 사랑과 감정에 대한 담론들이 남근중심적 제도 하에서 어떻게 사고되었을지는 자명하다. 우리가 다시 여성의 사랑, 감정, 여성적 영역의 도덕성 등을 재고해 보자는 것은, 단순히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규정되었던 감정 노동에 대한 반동이나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문제를 그렇게 축소시킨다면, 여성성에 대한 반추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적 특질을 이상화하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일반 여성들의 삶은 누가, 어디서부터 다시 규정할 것인가. 이러한 작업은 개별 자아로서 여성들의 삶을 무(無)로 만들고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그 행위성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여성적 영역 안에 가두려

는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비판으로 읽혀야 할 것이다.

3.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연애관계’

현대인들은 모더니티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들과 이성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정’을 논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비혼 여성들은 이제는 너무나 쉽게 감정·사랑·연애에 대한 수많은 자기지침서(self-help manual)³⁹⁾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책들을 구매해 읽는 독자층이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감정 노동’ 영역 안의 전문가라고 후기 근대에 들어서야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여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랑, 연애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말해주는 증거인 셈이다.

남근중심적인 가부장적 이성애제도 하에서 공식이 되어버린 열등함을 차지해야 했던 여성이, 그 열등함 속에 하나였던 ‘감정’이 주목받는 시대에 왜 전문가로 진열의 선두를 차지하지 못하는가. 왜 여성들은 사랑과 연애와 같은 ‘감정 노동’이 주목받는 시대에 감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가.

후기 근대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기든스역시 현대 사회의 감정과 이와 얽힌 관계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고 구성되는 장이 바로 (가족, 연인, 아이, 친구를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현대성에 대한 논의를 섹슈얼리티와의 연결 문제로 확장시키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개인화에 대한 여러 갈등들이 결혼,

39)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시작으로 이른바 여·남 관계에 대한 자기지침서(self-help manual)들이 붓물 터지듯 히트의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여·남의 심리차이에 관해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듯하다. 이러한 자기지침서들은 여·남의 관계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의식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종의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과 기술을 소개한다. 이처럼 여·남의 성격과 심리적 ‘차이’에 주목한 책들이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가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수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캐롤 타브리스(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 역,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존 그레이(200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역, 친구미디어. 루이스&코플랜드(2003), 『실용연애전서 女·男』, 서현정 역, 만물상자.

자녀양육, 가족, 자기정체성 등과 관련한 역사적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사’ 영역을 분리해 구분지어 설명하고, 이러한 분리로 인해 여성이 (사적 영역 안에서) 친밀성 영역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재,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여성=감정의 혁명가’라는 가정은 그 동안 여성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주장해 온 ‘공적 영역=이성/사적 영역=감정’이라는 가설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공사 영역의 분리와 이성/감정의 체계적 분리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했던 감정과 사랑에 대해 전시대의 가치와는 다른 분석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가정이란 것은 그 동안 여성학이 싸우고 밝혀왔던 전통적인 이분법적 공/사구분 위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균열을 가져온다. 또한 그는 감정의 혁명가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시 이상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가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오히려 애드리엔 리치(Adrienne Rich)가 말하는 ‘위치의 정치학’이라는 그녀의 주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개념은 일상적인 여성들의 산 경험에 대한 사유와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의식적·실천적 실행이다. 또한 로지 브라이도티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진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의 새로운 문화적 재현과 가치들을 정교화 하는 작업은 여성을 단순히 ‘위기 관리자’, 위험에 노출된 현대성과 남성성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역할에만 국한시킬 뿐이라는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대성이 당면한 사랑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회학자가 백과 백-게른스하임이다. 이들은 슈미트바우어나 기든스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말한다. 도시화·산업화/현대성으로 인한 급변하는 사회상으로 인해 개인들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사랑과 친밀성 등과 같은 감정 영역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이들의 논리와는 다르

게 백과 백-게른스하임 부부는 개인의 '전통'에 대한 상실감과 자유와 선택이 증대된 현대 사회 환경을 연결한다. 끊임없이 존재의 안전을 위협해 오는 '위험 사회' 속에서 '사랑'은 새로운 신의 이름, 종교의 이름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세계, '위험 사회', 성별이 분리된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오히려 자신을 정박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로서 '사랑'을 '선택'한다(백·백-게른스하임, 1990). 그렇지만 백·백-게른스하임의 논의도 여성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가설 위에서 작동할 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근대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감정·사랑·친밀성 등 여성적 영역/역할이라 치부했었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담론 작업과 근본적인 성찰에 의미를 둘 뿐이다.

푸코에 의해 촉발된 섹슈얼리티의 발명(invention)은 “현대적 사회체도가 형성되고 굳어지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뚜렷한 과정 중 하나이다.”(기든스, 1996: 56) 푸코는 19세기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또는 비가시화되어 허용되었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19세기를 시작으로 모든 성들 중 특히 여성들을 억압하는 담론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하며 이것의 원인은 권력과 섹슈얼리티, 몸에 대한 근본적 속성이라고 보고 있다. 푸코의 표현에 따르면

이전에는 관용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노동력과 가족의 형태를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섹슈얼리티 유형에 규제적 역할이 주어지는 시기에 이르러 주목받고 또 위험한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권력과 성 및 쾌락의 관계가 분기되고 다양화되며, 신체를 측정하고 행동 양식에 침투하게 된 것은, 바로 주변적 섹슈얼리티의 고립, 강화, 그리고 고착화를 통해서이다(기든스, 1996: 57에서 재인용).

즉 19세기 이전에도 '사랑'과 '연애'라는 스타일은 항상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후 사랑과 연애가 갖는 관계맺음과 그 양상은 근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적 변화를 갖게 된다. 더 직접적으로는 소위 '현대성'에 대한

담론이 구체화되기 이전부터 발생한 가족 규모의 축소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피임’에 대한 다양한 생체적 실험들과 결과물들이 근대 후기의 사랑과 연애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물론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일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새로운 가족의 개편은 근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핵가족의 탄생에 지대한 공로를 한 것이다. 현대적 피임방법은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가족 규모의 개편과 맞물려 여성들에게 섹슈얼리티의 능란한 재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성은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음으로서 재생산 및 여성적 욕구라는 질문 앞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사회적 변화들은 당연히 그 수혜자인 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욕구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그녀들은 또한 개별자로서의 자유의지를 심문당하고 검열당하는 위치에도 놓이게 되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별 자아로서 행동하는 여성들의 행위성에 대한 합목적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논의의 선별성이나 과정, 논의 주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일방적인 공격을 받는데 그치곤 한다.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는, 여성들에게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존중을 강요하고 여성들이 그런 ‘선택’을 ‘왜’ 내리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을 배제한 채 틀 안에 가두어 둔다. 남근중심적인 시선들은 도처에 존재하며 여성의 존재론적 성찰을 저지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현상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상호행위를 결정하는 친족구조(kinship structure)뿐 아니라, 친족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 반대로 그 관계를 위반하게도 하는 가부장적인 성적 구조(patriarchal structures of sexuality)에 대해 사고할 필요성과 마주한다. 산업화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적 영역이라 구분 지었던 공적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여성들은 이미 성적 주체성(sexual identity)과 행위성에 대한 가부장적 개념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여성들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들의 존재를 성화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더불어 그들의 비 성적인 관심이나 업적을 부인하는 남성의 ‘성적인 응시(sexual gaze)’를 인식하고 있었다.”(Mann, 1994: 9)

여성의 성적욕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분법적인 여성 구분은 여성에 대한 여성의 거부,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성적욕망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관계는 잠재적인 남성의 성적 행위성과 사회적 행위성에 대한 관대한 여성적 인식의 기반위에 세워진 것이었다.”(Mann, 1994: 10)

여전히 가부장적인 이성에 제도 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욕망과 실제적 상황은 근대 자본주의의 정착과 여러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여성들에게 다른 많은 출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후기 근대의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이 간혀만 지내던 가족, 지역 등의 고리에서 탈피해 좀 더 개별자로서의 여성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여성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적 영향력과 마주한다. 여성들은 좁은 공간에서 가족과 주변의 몇몇 사람, 혹은 구해 볼 수 있었던 소수의 책들에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혁명기를 맞이한 새로운 권력인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은 근래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감정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 나타난 감정과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소비가 현재적 삶의 지표로 또렷이 실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욕망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사회관계 안의 감정적 소비문화의 논리는 연애관계 또는 세분화되어 각 단계를 이뤄가는 연애사건을 연속적인 것으로 만든다.⁴⁰⁾ 후기 근대의 여성들은 마냥 앉아서 자신의

40)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91)는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는 물질적 풍요의 향유나 재화의 사용

운명의 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아니다. 그녀들은 이제 관계와 만남을, 경험과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대에겐 연애란, 경험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우성’으로 여긴다. 되레 나이가 차도 연애경험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세대이기도 한 것이다. 연애와 사랑이라는 감정/정서를 소비하는 이러한 매스미디어 세대인 20-30대 비혼 여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글로벌 소비대중 문화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집약된 자본과 풍부한 기술력의 현대 사회의 수혜자이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정보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경제력과 맞물려 여성들에게 새로운 권력의 맛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로벌 소비대중 문화는 이제 인터넷과 케이블, 위성통신 등으로 지구촌 구석 구석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여성들은 보다 많은 시간과 힘(정보)을 거머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광범위한 기술적 문화들은 지금 내가 현재하는 것 너머의 또 다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제공한다. 비혼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애에 관한 글로벌 소비대중 문화로는 서구의 영화와 시트콤을 들 수 있다.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프렌즈(Friends)>,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그레이 아나토미(Grey’s anatomy)> 같은 미국의 시트콤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⁴¹⁾ 이들은 주로 여·남의 관계와 사랑, 성, 그리고 직업적(career) 성취에

가치에 따른 합목적적 소비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소비문화에서 소비하고 싶다는 욕구와 실천은 생산력의 조직적인 확대가 감정, 충동, 욕구 등과 같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생산력으로 남김없이 통합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 현상이다. 이제 소비 욕구는 개인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남들과 차별화하려는 소비 사회의 논리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사물을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한다. 현재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험으로의 연애, 연애의 사건화는 연애관계에서의 정서적 욕구와 소비를 통합시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글로벌 매스미디어에 대한 영향성에 관한 논의는 비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질처럼 보이게도 했다. 인터뷰를 실행했던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서구의 시트콤과 영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우선 그녀들이 처한 실상과는 다르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시작해,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향성에 관한 ‘실제적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했다. 또한 아직도 가족과 그에 얽힌 사랑에만 매달리는 국내의 문화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고민하고 사유하며, 행동하는 사랑, 성, 연애, 일 등에 관한 다양한 삶의

대한 고민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테마인 듯하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 성 혁명과 성 전쟁(sex war) 이후 겪게 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로운 경험과 의식의 확대는 여성들의 자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경험에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남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변화와 영향은 미디어가 생성되고 막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과급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이제 전지구적인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효과를 그 어느 세대보다 더 특특히 ‘부릴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 여·남의 관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전 세대와는 다르게 가질 수 있게 된 이들은, “결혼 전에 연애는 할 수 있되 몸은 지켜야 한다는, ‘옆에 있는’ 부모의 얘기보다 이러한 글로벌 미디어의 연애 이미지를 자신의 욕망을 훨씬 더 잘 설명하는 언어로 채택한다.”(김신현경, 2006: 59)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듯, 여성은 자신의 사랑, 성, 일에 대해 ‘쿨’하게 또 때로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 맺은 남성들을 다루는 여성에 대한 동경과,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 속의 여성상에 대한 자기 몰입, 현실에서는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고민에 대한 자기 성찰을 현대의 비혼 여성들은 미디어의 여성상에서 바라보고 찾는다. 여성들은 나를 ‘이끌어’ 줄 지도자(mentor)를 찾는 대신 내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를 미디어 안에서 찾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전방위적인 경험적 공유는 또래 집단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여성들의 실제적 연애관계는 당연히 전 시대와는 드러나는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아주 내밀한 감정인 사랑과 연애경험은, 구조적으로

모습들을 접하고자 했던 것이 서구의 소비대중문화에 우리의 비혼 여성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제도가 요구하는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경험적 성찰을 무의식적으로 되비추는 기제가 바로 연애사건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타자화 되고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여성적 주체성, 행위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철학적으로 이 세계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적인 모든 영역들에 대한 비판과 성찰, 그리고 좀 더 나은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서 수없이 많은 딜레마와 어려움을 겪었을 여성들에게 근본적인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도하게 했다.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성들이 고심하는 그 지점에 관계와 연애, 사랑, 감정이 항상 함께 했다. 여성 해방의 물결과 사회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다양한 주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많은 비혼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과 여성적 도덕성과 성찰성을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곧 이 제도와 사회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이 남성들에게 상호책임자로서 강력히 요청하는 도전과 비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여성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제도에 대한 재고, 브라이도티가 제안하는 유목적 주체와 성차의 문제, 버틀러와 만이 제안하는 행위성 등의 개념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보다 효율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연애사건, 사랑과 경험들이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에서 어떠한 모순과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고, 여성의 자서전적 이야기로 구성되는 행위성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IV. 경험을 감정으로 말하기

1. 로맨스 문화와 성역할

1) 로맨스와 판타지에 대한 순환 고리⁴²⁾

낭만적 사랑⁴³⁾으로부터 기인하는 로맨스 문화는 사랑이 갖는 사회제도적인 의미화와는 좀 다른 지점에 위치한다. 그것은 사랑, 특히 낭만적 사랑을 구성하는 아주 매혹적인 특질 가운데 하나임과 동시에 많은 부분 남성들로 하여금 ‘잘못 읽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로맨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애사건(love affair)’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개인화되어, 더 넓은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거점도 가지지 않는 어떤 개인적 서사 안에 자아와 타자를 삽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기든스, 1996: 78).

로맨스 문화의 핵심에는 ‘로맨스 문학’이 존재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가치가 부르주아에서 일반 대중문화로 확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로맨스 문학은 낭만적 사랑이 대중문화로 자리매김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3세기경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하던 서간체의 형식에서 점차로 발전하여 문학의 한 장르로까지 자리 잡은 이러한 로맨스 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여성의 역할이다. 전형화 된 여성 및 남성 주인공은 매우 성별적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으며, 내용 역시나 비슷한 서사구조

42) 이 장에서 살펴보게 될 로맨스와 판타지에 대한 여성적 인식은, 여성들이 연애관계나 연애사건에 진입 할 때 발생하여 관계에 원활히 집중할 수 있는 역할로 작용하기도 하고, 가부장제 문화에서 사회 제도적으로 (연애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아우르며) 모든 여성들에게 주입시킨 사랑에 대한 판타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로맨스와 판타지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인과관계의 시작과 끝을 확인 할 수 없다. 로맨스와 판타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연구자는 ‘로맨스’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개념에 차이를 두고 사용할 것이다. ‘로맨스’는 반드시 판타지를 동반하며 낭만적 사랑에 열정적 사랑을 더한 개념이다. 이는 기든스가 말한 합류적 사랑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해 ‘낭만적 사랑’은 여성화된 사랑으로서 이 낭만적 사랑에 현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성을 엮은 개념이 뒤에 나올 ‘낭만적 사랑의 현재적 재현’이다. 연구자는 상황과 맥락에 맞게 용어를 구분해 사용할 것이다.

를 띤다. 여성들은 문학에 묘사된 여성 주인공을 이상화하기도 하며, 때론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감정 몰입을 하기도 한다. 로맨스 문학이 발화하고 한창 꽃을 피웠던 13세기부터 17세기를 거쳐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모습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근대로 거슬러 올수록 좀 더 비틀어진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로맨스 문학에서 극대화된 여성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실질적인 성역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파급력을 떠올려 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사회적 만남의 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된 후기 근대의 여성들도 미디어가 가지는 텍스트성과 함께 만남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 수단으로 글로벌 소비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지지하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에 관한 수많은 연구물로도 뒷받침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대의 비혼 여성들이 미디어 속 여성상을 하나의 텍스트⁴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 시대의 여성상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 하고 있다 하겠다.

그냥 느낌인 거 같아. 뭐 말로는 내가 [파트너를 고를 때] 그냥, 키 커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느낌이 오는 거는 그런 거랑 되게 다른 거 같아. 아...그냥.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잖아. (편안하고 이런 것들?) 아니, 설레는 거. 처음에는 편안하지 않지. 그런데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거를 원해. 마냥 편하고 그런 사이는 별로...편안한 것

44) 이에 관한 내용은 여성들의 글로벌 소비대중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며 앞 장에서 잠시 다루었다. 이는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까운 부모와 핏줄로 형성된 가족, 혹은 또래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영역을 확장하여 대중문화와의 상호교환을 통해 소비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들을 새로운 권력층으로 떠오르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미 그 전부터 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소비주체로 우뚝 서 있었다. 또한 비혼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미디어 속의 여성상이 항상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동반하는가라는 의문과 자본주의 시대에 여성을 단지 소비주체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에 대한 성찰의 날을 항상 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

도 좋지.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만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려면 그것도 필요하겠지...그런데 나는 누구 만나고 그럴 때 일단 설레임? 그거를 가장 많이 봐. (정선영, 30세)

여성들은 파트너를 살펴볼 때 외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만을 실행 한다기보다는, ‘느낌이 좋은’, 혹은 ‘떨리고 설레는’ 감정을 오히려 더 큰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이 연애의 대상으로서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항상 두 가지 교차점이 엇갈리게 마련이다. 여성들은 이것을 두고 흔히, ‘내적/외적인 기준’ 또는 ‘현실적/감정적인 기준’ 이라고 불리는 척도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선영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애 사건에 있어 여성들은 스스로가 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도 여기는 척도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설사 그것이 여성 자신의 자아, 몸,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의 변수를 지니고 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아주 내밀하고 개별적인 기준들은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로맨스적 판타지에 의해 많은 부분 작동된다. 이러한 판타지는 낭만적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별자의 인식과 사고가 기체가 되어 구성되는 여성의 로맨스와 판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하겠다. 즉, 여성이 구조화 하고 있는 인식적인 개별자의 로맨스와 판타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며, 실제로 관계와 사건 안에 있는 여성들이 파트너를 대상으로 감정에 대한 상호교환·교섭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다.

음, 섹스 앤 시티를 볼 때. 그 왜, 미스터 빅이 캐리말구 다른 여자랑 결혼해 버리잖아. (중략) 그 전까지 캐리가 얼마나 괴로워 했냐구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스터 빅이랑 잠깐 얘기를 하고 난 뒤 돌면서, ‘내가 재를 길들이지 못한 게 아니다. 재가 나를 길들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후련했잖아요. (중략) 암튼, 요즘은 다른 것도 많이 보는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다들 끝내주는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이쁘기까지 해? 짜증나요. 현실감 없어. (그럼 왜 봐요?) 그거야 뭐 어떤 대리만족?

그런 걸까...암튼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자리 잡아야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솔직히 거기 나오는 애들이 좀 잘 꾸미고 나오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눈요기 하면서...뭐 대리만족인 거죠.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개네들이 또 만날 천날 사랑 때문에 울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하하) 나 같으면 그 정도 커리어에 연봉이면 이 남자 저 남자 슬슬 연애나 할 거 같은데. 그런데 암튼 뭐, 그런 연애담? 그런 거 보면서 에휴, 어딜 가나 다 똑같구나. 그런 심리적 위로랄까...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윤지호, 30세)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외부적 상황에 대해 개별자들이 받는 영향력은 여성들의 실제적 삶과 감정 위로 시대의 방향성을 포겐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일방향적인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미디어를 텍스트로서 수용, 지지, 비판의 장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와 여성들 간의 상호교환적 등식은 그들의 삶과 인식론적 사유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다 주기도 한다. 즉 과거에는 문학 장르로 존재했던 여성들의 로맨스와 판타지가 후기 근대에 들어서, 이에 대해 구성되는 실체는 많은 부분이 미디어에 의해 구조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윤지호의 말처럼, 여성들은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를 이상화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렇게 그려지는 여성들의 삶과 경험에 심리적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렇지만, 앞서 윤지호의 이야기처럼 여성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심리적 위로’를 받는 여성캐릭터라 할지라도 미디어의 허구적 이미지를 간파한 여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을 취하는 영민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들을 단순히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자의 역할로서만 고정시켜 단순화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여성학은 이러한 여성 개별자들의 필터링 과정에서, 강한 여성적 행위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진화와 여성들의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은 이전 세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맨스와 판타지에 대한 사고보다 더 직접적

이고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자아와 행위성, 그리고 관계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글로벌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의 삶과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2) 연애의 여성화⁴⁵⁾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연애, 사랑과 같은 감정노동의 영역은 ‘핫 트렌드’이다.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애와 사랑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작동한다. 현재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연애와 사랑에 가지고 있는 환상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낭만적 사랑이라는 과거의 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그 어느 것에도 쉽게 개별자의 자아를 투사할 수 없게 된 이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 작용한다. 즉, 연애와 사랑이 결혼으로 연결되는 명확했던 경계가 점차 흐려지면서 연애 사건과 사랑의 감정에 더 많은 것을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낭만적 사랑은 여성화된 사랑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 비혼 여성들의 사랑과 연애관계에서도 여성화된 양상을 보인다. 분명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들은 연애관계 안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지만, ‘연애’에 기대하는 가치

45) 이것은 사랑, 친밀성, 의존성 등과 같은 감정영역에 대한 여성적 역할의 기대가 다른 아닌 ‘연애사건’과 ‘연애관계’ 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연구자의 생각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사고는 단일하게 사고해서 낭만적 사랑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낭만적 사랑이 갖는 속성은 여성화된 사랑이라고 이 사회제도에서 구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론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여성의 역할/여성적 영역에 대한 사고는 변화했지만, 감정노동 안의 사랑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아직도 공적 영역에 대한 남성화, 사적 영역에 대한 여성화라는 이분법이 이 사회제도적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대한 여성의 일임이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남성뿐만이 아니라 자기 발전 의지가 강한 이 시대의 비혼 여성들도 제도와 사회 안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감정노동에 대한 갈망을 연애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구현해 줄 것을 바란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갈망에 대한 많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짐 지운다는 점이다.

는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동등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관계’ 그 자체가 여성적 역할을 수행해 줄 거라는 기대와 바람이다. 또한 여전히 여성은 관계 안에서 여성다운 것을 자의와 타의에 의해 스스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이 사회제도가 설정한 연출에 순종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많은 비혼 여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기대에 대한 가치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사고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그러한 이중적인 기대에 싸우기도 해왔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도 해왔지만, 이러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자신의 ‘여성성’⁴⁶⁾을 가지고 관계와 감정에 교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남자를 만날 때...어지간한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물론, 그 관계가, 그러니까 연애가 주는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 연애에 걸고 있는 어떤 좋은..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해야 하나...아무튼 그런 거야.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지.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뭐랄까...사소한 거는 대부분 맞춰주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뭐 일 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서로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거나, 그런 것도 웬만하면 그냥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게 뭐 크게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뭐 해가 된다거나 쥐약이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뭐 대개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치명적인 거를 막 건드린다거나, 그러면 인제....(박혜옥, 28세)

46)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성성’은 물론, 이 사회제도가 기존에 여성에게 부여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연구자는 여기에다 후기 근대의 여성들은 오히려 전통적으로 ‘여성성’이 가지는 의미에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안에서 구사할 수 있게 된 관계와 만남의 기술로서 ‘의식화한 여성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남성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이루었을 때, 혹은 여전이 사적인 영역 안에 머문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그 많은 충돌과 혼란, 갈등의 와중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던, 남성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고 높은 가치라 장려하는, 여성적인 특질에 관한 발견이었다. 연구자는 여성주의 내에서 이러한 여성적 특질을 내면화한 여성에 대한 여러 비판과 지지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여성적 특질을 의식화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식과 행위성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계층화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 남자가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내가 해주는 부분도 있어. 나, 전에 막 아팠을 때도 내가 다 토하고 그랬거든. 그 때도 뭐 자기가 다 죽 만들어 주고 그랬거든. 또 그런 섬세한 부분도 있어. 그리고 또 이 오빠는 어떻게 보면 좀 여성적이야. 그렇다고 뭐 막 그런 거를..남자다운 역할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 이 오빠는 좀 더 여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이 오빠 자체도 생각이, 남자는 꼭 뭐 이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 안하는 거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관계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아닌 거도 있지, 생각하고 이러는 같아. 생각 자체가. (서은영, 27세)

연애 ‘관계’에 있어 파트너에게 많은 부분 자신을 맞춰가려고 한다는 박혜옥의 경우, 그럼에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경계를 침범 당했을 때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혜옥은 ‘사소한 것은 대부분 내가 맞춰 주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치명적인 것을 건드렸을 때’는 의사를 분명히 함을 전하고 있다. 즉, 연애관계와 사건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확고히 존재하지만 그와 맞물려 관계와 사건 안에서의 개별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반면 서은영은 관계 안에서 감정과 역할의 상호교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연애관계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그와 상반되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기대하는 남성적 역할에 대한 영역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관계 안에서 그런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강요와 억압은 행해지지 않으며, 이 부분은 파트너와 교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연애가 가지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다. 여성들은 연애사건에 이러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이 점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남성들에게도 그 강조점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여·남이 연애관계 혹은 연애사건에 기대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어. 음...뭐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게 뭐. 나 개인한테 있어서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까지 다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있어. (중략) 그냥 서로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관계 안에서?) 그렇지. 일단 만나면 편안해야 되는 거고. 그 지향이나 이런 게 맞으면 좋을 거 같아. 서로가 이렇게 지향점이 맞으면 더 좋고. 그게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관계.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편안함이지, 사실. 심리적인 편안함이고. 지향점을 얘기 한 것도, 그게 이렇게 막상 다르더라도, 그 다른 걸로 인해서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보충해면서 갈 수 있는. 다 막상 이렇게 다르기만 하면 편하지가 않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편안할 수 있고,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재밌고 편안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그...지속적인 연애가 된다거나 결혼으로까지 이어진다거나 한다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아. (박혜옥, 28세)

일단 내가 편해야 해요. 일단 내가 편해야지 그 관계가 지속 되는 거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때는 막 이렇게 좋았다가도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서 부딪히고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그런 거를 푸는 방식에서나 이럴 때...다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서로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이러면....힘든 부분이 있죠. (윤지호, 30세)

여성들이 연애에 대해 사고할 때 상위 가치로 여기는 것은 ‘친밀함’, ‘편안함’과 같은 감정적 기대였다. 이러한 감정적 기대는 사회제도적으로 여성적 영역과 등치되는 공식이 되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성은 관계 안에서 본인의 역할 수행을 떠나 파트너에게 이러한 여성적 영역 안의 가치와 역할들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애관계를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 이상의, 파트너와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상적인 행위로서 작용하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많은 부분, 여성들이 가지는 서로 간의 다른 가치에 대한 차이를 불러 오기도 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상호교환을 시도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는 듯 보인다. 서로가 사랑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교류를 이야기/말이라는 매개로 소통의 한 방향을 늘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많은 여성들이 그녀들의 파트너에게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류에 대한 판타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내 거만 고집하기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어. 그냥 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뭐. 애에 대해 걱정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그냥 ‘아,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거 같아. 그냥 좀 느긋해...편해진 거 같아. 그런 관계들이...난 서로 믿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거? (불안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거지. 왜, 연애초반에 좀 불안해하잖아. 그 사람이 뭐 정말 나를 좋아할까, 이런 거.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나에 대해서 얘기 하고, 뭐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냥 공유하는 거? 같이 즐겁게 있는 거. 불편하지 않고. (정선영, 30세)

정선영의 말처럼 여성들은 각기, 이상적인 연애관계에 대한 나름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계에 진입하기 전, 혹은 연애사건을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관계에 대한 판타지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바로 연애관계 안에서 이러한 낭만적 판타지⁴⁷⁾가 얼마든지 변형되고 타협되며 절충되어져야 하는 감정인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여성적 행위성이 갖는 힘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여성들은 자신이 이상화하는 연애와 사랑에 대한 가치를 계속 고집하고만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과 자아를 온전히

47) 현재, 우리 여성들이 연애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낭만적 판타지는 많은 부분 미디어의 영향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낭만적 판타지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을 설득하고 유인하는 아주 좋은 미끼가 됨을 가부장제도의 남성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낭만적 판타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로맨스와 판타지에 대한 순환 고리’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키는 것이 자기 욕구의 가장 큰 실현이라는 사실을 여성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애편계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일지라도, 여성들이 연애와 사랑 등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을 사회제도적으로 연애편계와 유사한 관계들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의 비혼 여성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연애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춰진 시대에 살고 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편계/연애사건에 대한 낭만적 환상은 연애편계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에 윤희유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여성적 역할(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이든 긍정적인 역할이든 간)에 대한 확실한 의식과 새롭게 변화하는 여성상에 대한 사고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은 바로 후기 근대에서 ‘연애’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특성일 것이다.

이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연애, 혹은 연애편계 자체에 대한 여성적 역할의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에 대한 여성화는 분명 이 가부장적 이성애 체도하에서 여성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긍정적 인식을 불러오지만 일면, 여성들에게는 다시금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양성 간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3) ‘낭만적 사랑’의 현재적 재현⁴⁸⁾

48) 앞서 II장에서 살펴본듯이 연구자는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을 분리적 개념으로 사용한 기든스의 논의와는 명확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후기 근대의 낭만적 사랑이란 이제 여성들에게 열정적 사랑을 배제한 감정이라는 설득은 논리가 빈약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비혼 여성들은 이제 관계와 감정 안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사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공감하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몸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전 시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낭만적 환상을 등에 업은 것임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통적인 낭만적 사랑에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발현되는 열정적 사랑이 더해진 의미로 ‘낭만적 사랑의 현재적 재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이는 물론 모든 연애편계가 낭만적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비혼 여성들이 사랑에 기초한 연애관계에 진입할 때, 그것은 많은 부분 여성들이 의미화 하는 방식의 낭만적 사랑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관계 안에서 여성들이 낭만적 사랑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개념화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그대로 대물림 하여 그 안에 달라진 시대상을 첨가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고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기든스 식으로 말하자면, 현대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에, 열정적 사랑을 교집합 하여 현재적인 ‘낭만적 사랑’을 완성한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되는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녀들은 주변의 상황과 가치에 전적으로 기대어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정직하게 내비치고 있다. ‘낭만적 사랑의 현대적 재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시점과 사랑의 낭만성이 발휘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낭만적 사랑은 로맨스와 맥을 함께 하며 본격적인 연애로 진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난 애밖에 없거든. 연애는 오직 이 사람하고만 했었고, 처음 사랑도 이 사람이고. 흔들린 적은 뭐..있었지.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어. 나한테 뭐 좋다고 대시한 사람들이 없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때 막 솔직히, 나는 애가 내 인생에서, 애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행복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았지..난 개한테 내 모습 백프로 다 보여줘. 엄마하고는 달라.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 해. 나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어. 나는 엄마보다도 성주가 먼저라고. 그거는 다 알아. 어쩔 수 없어. 엄마도 다 알아. (중략)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거 같긴 한데, 애를 만나는

단지 여성들이 연애관계에 놓여 있든, 종료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든, 혹은 연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 그 자체로 존재하며, 이는 관계와 사랑, 감정, 연애에 있어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해 둔 ‘낭만적 사랑의 현재적 재현’을 말하고 있음을 밝힌다.

거 자체가 행복해. 그런데 요즘은 짜증도 좀 나. 끝 보기 싫은 짓을 좀 하니까. 그런데 뭐 그냥 그 자체가 귀엽고 좋아. (이혜규, 28세)

글쎄..나는 좀 약간, 공주병인 거 같아. 약간 더 좀 남자가 더 리드하고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걸 바라는 거 같아. (중략) 공주병은 아닌가? 어쨌든 난 좀 남자가 리드를 해야 할 것 같아. 뭐, 프리포즈도 남자가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데이트를 해도 좀 먼저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냥 좀 알아서 해 줬으면 싶은 거야. 그게 뭐, 내가 이 오빠한테 대단히 남자다운 뭐..그런 걸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좀 편하고 싶어. 뭐 오빠를 만나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솔직하게는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역시 공주병인가? (하하) (서은영, 27세)

관계 안에서 파트너에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기대와 가치들은 여성들마다 그 기준이 개별화되어 있다. 낭만적 사랑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들, 즉 사랑과 연애관계에 이제 막 진입한, 혹은 연애관계의 시간성과는 관계없이 낭만적 사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를 통한 정서적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그것은 역시나 개별자들의 상이한 기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혜규의 경우 그것은 ‘결혼’이라는 미래에 대한 설계이고, 서은영의 경우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이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가치실현적인 이상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여성들이 낭만적 사랑 안에서 관계에 사랑에 대해 환상만을 가지고 있음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감정적 교류 안에 ‘우리’ 관계에 대한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려 끊임 없이 사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글쎄.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을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덜어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내 거를 너무 포기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런 거는 나한테 안 좋을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관계가 위태로워 질 거야. 나는 그렇게 많이 덜어내고, 줘야 하고, 포기하고, 그런 거 잘 못해. 자신 없어. (중략) 난 한 마디로

좀 피곤한 연애를 하고 싶어. 내가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런 느낌? 서로 막 피곤하게 굴더라도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판타지지. 그러니까, 당장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그리고 나한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랄까...아니, 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sexual한 것도 되게 중요해. 나를 sexually attract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암튼 좀 attractive해야 돼. 그런데 나는 이런 뭐...결혼을 하는 건 지금 잘 모르겠고, 그냥 연애나 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필요해. 그런 거 있잖아. 감정이란 거. 같이 감정을 이렇게 주고받고, 같이 감정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사랑을 하고 싶구나.) 어, 맞아 그거야. 그럼 사람이 필요해. (김수진, 27세)

김수진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구조적 체계가 잡혀있다. 김수진이 말하는 ‘sexually attract’한 파트너와의 ‘피곤한 연애’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낭만적 사랑의 실재이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함께 나눌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으며, 자신과 ‘감정 씨름’을 할 수 있는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수진에게 있어 연애 공간은 자신의 감정을 생생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 욕구의 분출 통로이자,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확고한 가치를 의식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행복감?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개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속상한데, 그건 내가 개를 나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거 같아. 동일시? 뭐 그런...개도 그럴 거야 아마. (최정은, 28)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개만큼 나를 백 프로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나는. 사실 뭐 그 책이 그렇게 잘 써진 책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된 게, 내가 만약에 지금 애랑 헤어졌어. 그러면 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는 애 그늘에서 못 벗어날 거고, 헤어졌더라도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거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거든. 개만큼 내 모든 걸,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 같아.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과거의 개한테 매달리고 있고 과거의 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참을 수 있는 거고, 미래의 개가 멋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사귀고 있어. (이혜규, 28세)

최정은과 이혜규가 경험하는 사랑은 상당히 관념적이면서 한편으론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연애사건 안에서 ‘관념적 정서’를 체험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고 실체가 없어 보이는 정서를 관계 안에서 ‘체험’함으로써 이 정서적인 감정은 ‘실체’가 된다. 관계 안에서 최정은은 ‘불완전한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꼈고 이는 파트너를 ‘나로 생각하는’ 동일시로 나타났다. 이혜규는 ‘내 모든 걸,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 같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고 말한다. 최정은과 이혜규에게 ‘실체가 없는’ 감정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관계 안에서의 사건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는 여성들이 관계 안에서 파트너에 대한 의존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들어내려는 내재적인 감정과 조우할 때 당황하지 않고 감정에 솔직 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개별적이고도 상이한 여성들의 자기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랑이 가지는 낭만성과 판타지라는 속성은 어쩌면 한 데 묶일 수도, 정의화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성들은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분명, 여성적인

전유를 통해 의미화하고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여성성은 그녀들이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와 만나 서로 충돌하지 않고 관계를 보다 윤택하게 이끌어 가는 힘이 되고 있다.

2. 자연발생적인/구성된 감정으로서의 사랑⁴⁹⁾

지금까지 여성들이 연애와 낭만적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연애관계와 연애사건을 바탕으로 어떻게 여성적인 인식 안에서 구조화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애관계와 사랑의 낭만성의 상호연계성과 여성들은 이러한 감정적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성을 구현하지에 대한 사유는 그녀들이 경험하는 연애사건과 사랑, 친밀성, 편안함 등의 감정 구조 안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사고하는 연애와 사랑과 같은 감정 구조는 어떠한 기제로 형성되는가. 여성들은 이러한 감정이 발생하는 시점을 어떻게 감지하고 구분하는가. 자연적으로도 혹은 구조화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감정 구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 시대 비혼 여성들이 연애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구조의 기원을 찾아보도록 하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누구랑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좋고 뭐, 이래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을 같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우리, 내가 혼자 떨어졌을 때, 가족이란 거 말고. 핏줄로 연결된 가족을 제외 한 나머지. 다른 사람, 누가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그거가 필요해서 연애를 하는 거지 뭐...그런데 사실, 친구들

49) 20-30대 비혼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자는 사랑과 연애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근본적 성찰을 시도 하였다. 즉, 여성들에게 사랑, 혹은 연애란 감정은 어떤 인식론적 차이를 가지며, 이러한 감정들이 발산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여성들은 사랑이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보는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감정이라고 보는가. 또 이러한 감정들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연구자는 이를 통해 '되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 감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자 한다.

도 그 공간은 채워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섹슈얼한 것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과는 다른, 다른 가족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애나 뭐 그런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혼자서 다 감당이 된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중략) 그렇지, 나는 연애를... 쓸데없이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지금 당장에 같이 있고, 좋고, 이런 걸로는 연애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조미주, 28세)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그 운대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시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이나 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사이⁵⁰⁾에 들어가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나서는 막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그럼 [바뀌는 부분들이] 서로 좋은 방향이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만나서 뭐 성격이 안 좋았던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어두웠던 사람이 좀 밝아지고, 그런 거는 좋잖아요. (임정완, 25세)

연애관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라고 사고하는 많은 여성들은 그것의 ‘필요’, 즉 연애의 실제적인 합목적성에 집중한다. 이는, 그러한 사고를 하는 여성들의 감정이 단순히 낭만적 사랑이나 낭만적 판타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혹은 자연발생적인 감정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조미주는 자신과 함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핏줄로 연결된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제시를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섹슈얼한’ 문제나 ‘금전적인’ 것, ‘가족을 만드는’ 문제 등에 있어, 만약 이 모든 것이

50) 현재 우리 시대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소비대중문화의 한 지류라고도 볼 수 있는 인터넷 문화에서 분명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니개인홈피/싸이www.psyworld.com’이다. 여성들은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실한 여성적 재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여성들은 인터넷 안에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그간, 남성적 공간이라 여겨졌던 온라인상에 여성들만의 소통방식으로 ‘사이버 인맥’을 만들며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즐기고 있다.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여성들만의 소통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니홈피’의 바람은 ‘블로그(blog)’ 문화로까지 확장되어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 가상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자는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가 다양한 가지로 뻗어 나갈 수 있음을 안다. 또한 ‘온라인 안에서의 여성적 재현’이 가지는 함정이 분명히 존재함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혼자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연애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임정완은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운’이나 ‘시기’가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서로가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만남을 가져오는 관계적 요인으로 ‘정말 좋아한다면 바뀐다’는 매우 개별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미주에게 있어 사랑과 연애와 같은 감정은 단지 ‘필요’에 의해서이다. 그녀는 언젠가는 ‘가족’을 만들고 살길 바라며, 현실적인 생활을 위해서 ‘금전적인’ 가치가 갖는 의미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핏줄을 나눈 가족’이라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지극히 내밀한 개별자의 고민이다. 조미주는 사회제도적으로 구성되는 가족을 이루며 사는 삶과 자본주의 문화 안에서의 삶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한다. 낭만적 사랑과 판타지에 대한 접근이 아닌, 본인이 구조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그녀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사유하는 주체적 행위를 실행한다.

반면 임정완은 파트너로 인해 관계와 감정이 보다 더 내밀해진 경험과 스스로의 주체성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경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임정완이 마주했던 이 실제적인 경험들은 그녀로 하여금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라는 인식을 서게 했다. ‘나’와는 가능하지 않았던 관계와 감정의 목마름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나서는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녀는 사랑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되었다. 임정완에게 사랑은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감정이며,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운’) 찾을 수 있는(‘시기’) 어떤 것이다.

전에 만났던 오빠 얘기를 할게. 사실 얘기할 것도 없지, 딱 한 번 연애 했는데. 뭐 너도 어느 정도 알다시피, 내가 사실 개를 침 만나고 와서는 되게 민숭민숭 했잖아. 소개팅 하고 온 날. 그 날은 정말 그랬는데. 바로 에프터가 와서는 뭐 할 일도 없고, 학교에 있기는 따분하고 해서 그 다

음 날인가..? 또 만났어. 뭐 사실 두 번째 이렇게 얼굴 딱 봤을 때도 뭐. 그냥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만났거든. (중략) 그러고 나서...그랬는데 그게 기분이 좋았달까, 느낌이 좋았달까. 전에 봤을 때랑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 (중략) 뭐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의 사귀는 그런 분위기였지. 그런데 개 전에 나는 제대로 된 연애를 했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 솔직히...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어떤, 고정관념? 연애에 대해..그런 게 나 나름대로 있었거든. 당연히 남자가 프러포즈를 먼저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연애한 번 해보고 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긴 해. 요즘 뭐, 여자가 어딴고 남자가 어딴어. 그런데 암튼 그 때는 그랬어. 그래서 전화로 내가 ‘오빠는 나랑 사귀고 싶지 않아? 나는 연애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렇게 흐지부지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사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랑 만나고 싶으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만날 때, 반지인지 귀걸이인지를 사가지고 정식으로 사귀자 해서 사졌지. (중략) 연애 초반에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받아주고 찢찢매는 모습에 혼자 으쓱 하면서 나랑 맞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거고 뭐...암튼 개가 나를 많이 좋아했어. (고주희, 28)

나는 여태까지 첫 눈에 반하는 사랑만 했거든요? (정말?) 응, 진짜. 나는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와야지...(느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글쎄. 에이, 그런 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음...굳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외모. 그렇다고 내가 뭐 생긴 거를 따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얼굴은 상관없는데 썸, 뭐랄까. 체격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런 사람한테 끌리더라구요. 이거는 내가 성적으로 끌리는 거 같애. 어, 그래...나는 좀 그런 쪽으로 나한테 매력이 보여야지 돼. 그리고 말을 섞어 보면. 더 확실해 지지.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오지. 그런데 웃긴 건, 내가 첫 눈에 반한 남자들은 성격도 다 똑같았다는 거. (하하) 음...그런데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느낌을 말로 못 하겠어. 아, 그냥 딱 보면 느낌이 오는 놈들이 있어. 나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길게 못 사귀나? (하하) (류지현, 24세)

관계 안에서 감정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그러나 대부분 그 감정이 구성되는 시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부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혹은 파트너에

게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서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에게 ‘첫 눈에 반’한다거나 자신에게 어필하는 ‘매력’을 느꼈다거나, 혹은 ‘의외성’을 발견하는 등의 일련의 단발적인 ‘사건’들은 여성들이 파트너에게 감정을 열어 놓는 좀 더 직접적인 감정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파트너 자체가 여성에게 감정을 여는 기체로서 작동하는 것일 수도, 그리고 여성이 파트너에게 있어 스스로가 찾고 싶은/눈에 띄는 어떤 동기를 발견해낸다는 지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들이 연애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구조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연애관계와 사랑을 자연발생적으로 체험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감정 영역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녀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사랑과 친밀성과 같은 감정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게 되는 현실적 기체들은, 구성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험’ 자체를 근거로서 내세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사랑의 경험이 여성들에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동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이제 자연발생적인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때문이다. 그녀들은 사랑과 관계를 찾아 나선다. 우리 시대 여성들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남을 이끌어 나가고 이러한 만남을 매개로 한 관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때문이다.

관계와 사랑 안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을 쫓는 과정은 동떨어져 발생하지 않는다. 첫 눈에 반하는 연애를 경험했든,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해 가며 이룬 연애경험이든, 혹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구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여성이든 간에, 여성들은 이러한 각기 다른 많은 경험들을 통해 관계와 감정 안에서 “자아의 경계들이 와해되는 과정(depouillement)” (브라이도티, 2004: 296)과 다시 재조합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들을 통해 “자기 존재의 여성임(femaleness)” (브라

이도티, 2004: 297)을 발견하게 되는 매우 실존적이고 성찰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실존적이고도 성찰적인 경험들은 여성이 자아와 주체성에 대해 다시 사고하게 하는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기제가 되어 준다. 또한 이러한 기제들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 자기 존재가 ‘여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은 결국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영역을 구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가부장적 이성애제도가 할당한 여성적 역할들에 대한 압박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혹은 남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여성들은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가 만들어 놓은 ‘여성’이라는 공식에 맞춰 살고 싶지도, 또 여성들 스스로가 지금껏 자신이 여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의식들을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이 여성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행위성에 기인하는 사고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조우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연애행위와 연애사건, 사랑과 같은 감정에 대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의미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여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제⁵²⁾

51) 브라이도티는 페미니즘 여성 주체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자아와 경계들이 와해되는 이러한 과정은 그녀의 주체성이 확장되면서도 제한되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사회화에 앞서 여성의 모든 것은 이미 ‘성차화된 여성’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러한 자아의 와해, 자신이 이미 성차화된 여성이라는 인식 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그녀가 “자기 존재의 여성임”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pp. 296-297

52)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맞는 우리 시대 여성들에게 아직 통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다. 이를 브라이도티의 말을 빌어 이야기 하자면, “젠더 체계가 도전받고 재구성되어지는 역사적 시기”에서 즉, “남성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 하에서 오히려 여성에 대한 구분과 억압은 더욱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요즘 시대’에도 여자와 남자는 여전히 한 성이 다른 한 성 위에 군림하

1) 일상성의 재구성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일 것이다. 가부장 문화가 형성된 과정의 한 가운데에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희생과 그것의 경험적 통제·억압의 결과물이 조합되어 있을 것이다. 이 안에서 여·남 양성 간의 위계질서에 변화가 초래되었음은 물론이다. “여성과 남성에 관한 모든 양분화된 가치들에 나타나는 차이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의 거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이리가라이, 1996: 32).⁵³⁾

이러한 구분되고 전도된 가치들에 의해 구성되는 여성들의 일상은 다시 생각되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제도의 틀로 짜 맞춰진 여성적 특성과 영역, 그리고 삶을 이루는 단위인 일상 안에서 여성들은 매순간 여성성을 심문받고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틀 프리단(Betty Friedan, 1963)은 기념비적인 자신의 저서 ‘여성의 신비’에서 남성의 잣대로 기준 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성찰적 변화와 여성들과의 공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개별자로서의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은 관계와 사건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감정 노동의 경험을

고 통제하도 있다. 특히, 후기 근대에 진입한 이래로 논의의 중심에 선 감정 영역 안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해방기를 맞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더욱 뒤틀린 방식으로 여성들의 일상과 삶, 감정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출산 열풍’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지구적으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는 후기 근대에, 단순히 신생아들의 수를 늘리고자 여성들을 다그치고 협박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여성이, 여성의 몸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타자화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한다. 개별자들의 연애와 사랑과 같은 감정 영역이 속해 있는 것은 결국 이 사회와 제도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개별자들의 관계와 감정들이 손상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여성적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과 그럼에도, 관계와 사건 안에서 펼쳐지는 여성들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책, p. 361

53) 이리가라이는 이러한 여·남의 차이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그녀는 사회와 언어적 측면을 들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녀는, “남성은 마치 자식 자식과 아내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에 자기 고유의 이름을 붙여 주고 싶듯이, 우주에 자기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부여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언어가 성별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담화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인식론적이고도 실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어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양성 차이 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p.33

통해 우리 여성들에게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젠더화를 불러오며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자기개념으로 의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시간을 개하고만 지냈어. 대학교 2학년 때는 학교, 과외, 그리고 개. 친구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으니까 뭐. 방학 때 이외에는 학교 다닐 때는 개만 만났어. 개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뭐 그런 경우는 방학 때. 방학 때는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 외에는 나는 오직 애만 만나고 살았어. (중략) 개는 되게 나한테 많은걸 주고 있어.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이 있지. 확실히 나에게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어. 그런데 개가 나에게서 확실히 어떤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네 엄마만 봐도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도 또 개네 가족이 맘에 안 들기는 하지만, 개는 좋아.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되게 좋아. 또 개한테는 내 모든 모습을 백 프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혜규, 28세)

이혜규는 파트너와의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관계 안에서 연애 경험 전과는 다른 인식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파트너와 ‘붙어만 있다가’ 다른 관계에서의 ‘불편’을 경험했고, 관계 안에서의 이러한 일체적 기억들은 그녀에게 있어 파트너와의 관계와 다른 관계들이 충돌하는 인식론적 경험이기도 했다. 이혜규는 이 경험을 토대로 감정 영역 안에서 사랑과 연애, 우정과 신의 같은 감정적 분리를 체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부분조차 파트너에게는 ‘백 프로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개별자로서의 자아를 규정짓는 데에는 많은 상황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관계와 사건 안에서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인식하고 절충하거나, 다른 차원의 재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여성들의 일상적 체험, 즉 관계 안에서 감정의 상호교환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행위성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 건 좀 옛날 얘기 아닐까. 나도 처음에는 애랑 밀고 당기기 같은 걸 했었던 거 같아. 처음엔 나도 좀 도도해 보이고 싶었고. 사실 뭐 내가 도도하고, 뭐 그런 과는 아닌데. 나도 내가 좀 암전하고 여자다운 여자? 남자에게서 여자로 보이고 싶은 뭐 그런 욕망이 있었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걸 [친밀감과 거리두기] 했었던 거 같아. (최정은, 27세)

여성들이 일상적인 관계에서 자신에게 긍정성을 반영하기 전에 시도하는 ‘친밀감과 거리두기’ 같은 일련의 감정 유지 장치들은, 본격적으로 관계와 사건에 진입하게 하며 여성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관계 안에 자리 잡게 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 ‘성찰 없는 제도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정의하는 ‘주도적 관계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⁴⁾

처음부터 그랬던 거 같은데...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순진할 때 그럴 때는, 스물 둘 셋, 더 어릴 때. 그럴 때는 그냥. 어떤 판타지지. 서로 미쳐가지고 불안정하더라도 정말 그냥 그렇게 미칠 듯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난 그 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각오라고 부를 순 없겠지만, 각오하고. 더 많은 거를 걸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과거에...그러고 나서 안정을 추구하게 된 거 같아. 그 이후에는. (중략) 그럴 수 있겠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연애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루하고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굉장한 혼란이었지. 그 나이대로 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한 혼란이었고. 힘든 것도 많았고. (그럼 그 때는 니가 경험 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 같아?) 뭐, 그런 면도 있겠지. 그런데 뭐, 그 나이대는 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하) (중

54) 가부장제도 하에서 열등함을 접하고 있는 여성들의 여성성에 대해 다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좋은 연장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성이 발현되고 용인되는 사회제도적인 비판적 성찰과 함께 여성성의 긍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여성’을 인식하고 성찰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성찰 없는 제도성’이라 함은, 이성적 체계로, 또 언어중심적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여성과 남성의 등식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략)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되게 많이 내가 힘들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던 거지. 그런 관계를 계속 해나간다는 거에서. 계속 그렇게 불안정하게 갈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싫었던 거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냥 상처받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박혜옥, 28세)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상적 관계를 바탕으로 나이/시간이 더해지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는 다음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혜옥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경험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지루하고 평온한 날’들에 비해 ‘굉장한 혼란’이었고 ‘서로 미쳐가지고 불안정’ 하지만 그래도 ‘미칠 듯한 사랑’이었다. 관계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와, 미칠 듯한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박혜옥이 가지는 사랑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녀가 체험했던 일상적 경험들은 사랑으로 재구조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해체를 경험하든지, 혹은 긍정성을 부여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여성적 행위성에 많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길게 만나기는 했어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이 아이하고는 좀 길게 오래 만났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그 아이가 나한테 뭐 되게 특별하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는 남자 만날 때, 좀. 암튼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하. 그런데 개는 띄엄 띄엄. 이렇게...뭐 한 달에 두세 번? 아무래도 지방에 살았으니까, 개가. 그래서 오래 만났던 거 같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날 때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봤다고 그랬잖아요. 개는 워낙에 자주 보니까. 좀 뭐랄까. 애투? 그런 감정이 생겼던 거 같애. 그런데 웃긴 건.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류지현, 24세)

제가 맨 처음 연애했던 애한테는. 너무 맞춰주기만 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내가 암것도 모를 때라 그랬겠지만. (중략) 내 일상이 그냥 개를 중

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과가 개 중심이야. 그런데 그게 뭐, 내가 싫은데도 개가 하라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몰라서 그랬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그 때 내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요? 어이구, 지금은 반쯤어치도 없지. (하하) (중략) 그런데, 그런 경험도 한 번쯤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게...제가 사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여자였다는 걸 개랑 부대끼고 이러면서 확실히 알게 됐걸랑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연애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진 말려구요. 뭐 [안 좋았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좋아서 미쳤던 때도 있었으니까. 뭐든지, 양면성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임정완, 25세)

여성들은 일상적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내밀한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흔히 경험한다. 이는 연애사건이나 경험자체가 여성들의 삶에 있어 대단한 기제가 되어 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여성들은 단지 자신 깊숙이 자리 잡은 자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스위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은 어떤 여성에게는 단발적인 연애사건이 가져다주는 상처가 될 수도, 혹은 어떤 여성에게는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구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이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분노 등 많은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류지현의 경우, 그녀는 만나왔던 다른 파트너와는 다른 감정을 이제 막 사건이 종료됐던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했다. 그녀에게 그 파트너와의 만남은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만남이 오히려 그녀에게 관계의 '애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애뜻함은 파트너에 대한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류지현 자신에게만 발생했다 소멸된 느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애뜻함을 파트너를 제외한 류지현 자신과 관계 안에서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류지현은 자신이 관계 안에서 바라고자 했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판타지를 일상적인 관계와 사건 안에서 무의식적인 재구성을 이루어 냈던 경험을 했다.

임정완 역시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인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임정완은 이 지점에 대해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했던 연애가 파트너에게 ‘맞춰주기만 했던’ 연애였음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후에, 그녀의 연애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내가 사실 자존감이 높은 여자’였다는 자기 인식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의 발견은 곧,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너무 안 좋게만 생각지 않으려는’ 여유로 확장된다.

여성들은 개별자로 이 사회와 제도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한다. 연애관계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다른 많은 관계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위적인 관계들 안에서 여성들은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크고 작은 영향들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연애관계와 사건이 여성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점은, 연애 관계는 바로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이상적인 판타지와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하며 감정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와 사건에서 여성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감정적 욕구들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무리 단발적인 연애관계/사건이라도 그 서사 안에서는 저마다의 일상성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1) 상처와 대면하기

관계와 사랑, 사건과 경험들 안에서 여성들은 많은 감정적 흥망성쇠를 겪는다. 이는 관계가 사건으로 정의 내려질 때 갖는 서사적 특성과 맥을 함께 한다. 사랑과 친밀성 등과 같은 감정들은 관계 안에서 비구조화 되는 모습으로 사건을 당락 짓는 커다란 변수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회제도를 떠나 따로 정의 내려질 수 없듯이, 감정 역시나 관계와 사건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연애라는 기제를 통해 ‘감정적 해체’를 겪는 것은 여성들의 주체성과 행위성에 유기적인 관계성을 만든다.

나는 맨날 내가 만들어서 상처 받아. (그럴 땐 어떻게 해?) 아니 그냥...

난, 좀 자기 암시적인 거 같아. 끝난 거야. 끝났고, 곧 괜찮아 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사실 화 나 죽겠어. (하하하)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게,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상황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나도 다른 애들처럼 [헤어진 남자친구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어. (중략) 왜냐면 나는 정리[헤어지기까지의 확실한 상황적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연락을 안 하는 거. 우리는 끝난 거야. 그런. 그래서 [헤어지면서 상대방에게]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는 말을 항상 해. (하하) 아니 물론 그게 버전은 다 다르지. 그 버전 중에 하나가, 오래 살아라, 그렇지만 행복하진 말아라, 그렇지. 내 버전 중에 하나지. (저주구나) 그렇지 저주지. (하하) (중략) 이제는 정리했어. 그러니까 [감정을 정리하는] 그 기간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이런 건 안 해. ‘넌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줘’, 이런 건 안 해. 그냥 정리하면 끝이야. 다시는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00이 같은 애랑 나랑 만약에 남자랑 여자랑 [만났으면] 이랬으면 절대 우리는 연애할 수 없는 관계야. 하하하. 헤어지면 문제일 거야. ‘친구하자’, 나는 ‘친구 안 한다.’, ‘헤어지자’, ‘헤어지자 말 안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하하하) 나는 헤어지자고 하고, officially 헤어지자 하고 헤어져야 하고. 00이는 그냥, 뭐 어떻게 친구가 된대. 그런데 나는 절대 이해 못 해, 그거. (김수진, 27세)

비혼 여성들에게 있어 커다란 감정적 상처는 대개 ‘이별’이다. 이는 개별자들의 상황과 맞물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수진은 이별을 함에 있어서도 파트너와의 명확한 관계 ‘정리’를 가져야 한다. 김수진에게 있어 관계정리는 자신을 추스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떼어 버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관계와 사건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들은 이별을 경험함에 있어 파트너와 자신이 함께 구성한 감정의 마무리, 혹은 관계의 정리를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별에 대면할 수 있길 바란다. 특히나 김수진의 경우, 만남이 그러하면 이별도 ‘정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얼굴을 보고 이별의 의식을 치르지 않는

마무리는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다. 김수진은 이별에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려 한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한 배려는 자기기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 있어 그녀가 사고하는 자기연민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는 일반적인 느낌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곧 김수진에게 있어 ‘정리하면 끝’인 자세는 이별로 침잠한다기보다 오히려 아픈 마음을 달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인 셈이다.

음, 나는. 좀...물론 헤어지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개를 만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내가 상처받았던 거 같아. 왜냐면 개는 좀, 뭐랄까. 자유연애주의자? 연애지상주의자? 아무튼 뭐 그런 과. 나랑 만나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애를 만났는데...(중략) 그런데 또 되게 웃긴 건. 아니 짜증나는 건, 자기가 다 말하고 다녀. 막. (너한테도?) 응, 너한테도. 그런 걸 숨길 이유가 자기는 없대. 나랑 뭐 지가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되려 큰 소리 탕탕 치던 걸? (하하)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나는 다 참았거든. 그렇다고 내가 맨날 뭐 바보같이 할 말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해대기는 했는데...(중략)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애를 놓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그냥 붙잡고 있었던 거 같아. 그렇다고 지금 그걸 후회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아무튼 그 때는 그랬어.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헤어진] 지금보다 오히려 그 때가 더 지랄이었던 거 같더라. 뭐 그런 생각. (최정은, 28세)

사랑과 연애에 있어서 여성들은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한다. 이는 관계 안의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관계와 감정들에 대해 함부로 정의 내리거나 단정 지어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연애가 갖는 특질 중 하나인데, 관계 안의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들을 타자화시킨다. 이는 뒤에서 논의 할 ‘또래집단’의 역할과는 다른 맥락이다. 물론, 이러한 타자화는 또래집단의 관계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연애관계에 나타나는 타자성은 그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데 차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관계와 사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은 항상 감정구조 안에 위치한 개별자들의 선택으로 방향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최정은의 경우, 이별을 결심하고 실행했을 때보다 오히려 관계 안에 위치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렇지만 최정은은 그러한 감정적 상황들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그 관계를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감정적 구조 안에서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이 서로 충돌하고 상처 받더라도 그러한 감정적 구조를 정리할 상황과 선택은 오로지 개별자로서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온전히 여성들의 의지와 인식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체적인 결정에 따르는 상처 치유 역시 오롯이 여성들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이다.

글쎄, 모르겠네...만약에 내가 현재 지금 막 이렇게 불행하거나 뭐가 안 좋다고 하면 뭔가 상처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다 모든 게 좋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없는 거 같아. 뭐 과거는 묻을 것도 없는 거 같아. 지금 생각하면 뭐 다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언니는 지금 연애가 좋긴 좋은가 보다.) (하하)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정선영, 30세)

상처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상처를 안 받았어. (하하) (아, 어떤?) 내 남자친구가 게이였어. [어?]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사귀었던 남자가 게이였어. (그럼 숨기고 만난거야?) 아니 아니, 1학년 때, 자기도 몰랐던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자기도 (본인이 게이인 줄) 몰랐던 거야. 나중에, 내 남자친구의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나랑 삼자대면하고 막 그랬거든. 진짜 완전 웃겼지. (하하하) (기분이 어땠어?) 사실 나도 내가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막 상심하거나 하지도 않았어. 그냥 뭐. 뭔가 만나면서 썸 수상한 낌새 있었는데, 그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고나 할까. (중략) 뭐 그런...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사실 애인이었다고는 해도 내 남자친구 놈은 그걸[본인의 성적취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단계였던 거 같아. 그게 뭐 상처가 됐다거나 그러진 않아. 어차피 개[남자친구]가 그런 상태였으면 오래 가지도 못했을 거고. (조미주, 28세)

반면에, 이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선영의 말처럼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미주처럼 ‘웬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들은 세계와 자아를 인식하는 개별자로서 각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관계를 조명한다. 또한 관계와 사건 안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상처받지라도 스스로 그 감정들을 극복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관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성들 스스로가 개별자로서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을 인식하지는 않을지라도 감정 영역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여성들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경험적 고찰과 자신에게 긍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로의 관계맺음에 대한 희망은 여성들에게 늘 존재한다.

여성들은 관계와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감정의 시작을 느꼈을 때, 지금 느끼는 이 감정만이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성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든, 스스로의 감정에서든 항상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애관계의 시작이란 것도, 어떠한 변수가 작용했든지 간에,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함을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끝을 예감하고, 대면했을 때도 도망치기 보다는 스스로 맞서기를 원한다. 여성들이 말하는 관계의 주도성은 비단, 관계 안에서 파트너를 조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관계의 끝맺음을 할 때도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자신의 주도하에 깨끗하게 끝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이 발현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적 행위성이 가져오는 힘이기 때문이다.

(2) 타자의 시선으로 감정의 거리두기

일상적으로 구성된 현재적 삶은, 여성들이 많은 가치들에 둘러싸여 상호

연관성을 매개로 하여 개별자로서의 행위성으로 통합된다. 여성들은 가부장제 이성애 제도와 사회의 남근중심적 가치들이 촘촘히 새겨진 일상 속에서 늘 ‘여성/자아’가 아닌 ‘그 나머지 것들/타자’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감정이 노동으로서 극대화되는 관계와 사건 안에서 여성들은 파트너와의 일차적 관계 이외에도 늘 그 바깥의 시선을 책임지는 이중의 부담감에 시달린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관계 안과 밖을 아울러 사회제도적으로 늘 여성들의 여성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행해져 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응. 그런 것도 있겠지.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이고 계속 나랑 만날 사람이라는 거는 가정을 이뤘을 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라 한다면.. 일단 좀 그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꼭, 어떤 물질적인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어. 심리적으로든, 뭐 또 다른 어떤 상황이든,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박혜옥, 28세)

여성들이 연애관계에 진입하기까지는 많은 심리적/사회적 인식들이 변수로 작용한다. 파트너를 고르고 연애에 돌입하고 감정의 상호교환을 통해 안정적 애착을 맺을 수 있기까지 그 안에서 많은 역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애와 사랑을 함에 있어 여성들에게 작용하는 이러한 많은 기제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 이에 대해 박혜옥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현상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사회와 제도 안에서 부대끼며 경험한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룬 연애관계의 ‘조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지극히 이 사회를 통해 이루어진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 구성한 조건과 감정에 대한

조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박혜옥이 느끼기에 그녀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응, 이제 너도 알다시피 내 전 남친 있잖아. 개네 집이 진짜 부자거든? 거짓말 아니고 진짜 부자야. (하하) 그리고 나도 뭐 개네 부모님들도 다 만나보고...좋아. 나쁠 거 없었어. (중략) 그런데, 내가 개랑 헤어지게 된 거는, 일일이 다 말하기도 싫은데, 좀...나는 있지, 좀 박학다식한 사람이 좋거든? 자기 의견도 똑부러지고 아는 거 많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유머 감각도 나랑 통하고. 나는 만났을 때 즐거운 거를 되게 많이 따지거든. 같이 있을 때 즐거워야지 인상 쓰고 싸우고 어휴, 뭐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왜들 만나나 싶다니까. (중략) 사실 우리 집에서도 개[전 남자친구]를 좋아했었지. 오랫동안 봐왔고. 애가 대충 어떤 애라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까 안심도 되고, 또 집안도 좋고. 그래서 그냥 개랑 연애하다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나는 개가 이제 안 좋은 걸 어쩌냐. (다른 사람이 생겼어?)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애랑은 결혼 못할 거 같아. 그냥 저냥 살면 살겠지. 돈도 많고. 하하. 그런데 그렇게는 못살겠더라니까. 아니 이 감정이 좀...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도 나중에 사네 못 사네 하는 마당에 좋지도 않은 애랑 어떻게 사냐니까. (중략) 지금 남친은 솔직히 키가 크냐, 인물이 좋냐, 돈이 많냐. 하다못해 학벌도 별로라니까. (하하) 그런데도 나는 애가 좋아. 그냥 애랑 한 일 년 연애하다 결혼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뭐라셔?) 당연히 싫어하지. 엄청. 우리 엄마가 나더러 미쳤냐고 그랬다니까. 어휴...그래도 나는 애가 좋아. (중략) 그냥 애랑은 뭐...일단 같이 있으면 재밌고. 또 서로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하나...암튼 그런 게 있어. 유머 코드도 비슷하고. (하하) 그리고 애랑 있으면 설레고 좋아. 나한테는 이 설레임이 중요하거든. (이규은, 27세)

여성들은 개별 자아라는 인식에 맞게 사고하며 그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즉 자신에게 있어 늘 상위 가치를 선택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규은에게 있어 상위 가치란, ‘같이 있으면 즐겁고’, ‘코드가 잘 맞는’ 느낌이며, 동시에 ‘설레는’ 감정들이다. 그러나 개별자들에게 상위 가치의 선택이란 많은 부분 다른 관계와 가치들 간의 충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규은 역시 현재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선택한 의지에 대한 확신과 행위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매력적이지. 매력적이지만 그건 내가 어렸을 때야. 우리는 솔직히 돈을 원하는 나이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뚜벅이 족 보다는 이왕이면 고급 자동차에 나를 태워다 줄 수 있는 걸 원하는 나이라고. 인간적인 걸로만 봤을 때 내 친구 뚜벅이 족, 이해는 돼. 하지만 우리 남자친구가 나를 자기 자동차로 태워다 줄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지. 그랬더니 가만있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돌을 집어 던지더라. (하하) (중략)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교대 나와서 바로 임용고시 봐서 교사가 됐잖아. 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쪽 애만 사귀었으니까, 솔직히 지금 내 주변에 다 결혼 한 애들이거든. 우리 집에서든 내가 딸 셋 중에 맏이니까 또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시고 하니깐 왜만 하면 빨리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남자친구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또 개네 집에서든 시험에 합격하고 좀 자리를 잡으면 결혼 했으면 하시고. 뭐 그런...(이혜규, 28세)

사람을 보면 괜찮아. 잘 맞고. 뭐 사실 그렇게 싸운 적도 없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중략) 응. 그래서 이제 본인만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데 [괜찮은데] 이제 뭐 그 주변이 집안이나 이런 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지 또. 결혼을 생각하면. (중략) 뭐, 엄마가 반대는 안하실 것 같아. 그런데 단지, 아빠가. [그 사람이] 교회 안다니는 것을 아시니까. 교회 다니게 해라. 이러겠지, 아빠가. 그런데 뭐 그것도 막 심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막 능력이 안 돼서 진짜 막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뭐 그냥 흔히 있는 집이고 평범한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지. 제사를 지낸다는 자체가. (서은영, 27세)

또한 아직도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결혼을 상위가치로 여기고 연애관계와 사건을 서로 연결되는 조건이 되길 바라며 관계를 일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혜규는 ‘어서 자리를 잡아 결혼’하길 기대한다. 그녀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매우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다소

현실적인 안정이 첨가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감정과 현실적인 이상의 괴리가 항상 존재함을 염두 해 두고 있다. 뒤이은 서은영의 이야기에서 이혜규와 유사한 가치를 읽을 수 있었다. 서은영은, 파트너와의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그 관계에 만족하지만 가족과 자신이 속한 문화적 그룹이 파트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스스로의 감정적 욕구보다 큰 문제는 아닐 것이나, 그럼에도 그녀는 그 문제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 오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문화 그룹이 서은영 자신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 그룹 내에서도 파트너가 인정받기를 바란다.

많은 여성들이 관계 자체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우리’가 아닌 ‘다른’ 관계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가족이나 또래 집단 등과 같은 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재단된 여성의 시선에서 한 번 필터링을 거친 관계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파트너를 선택함에 있어 낭만적 사랑에 대한 판타지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가치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화된 가치는 상당히 많은 부분 자본주의적 사고에 의지하고 있다.

여성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사랑’과 ‘현실’ 사이의 고민은 여성들에게는 실존적이고 내재적인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어떤 선택에 대한 맹목적 비판은 좀 더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 안에서 여성들이 이 세계를 인식하는 개별자로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회제도가 주입한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무거운 비판은 ‘타자’라는 이름에 너무 거창하기 때문이다. 타자로서 타

자의 시선을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 그리고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의의일 것이다.

2) 개인적 경험을 공론화하기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문화가 존재한다. 여성들만의 언어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차이’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거듭했던 것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 그 자체를 부인하고 버리지 말자는 것이다. 여성들의 바람은 ‘차이의 인정’이었으나 그러한 노력은 많은 부분, 가부장제 이성애 제도의 남성적 언어 앞에 변질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젠더화된 정체성이 목소리를 발견하고 신체가 되어 발생하는 곳은 해부학 속이 아니라 바로 언어 속에서이다”(브라이도티, 2004: 307).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밀하고 개인적인 ‘여성들만의’ 수다 정도로 폄하되었던 ‘여성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작업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을 보다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과 상호책임자로서의 호출’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 즉 여성적이라 이름 붙여졌던 모든 감정 영역들에 대한 올바른 자리 잡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애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여성의 감정과 행위성에 대해 경계 허물기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1) 연애, ‘사건’으로 명명하기

여성이 개별자로서의 자아를 규정짓는 데에는 많은 상황적 요인들이 작

용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관계와 사건 안에서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인식하고 절충하거나, 다른 차원의 재인식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일상적 체험, 즉 관계 안에서 감정의 상호교환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행위성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한다고. 그런 거겠지. 적당히 잘 조절해야지. (중략) 우리 관계는. 별로 밀고 당기기도 없는 거 같고, 그냥. 우리는 그냥 편안한 관계야. 그냥 뭐 가족 같은 관계야. 하하. 그런데 오빠는 그런 데에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 같아. 편안함, 이런 데에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 같아. 누나랑 엄마랑의 관계를 또 보면. 엄마랑은 막 친구처럼 지낸대. 아빠랑은 또 안 그런데. 그러더라고. (중략) 그런데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 이 연애감정 있잖아.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해야 되고, 머리 쓰고. 그...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죽 가서 사랑도 되고, 어떤 결실도 맺고 해야 되는 건데..이거는 이거대로 엔조이 하고. 물론 엔조이도 헤어질 때 힘들 거 아니야, 나름. 그러니까 그걸, 만났다 헤어졌다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 엔조이를 하는 거는. 그게 너무...나는 그거 못할 거 같아. (서은영, 27세)

서은영의 이와 같은 고백은 여성들이 연애관계에 단순히 ‘사건’ 이상의 어떤 가치를 곁고 있음은 드러내고 있다. 서은영에게 있어 연애는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만 하는 관계이다. 그녀가 말하듯, ‘연애감정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연애가 ‘기승전결’적으로 구조화 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사건이 드러내는 재현적 특성은 ‘여성화’되어 구조된다. 서은영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머리를 써서 밀고 당기는’ 연애와 그녀가 관계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편안한/친밀한’ 연애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달리 보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를 거쳐 ‘개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연애’에 다다른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연애사건에 정서적인 가치 이상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잘 안되니까 힘들었던 거지. 아니 뭐 즐거우면 힘들겠니? 그러니까 상호소통적인 연애를 하질 못해서 힘든 거야. 상호소통이 돼서 즐거운 연애다운 연애를 하면. 뭐 물론,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다 미쳐지겠지만, 사람한테. 근데 상호소통적인...일종의 짝사랑이지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아주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 같아. (중략) 음..누구를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별로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성격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 같아. 내가 사람을 믿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성된 마음을 가지게 된대거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거나, 그런 좀...그런 일...(김혜영, 32세)

어. 나는 좀 그런 게. 내가 그냥 재미삼아, 우리 그냥 연애나 한 번. 이게 나는 잘 안되기 때문에, 나는 연애는 굉장히 서로 신뢰 속에서...하여간 서로 말이 통하는 가운데서 깊은 교감을 나눠야 한다...뭐 그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그냥 뭐 두근거리고 막 그런. 이게 [두근거림] 없다고 난 사랑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내가 선택한 사랑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 (구자원, 33세)

여성들이 연애를 사건으로 인식하는 기제는 일상적인 사랑이 가지는 의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김혜영에게 사랑은 ‘성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작용했고, 사람을 믿는 다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사랑과 연애의 경험은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각성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기제가 되었다. 구자원은 그녀가 선택한 사랑에서 감정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연애를 ‘굉장한 서로의 신뢰 속에서’,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상화하고 있는 연애가 일방향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모든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관계 그 자체와 파트너에게 느꼈던 좌절과 상처가 꼭 치유되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개별자로서의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 영역은 이렇듯 그 진폭에 제한이 없다. 이는 여성들의 상이한 경험과 감정에 대한 이 사회제도의 풍성한 인식의 틀을 바라는 이유가 된다.

아 나도 기분이 좋아져. 그게 나는 꼭 연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호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작업 걸 생각을 하던지 하다못해, 그런 거를 할 때도 기분이 좋아. 생활의 활력이 돼. 그냥 어쨌든 뭐...그 연애관계를 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이제 그런 에로스적인 부분을 느끼고. 그런 활력인 거지. 에로스적인 활력. 이렇게 그냥 편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 잔 하고 이런 거는 약간의 종류가 다르다고 할까? (박혜옥, 28세)

그러니까 뭐, 스킨십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음. 글썄.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거. 다른 사람, 친구들이랑 기대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르고..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지. 그리고 좀, 글썄..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다르게 계산적인 관계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런 것도 다를 것 같고. (고주희, 28세)

여성들이 연애/연애관계를 일상적 관계들과 다르게 사건화 함에 있어 중요한 기제는 바로 성적인 부분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발산할 수 있는 상대 혹은 장소로서 관계를 사건화하고 이러한 사건을 능동적인 체험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관계와의 차이점을 가르는 요인들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감정적인 요소들이 더해지기는 하지만, 여성들은 대체로 이 지점에서 일상적인 관계들과 연애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규정짓고 있었다. 이는 바로 후기 근대에서 사랑과 연애라는 감정 영역의 커다란 요소들을 여성적 행위성으로 의미화 할 때 중요하게 고찰해야 할 지점이다.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에 정직하려는 것은 여성적 자아가 적극적인 행위성으로 발현되는 하

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이 세계와 자아를, 그리고 관계와 경험을 넘나들며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그 안에 유기적으로 자리 잡은 자신의 행위성에 대한 경험적 수행을 사건 안에서 행하고 있다.

(2) 연애, '경험'으로 의미화하기

여성들은 스스로 연애에 대해 체험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풍부한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당면한 관계와 사건에 대한 맹목적 사고가 아닌, 당위적 고찰이다. 여성들은 경험 안에서 여성적 관계성과 행위성에 대해 사고할 기회를, 설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비혼 여성들은 연애관계에 거는 거창한 기대는 없다고 말하고 말한다. 그렇지만 개별자로서 파트너와 그녀 자신이 '따로 또 함께' 사고하길 바란다. 이것은 전통적 연애와 사랑에 있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했던 여성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⁵⁵⁾ 관계 안에서 함께 정의되어 지길 바라지만, 그것이 본인에게나 파트너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은 사건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한 어떤 '선'이 틀 지워졌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그런 건거 같아.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보다는 낫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요?)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뭐 연애 관계건 그냥 [일상적인] 관계건,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적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호감이 있는 사람이건 누군가와 맺어가건. 그러니까 진짜 뭐, 직장

55) 이는 과거에 여성들이 가족과 감정 노동의 관계 안에서 모두 희생적 삶을 지향하거나 순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과거에 가족과 사회에 헌신했던 여성들에 대한 비판은 더욱 아니다. 후기 근대의 비혼 여성들과 그 이전의 여성들이 처한 입장은 다르다. 이러한 입장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가치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비혼 여성들이 과거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놓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시대적 가치가 현재의 비혼 여성들을 제단하고 억압하는 요소로 얼마든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건 연애관계가 다 미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어..그럼 연애라는 게 지호씨에게 있어서는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어쩌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연애를 하면 그럴죠. 분명, 그 수많은 관계들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윤지호, 30세)

윤지호의 이 같은 이야기에 많은 여성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 비록 연애 경험으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가 됐던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들은 관계와 사랑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계에서 개별자로서 감당해야 할 각자의 고민, 갈등, 충돌이 있지만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많은 여성들은 ‘함께’이길 바란다. 그것은 인간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회학적인 정의보다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함께 사고하고 어울리는 방법론적 사유에 대해 더 능란하다고 해두자. 그렇기에 여성의 경험에 대한 담론들이 다시 생각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이란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상성이 부여된 연애관계 안에서의 경험들은 많은 여성들의 삶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체험적 경험들은 여성들에게 분명, 많은 부분 힘이 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관계와 사랑 안에서 겪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 행위성으로 작용한다.

그것도 그렇지. 그 가치관이 다르지. [내가] 그런 쪽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고, 또 아 그 때 전에 그 남자친구도 종교 문제도 있었다. 그 오빠도 교회 안 다녔잖아. 그런데 그 오빠 [전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녔을 것 같기도 해. (중략)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현실적으로 딱 맞는 사람이. 오빠만 따로 떼어 놓고 봤을 때 말고. 지금의 어떤 조건들이. 좀 맘에 안 드는 것도 있다는 거지. (중략) 근데. 그건 그래. 그게 크고 작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또 부딪쳐야 하는 문제가 있긴 있어. (중

략) 그러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다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고. 다 뭐, 이거 아니면 저게 있고, 우리 언니는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언니는 그 뭐, 시아버지가 [형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요즘 딱 좋아하는 조건이네, [사람들이] 뭐 이러는데. 또 나름대로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힘든 일이,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가 다 있어. (서은영, 27세)

계속되는 서은영의 이야기는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다. 여성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딱 맞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과 조건이 언제나 나의 가치와 일치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이 선행되는 여성적 관계와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체적 성찰과 함께 관계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 혹은 개선하려는 노력 등으로 연결된다. 이는 대부분, 여성이 처한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행위성으로 나타난다.

응, 그런 걸 수 있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한다거나, [나를] 자기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응..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야?) 현재까지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사람이 좋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지.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요구하는 가치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이렇게 다 하려는 그런 가치들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조금 더 상위 가치의 거를 그 사람이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맞춰달라고 한다, 그럴다면 나는 해줄 수 있을 거 같아. 그런데 모르겠어, 그 상황에 처해보지를 않아서. 과거에는 그런 인간들이 없었어. 그런 상위 가치의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다 하잘 것 없는 걸로 들이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도 알겠지만. 나는 좋아하면 그냥 관계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모르겠다. 앞으로는...뭐 이제는 나이도 찡고 또 주변에서 결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그런 거를 엄두 해 두고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는 굳이나 스스로 그런 걸로 부담을 갖고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그냥 내가 좋으면 만나고, 그랬던 거 같아. (앞으로도 그런 태도

는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싶은 거야?) 크게 바뀌야 할 필요는 못 느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좋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린다. 쉽게 얘기해서 뭐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회적 조건들이라든가, 뭐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뭐, 우리 엄마한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겁게 다가 올 수도 있겠지. (박혜옥, 28세)

박혜옥이 경험했던 연애사건은 그녀에게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근거를 내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파트너와의 여러 관계를 통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위 가치와 연애사건을 함께 이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은 박혜옥이 지향하는 삶의 한 방향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녀는 그러한 태도를 바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여성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 행위성을 발휘할 때 관계와 경험 뿐 아니라 개별자인 여성의 삶 속에 여성적 권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적 권력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스스로의 몸을 통해 얻은 체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연애, '경험'을 공유하기/또래집단의 역할

도처에 넘쳐나는 감정의 홍수 속에서 움트는 한 가지 의문은 왜 여성들이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 감정 영역에 대한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관계와 사랑, 만남과 연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하는가이다. 친밀성의 구조적 변동은 사적 영역을 민주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든스의 낙관은 보기 좋게 비켜갔다. 여성들은 연애와 사랑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빈번하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비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인간관계를 가장 어려워하고 타자와의 관계맺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현대성의 한 특질이라지만, 남성도 아닌 여성이 여성적 영역 안의 가치들을 스스로 재현하면서 어째서 여성들만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

는가.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20-30대 비혼 여성들은 과연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나누는지, 또한 연애사건에 대한 기획을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는 또래집단의 역할은 감정 영역 안에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응. 그거는 당신도 알잖아. (하하하) 시시콜콜,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이제 또 그런 수다는 감정적인 해소가 되니까. 그거는 안 좋았던 그런 얘기들을 씹으면서 얘기를 하건, 뭐 좋았던 얘기를 하건, 그냥 수다를 떠는 거 그 자체로 많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그런 거에 하난 거 같아. 이거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런 색다른 세계를 볼 수 있잖아. 다른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애를 했는데, 재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함께 한다는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뭐, 참고를 할 수도 있겠지. 참고를 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내가 뭐 누구를 만나 건,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거를 이용하자면 내가 뭐, 나도 그런 식으로 관계에 접근하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 그렇지. 그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처받았건 게 풀리는 것들이 있고. (중략) 어, 가능하다고 봐. 도움이 된다고 봐. 이렇게, 나도 딱 그 상처받았을 당시나, 그 직후에는 얘기를 잘 안하는 스타일이야. 어느 정도 되면[지나면] 그거를 해서 [얘기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같아. (중략) 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일단은. 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안에서 접어지고,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하고 풀어버리는 거지. (박혜옥, 28세)

응. 그냥 나는 얘기하면서 푸는 스타일이거든. 그냥 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싸우거나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게 가슴에 남아. 그럼 그걸 어디에서든 풀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나 남자친구하고 풀어. 그리고 내가 말로 하지 못 하는 그런 심정을 망치로 머리를 치듯이 정곡을 찔러 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게 나한테는 너무 도움이 돼. (중략) 어, 그런데. 내가 좀 한 때 되게 이기적이고 나만 알던 시기가 있었어. 그 때가 내가 좀 힘든 시기였는데, 그런 때가 있어서 나는 내가 늘 올바르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물론 나름대로 최선

을 다해서 판단을 내리지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나는 정말 말하면서 풀어.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한정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쌓였던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편해져.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혜규, 28세)

박혜옥과 이혜규는 경험을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하는 또래집단의 역할을 높이 샀다. 박혜옥에게 이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자체로도 해소’가 되는 경험이며, ‘상처받았던 게 풀리는’ 느낌을 받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혜규 역시 친구들과의 수다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적 해소를 시도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망치로 머리를 치듯이 정곡을 찢어 주는 친구들’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자신이 개념화하고 구상하는 연애의 기획을 친구들과 함께 제작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들이 친구와 그와 유사한 관계가 여성들의 자아와 주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성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 할 수 있겠다.⁵⁶⁾

많은 여성주의 관계이론가들은 친구관계가 개별자의 자아구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는 친구와 그와 유사한 정서적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족으로 틀 지워졌던 시대를 지나, 개인의 활동 영역이 그 범위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커져가는 현대 사회에 정서적 관계가 갖는 의미로까지 확장할 수 있겠다. 가족 이외의 또래집단을 위시한 정서적 관계는 유대의 자발성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 관계가 갖는 의미가 무거워 지는 것이다. 이는 나의 선택에 준한다는 주체성의 담보를 의미함으로써 개별자의 자아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래집단과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여성들

56) 물론, 남성들 역시 친구관계에 있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들어,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가치인 ‘의리’를 떠올려 보라.) 그렇지만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치부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관계와 경험 안의 상처들을 그녀들의 친구와 함께 나누며,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는 모습들은 지극히 상호교환적인 감정의 교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지는 의미는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인식을 쏟아 붓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서적 관계에서는 감정의 상호교환이 근본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이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자유로운 상호교환을 이루어 낸다. 여성들은 관계와 경험 안에서 서로 간의 언어를 오해하지 않고 감정의 넘나들을 지켜보아 줄 여유로운 시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 스스로가 관계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한 것일 수도, 복합적인 이 세계의 개별자아로서 긍정적인 주체성을 획득해서 일수도 있다.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바로,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르게 이야기, 말을 푸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의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남근중심적 가부장제도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여·남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회제도에서 언어란, 남성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뒷받침해 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나 기실, 그것의 기능주의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가장 잘, 그리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계층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여성에게 언어란 상실됐던 자아이고, 표현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여성이 여성임에 대한 권리 찾기인 것이다.

V. 여성성과 행위성

1. 행위성과 재구조화되는 자아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을 이야기 하면서 여성적 도덕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남성들의 도덕철학에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무도덕적이며 도덕성은 하나의 환상”(메이어스, 2005: 70)이라고 말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후기 근대에 이성은 더 이상 개별자들의 자유와 책임 아래 사람들

을 올바른 선택으로 유도 하지 못한다. 이에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여성적 도덕성과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남자들도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하긴 해. 보면. 추구하긴 하는데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는 정말 동반자. 나와 앞으로 일생을 같이 살 동반자에게 느끼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고. 다양한 연애는 또 따로 하는 거지. 그 일단...남자들은 편안함 이런 거 보다는 뭔가 설레임, 떨림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같더라.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만해도 나도, 신뢰.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통. 서로 인제 이게 같은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말이 섞일 수 있는 사람. (중략) 그렇지. 말이 섞이고, 신뢰가 있고. 신뢰가 깨지면 그거는 사랑이고 나발이고 아닌 거고. 그리고 익숙하고 편안한 거. 설레고 떨리는 거는 잠깐이고,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려. 그게 사라져 버리면 또 다시 새로운 설렘과 떨림을 찾아야 되고. (중략)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때는 사랑을 못할 거 같기도 하고...또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부딪쳐 보자. 또 뭐 그랬다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는 상대에게 모든 걸 올인 할 수 없는 인간형이란 걸 깨닫고는 좌절하지. 그래도 나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 같아. 단지 그 걸 얻기 위해 내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지. (중략)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닌 거 같아. (김혜영, 32세)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적 자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관계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여성들은 때때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자아가 다시 구조화됨을 느낀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든, 상처만 주었던 관계든 모든 관계와 경험에는 시작과 끝맺음이 있다. 김혜영은 관계 안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을 원한다. 왜냐하면 설레는 감정은 ‘잠깐’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김혜영은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녀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스스로가 어떤 성향

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그녀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관계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니, 우리는 즐거운 추억들이 되게 많아. 그냥 즐거워. 우리는 싸우기는 했지만, 자주 싸운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싸우기는 했지만 서로 뭐 오해가 있다가나 애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고, 지금 상황이 너무 갑갑 하니까. 그런 걸로 올해 딱 한 번 대거리 한 적이 있었어. 그 외에는 뭐. (이혜규, 28세)

그거야. 뭐 동준이도 그렇고. 마지막에 만났던 개도 그랬지. 그런데 이제 상처가 컸던 거는 동준이가 그랬지. 지향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어리고. 서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유도리? 유연함? 그런 것들이 그 때는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 개를 다시 만난다면, 몰라,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그 당시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어야 할 거 같아. 그 때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이어야지. (중략)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들을 직접 겪어 보고서 아 이런 인간은 조금 나는 만나기 힘들겠구나, 라는 데이터가 뽑아 지지. 사람을 만나도 보면. (중략) 그런 면도 있어. 그런데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거는. 그 당시는 뭐 힘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거...그런 것들도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아, 과거에 경험했던 관계들 속에서 받은 상처들도?) 그렇지. (왜?) 인생이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해 그거는. (하하하) (박혜옥, 28세)

여성들은 자신의 긍정적 주체성과 행위성에 대해 일상에서 매순간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관계와 경험 안에서 이러한 여성적 행위성들이 그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면화 되어 나오기도 한다. 그런 때, 많은 여성들은 그러한 여성적 행위성의 실체에 대해 어렴풋이 존재감을 느낀다. 그것은 비록 말로 형상화되지는 않더라도 여성 내부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외부로부터 충돌과 갈등, 딜레마 등과 당당히 협상하고 조율하도록 만드는 내 안의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리가라이가 말 한 것처럼, ‘자기 존재의 여성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어떤 여성이라도 자신이 여성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여성에게 가능한 주체적 자아의 모습일 것이다. 과거 혹은 현재 경험했던 모습들이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여성들은 감정과 자아에 대한 중심을 잡으려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사, 그 경험으로 인한 기억이 아픈 상처일지라도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의 바탕에는 그 경험으로 인해 무언가 다른 긍정적인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여성적 자아의 건강함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1) ‘관계’와 ‘경험’ 안에서 여성의 위치

관계와 경험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성적 행위성이 발현될 때 이야기되어 질 수 있는 여성적 권력에 대한 것이다. 현재 20-30대 비혼 여성들은 관계의 주도권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파트너와의 주도권 다툼 같은 관계의 위계적 서열보다는 편안하고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위치에 대한 사유를 하다 보면, 그동안 담론의 바깥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성/여성성이라 구분되는 모든 것들에 힘을 실어 주는 정치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늘 다르지. (아, 사람마다?) 그렇지. (중략)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을 지는 지금에 와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있고 그러면. 어려운 게 있거나 짜증나는 게 있거나 부딪히는 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막 그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한 동안은 그거를 눌러서 참는 거 같아. (박혜옥, 28세) 상황마다 다 틀린데, 주로 내가 먼저 질려. (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어떤 핀트에 있어서 내 친구라면, 나를 잘 아는 내 친구라면, 여긴 잘 건드리지 않을 텐데 하는 그 부분을, 확 몇 번 건드려갖고 주의를 줘는

데도 불구하고 개네들은 [남자친구들은] 탁탁 건드리잖아. 자꾸 건드려.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젠 그만. 너 땀에 피곤해. 그리고 난 이제 너 땀에 피곤한 게 싫어. 전학 보내야지 이제. 퇴학 시키는 건 애한테 안 좋아. (하하) (중략) 어, 나는 내 생활에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친구보다 나는 애인관계가 더 불편해. (중략) 그리고 친구랑 있을 때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친구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됐던, 그런 부분까지 애가 나한테 터치하려고 들면 별로 안 좋아. ‘이제 그만..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분위기가 되지. (조미주, 28세)

박혜옥과 조미주는 여성의 위치가 관계와 경험의 상이성에 따라 그 때마다 달리 정의 내려진다고 말하고 있다. 박혜옥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동안은 눌러서 참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미주는 ‘친구보다 애인관계가 더 불편’하며, ‘내 생활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동안 눌러서 참는다는 박혜옥의 이야기는 그녀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과연 긍정적 자기 개념을 유지 하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의 전후 맥락을 잘 읽고 관계의 유지를 위한 박혜옥만의 여성적 행위성이라 할 수 있다. 박혜옥은 자신이 타자에게 평가받고 있는 개별자로서의 개념에 상이한 행동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체험했다. 그것은 박혜옥이 이성애 관계 안에서 그녀가 파트너와의 관계와 경험, 즉 연애를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혜옥은 이성애 관계와 그 밖의 다른 일상적인 관계에 대해 ‘정확히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또한 조미주는 박혜옥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파트너에게 드러내 놓고 요구 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여·남 관계란, 일상적인 관계보다 더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파트너에게 드러내고 보여준다. 그것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로 인해 조미주 자신이 더 불편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녀만의 능동

적인 행위인 것이다. 상이한 개별자들의 다양한 행위에서 보다 풍요로워진 여성적 주체성/행위성이 여성들의 실제적 삶에 긍정적인 힘을 가져 오기를 바란다.

나는 언제나 안정되지 못한 연애만 해 봤기 때문에, 무어라 딱 정의는 못 내리겠는데, 내가 지금 누군갈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거 같아. (어째서?) 지금은 내가 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되게 열심히 할 거 같아. 내가 항상 느끼기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가 안 남을 거 같아. 나는 항상 내 마음보다 덜 열심히 했던 거 같거든? (그건 적합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생각도 가끔 했는데, 나는 언제나 적합하지 않은 상대에게 더 많이 빠지는 거 같아. (그런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맘에 들 수 있는 애는, 흥미가 안 끌리는 거 같아. 그게 좀 문제지. (김수진, 27세)

아, 그렇지는 아니고. 그런 뭐 조심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뭐 그런 시기는 지났지. 이제는 뭐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이제 더 편해져서 오빠도 그런 걸 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서로가 격식 차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래서 한 고비 넘어갔을 때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도 쏘시고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글썄, 한 때는 또 오빠 없으면 정말 세상이 큰 일 날 거 같고, 연락 안 되면 뭐 정말 죽을 거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진짜 없다고 막 미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서로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런 것도. 자기도 자기 삶이 있고 한데. (서은영, 27세)

김수진은 ‘언제나 안정되지 못한 연애만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연애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지금, 자신이 바라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정말 열심히 할 거 같’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사고해 봤을 때 그녀는 관계 안에서 ‘항상 내 마음보다 덜 열심히 했던 거’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관계와 감정에 대한 바람이 온전히 상호교환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만남을 희망한다. 서은영은 ‘오래된 연인’ 사이이다.

그녀는 자신의 관계가 어떤 일정한 만남의 전형적인 단계들을 밟아가 현재의 '편안한 관계'에 도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기까지는 서로가 격식 차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래서 한 고비 넘어갔을 때는 전보다 더 편안'해진 관계가 주는 편안함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이제 서은영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에게 관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긍정적 가치들을 확인 시켜주는 '여성적 행위성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행위성'과 사랑에 대한 욕망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후기 근대의 현대성을 이루고 있는 한 축이 관계, 연애, 사랑, 친밀성 등과 같은 '감정'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랑과 관계에 진입하면서 자신이 여성임에 대한 성찰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관계가 주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 또는 이상적 사랑의 실현이라는 판타지를 통해 어느 쪽으로든 소통 가능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요는, 이러한 경험적 관계가 일단락되고 난 후 여성들은 스스로의 연애/사랑/감정적 일대기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고 성찰한다는 것이다. 이는 즉 이러한 일대기에 대한 정리가, 여성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여성이 어찌면 자아와 주체에 대한 충돌을 스스로 유도하고 그 안에서 자가 치유도 도맡아 하는, 여성적 행위성이 활발히 펼쳐지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망한 경우도 많아. 사람을 나중에 알고 꺾어보게 되고 나서. 아 저 사람은 인상이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그 인상만 보고는 미친 듯이 혼자 막 좋아한 적도 있어. 그런데 조금씩 알게 되면 또 그거랑 비례하지 않더라고. 그런 게 있어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면서 이제 호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 그런데 그거는 이거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나한테 저 사람은 전혀 아니야, 이런 게 아닌 아주 최소한의 호감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최정은, 27세)

최정은의 경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실망한 경우’를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첫인상과는 다르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알게 되면서 호감’을 느꼈던 경험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만들고 있었다. 이는 물론 만남과 감정에 있어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관계와 경험에서 오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철저히 최정은 자신의 경험과 관계에서 왔다.

재미삼아 [연애를] 가끔씩 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 왜냐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왜 찾김에 서방질 한다고. 하하하. 그런 거 있잖아.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아 이걸 죽어도 이 길 아닌 거 같다, 이 사람 아닌 거 같다, 뭐야 이런 생각 들 때. 그런데 그게[감정이 없는 연애]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김혜영, 32세)

김혜영은 연애라는 감정을 하나의 ‘상황적 도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이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라고 결론짓는다. 김혜영에게 감정이 전제하는 연애든 그렇지 않는 연애든 모든 감정적 관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가치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혜영에게 연애와 관계 같은 모든 감정 경험들은 현실에서 쉽게 실현될 수 없는 매우 이상화된 가치이다.

나는 친밀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애하는 사람이랑은 정말 서로 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피곤하지. 나는 특히나 혼자 산 시간이 십 년째인데. 누군가랑 같이 살아 본 적이 없는 거

야. 그런데 예를 들어 나 어학연수 갔을 때, 룸메이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방은 나 혼자 썼던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같이 하자고 하면...예를 들어 나는, 일단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같이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는 좀 별로야. 그런 거는 내가 혼자 보고 싶을 때가 많아서, 내, 혼자만의 시간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침범당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거 말고. 아까 다른 친구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먹었어, 언제 일어났어, 이런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어. (김수진, 27세)

난 연애와 헤어짐을 통해 스스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아주 지독하고 대차게 배신당하거나 뭐 돈 때이지 않는 이상...사랑하고 헤어지는 거...살면서 당연히 격게 되는 일이잖아...만약 첫사랑이랑 아니면 모든게 처음인 [사랑도 연애 같은 관계도] 사람이랑 결혼했다면...‘아.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만나보고 할 걸’하는 후회 안하게 되겠냐? 헤어지고 얼마 안됐을 때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헤어지고...할걸, 하는 생각 종종 들었어. 횡수로 5년 넘게 만남 사람과 헤어졌는데...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상처도 없다면...그건 말도 안되지. 하지만...헤어진 시간도 많이 흘렀고...난 그냥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의 긴...한 추억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난 헤어졌다고 그 사람 물건 다 버리고 사진 다 찢고 하는 거 진짜 싫더라. 난 예전 남친, 좋아했던 아이 사진 갖고 있다...정말 몇 년에 한번 보면 그때 생각도 나고...좋던데? (하하) (고주희, 28세)

여성들은 관계와 감정들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이러한 이차적 감정들을 통해 스스로의 자아와 행위성을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이 관계 안에서 혹은 관계 그 자체에 많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관계로의 진입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여성적 자아, 주체성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행위성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를 사용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관계와 경험은 살아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과

파트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유기적인 감정적 관계가 바로 연애편계/연애사건인 것이다.

2. '관계'를 통한 자아발견

여성들에게 언어가 의미하는 바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 둘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으며, 여성이 언어에 전유하는 의미는 남성들의 것과 함께 논의될 수 없는 차원의 역사성과 서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 여성에게 경험은 삶이다. 그것은 여성 안에서 함께 묶일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여성적 삶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언어로 풀린다. 그렇기에 여성들에게 언어란, 단순히 말을 실어 나르는 소통, 이상의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성적 경험을 언어를 통해, 다시 말해 여성이 체험하는 관계를 여성적 자아를 통해 다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적 관계와 여성적 자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지는 성찰성에 대한 긍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쓸쓸할 때도 있고. 아무리 힘들었던 관계라고 해도 끝났다고 마냥 좋지는...그렇게 상쾌하지는 않지. 연애를 하는 그런 것처럼 상쾌하면 좋겠지만, 정말 뭐 개 같은 인간을 만나지 않은 이상 [끝났다고] 그렇게 마냥 좋고 상쾌하지만은 않지. 분명 과거에 어느 순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관계지만 그것도 좋았던 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관계가 되질 않았겠지. 이어지지 않았겠지. 뭐 어쨌든 한 관계가 끝나고 나면, 정말 내가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응? 안정적인 관계를 꾸릴 수 있을까. 어쨌든 내가 끝낸 거는 어떤 부분, 나랑 맞지 않아서 끝낸 거 아니야. 상처를 주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상처가 없는 관계는 없으니까. 친구 사이에건, 부모 자식 사이에건, 상처가 있지. 뭐 부모 자식 사이야 끝내고 싶어도 못 끊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를 접고 간다거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건데, 어

뭘 보면 나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어떤 부분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상처가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냥 커트해 버리는, 좀 그런 스타일인가 내가...그렇다면 사람 만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런 생각도 하지. 그건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오는 미련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박혜옥, 28세)

어, 그랬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 했어. 나는 뭐 그 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고, 뭐 그런..그건 정말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 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 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의 그런 얘기들은 애만이 이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개도 마찬가지였고. (중략) 그러니까 개를 이해하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니까. 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재가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니까. 개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거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열이 받는 일이 있어서 전화로 막 따발 따발 댔었잖아. 그거 남자친구였거든. 그냥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개한테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다 풀어져. 위로가 돼. 그냥 개의 존재감만으로도 위로가 돼. (이혜규, 28세)

박혜옥과 이혜규의 말처럼 여성들은 관계와 경험을 매개로 자신의 자아를 되비추는 작업을 쉽 없이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상황적/외부적 강압에 의한 수행이 아닌, 관계와 경험에 직접 대면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인 것이다. 박혜옥은 관계가 끝나고 난 후, 이혜규는 관계의 와중에서 이러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적 행위성에 대한 사유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말을 하면, 말을 하면 순간에는 좀 안 좋은 거 같아도 조금 지나면 오히려 더 나은 거 같아. 차라리 만약에 말을 해서 표현을 해서 좀 [감정이] 다치거나 뭐 그럴지라도, 일단 그게 남질 않거든...쌓이질 않거든. 그렇게 자기한테 좋은 거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 줄때 상대방도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지. 그 대신, 말하는

거를 좀...표현을 잘 해야 할 거 같아. 옛날에는 그냥 좀 넘어가기도 했던 거 같아. 지금은...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상대나,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그런데 지금은 좀 이렇게 뭐지? 기분에 따라 막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생겼거든. 말과 뭐 그런 거는 조금씩 바뀌더라고, 사람이. (중략) 내 생각에는, 다...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나아질 게 없다는 거를.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된다는 거를...참는 다기 보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 같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정선영, 30세)

물론 그렇기는 하지. 그런데 그 다지는 역할들이, 그런 걸 좀 약간 비슷하게 어떤...두근거리는 그런 걸 해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보이더라. (아,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도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모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야. 애들이 보면, [친구들이 보면] 너 비이성적이야 지금. 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상당히 추하게 변하는 거야. (하하) (구자원, 33세)

또한 이러한 관계적 경험은 정선영이 말하는 것처럼, 일상적 관계에서와는 다른 여성적 자아의 발견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정선영의 경우, 이렇게 여러 관계와 경험, 그리고 살면서 알아가게 되는 감정들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주체적 행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자원 역시나 연애 관계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경험하기에 결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경험과 관계가 일단락 된 지금 돌이켜 생각하기에, 그러한 감정적 경험들이 그녀에게는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자원은 자신을 ‘비이성적이고, 상당히 추하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경험들도 모두 여성으로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여성으로 구조화 하는 조건들에 어떤 한계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개별 자아가 느끼기에 긍정적인 감정이든 혹은 거부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그러한 양면성이 모두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을 구성하고 개별자의 행위성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성들은 경험으로, 관계로, 그리고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일상적 관계에서 보다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위성을 구현하는 장으로서 연애사건을 이용하기도 한다.

1) 의미화/치유/실험의 장으로서의 연애

여성이 이 세계 안에서 개별자로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들은 그녀들의 삶에 주체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한다. 개별자로서 여성들이 이러한 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들의 경험 앞에 당당하다. 왜냐하면 상처와 좌절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행위성이 발현되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 노력했지. 나 막 아르바이트 했잖아. 여름방학 때. 학교 앞 호프집에서 일 했었잖아. (중략) 아니지. 나는 그 때 표현을 못 했고,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 할 수가 없었어. 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 분위기만 그렇게 [사귀는 것처럼] 흐른 거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나한테] 말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도 우유부단했어. 나는 또 나대로 처음이라 말도 또 잘 못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너 알아서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잖아, 개가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닌 걸 수 있고, 또 그 때 서로 다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때는 [헤어지자고] 말 안하고 그렇게 [다른 여자 만나고] 하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 왜냐면 또 그만큼 내가 많이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중략) 그거는...꼭 감정적인 거는 아닌 거 같아. 그 사람이 싫어져서 헤어지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 뭐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주변 상황이나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서은영, 27세)

서은영의 고백에서, 과거의 상처가 되었던 그녀의 경험들이 현재에 와서

도 그녀에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은영은 과거의 관계에서 받았던 아픈 경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기에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닌’것일 수도 있고, ‘그 때는 서로 다 어려서 그런 걸 수도’있는 경험이 되었다. 서은영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관계 안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경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않는다.

일단 되게 많이 내가 힘들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던 거지. 그런 관계를 계속 해나간다는 거에서. 계속 그렇게 불안정하게 갈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싫었던 거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냥 [내가] 상처받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조건 자기 방어적이 돼지. (자기 방어적이란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음...그러니까 이런 거야. 딱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직관적으로 내가 아는 순간이 있지. 이게 이렇게 좀 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내가 상처를 받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 내 감정을 조금씩 철회시켜 나가지. (중략)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 처음에는 애한테 굉장히 많이, 내 마음의 많은 거를 애한테 걸고 시작을 하거든? 감정에 있어서. 그런데 그 상대는 뭐 어떤 어떤 이유로, 뭐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는 건데...언뜻 언뜻 보이는 모습에서 상대는 나만큼 걸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진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이만큼을 걸고 있는데 서로 어느 부분에서 핀트가 안 맞아서 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에서 접어 가. (중략) 아니. 그냥,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왜냐면 그 이후에 [내가] 더 상처받기 싫은 부분이 나한테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략) 아니 그건 그렇게 그냥 남아 있는 거 같아. 다만, 그렇게 옛날만큼 아프지는 않은 거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 나는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으면. 연애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거를...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해. (중략) 자아를 찾기 위

한 걸 수도 있고. 더 끌면 힘들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방어적인 거여서,
빨리 그거를 풀어 버리려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박혜옥, 28세)

여성들이 관계와 경험 안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감정적 손상은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발생하고 또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 대해 여성들은 각기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기 개념의 인식 뒤에 발휘되는 여성적 행위성이야말로 개별자들 여성주의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기제가 아닐까라는 사유를 해 본다.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녀들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여성주의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관계를 통한 경험이 여성적 행위성으로 사고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다.

박혜옥의 경우, 그녀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기감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누구보다 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어와 자신의 자아가 훼손될 염려에 항상 귀 기울이는 것이다.

완벽한 나를 보여주고 아니고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를 백 프로 보여주는 사람은 나는 내 남자친구야. 나는 지금은 일상적인 관계를 더 우위에 뒀.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 주거든. 그래서 내가 뭐 막 지랄하고 이러는 것도 난 [남자친구한테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한테 안 부끄러워? 이러더라. 어. 그런데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하하하) (이혜규, 28세)

아니야. 난 한 순간에 없어져야 돼. 모르겠어. 나는 그럼 어쩌면 항상 내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그게 잠재되어 있는 내 무의식든, 내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든 내가 항상 정리하려 했어. 정리도 잘 안 되고,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냥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었다면 어...전화를 하지 말라고, 개는 어차피 뉴욕에 있

있고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만날 일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굳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네, 허공에 소리치고 막. (김수진, 27세)

내가 생각하기엔, 행복해 지는 거 같아. [성격이] 좀 밝아지고. (응,응. 나도 그렇다고 느껴.) 그리고...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연애를 하면서, 예를 들어 다른 내 여자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좀 뜸하게 하고 그러는 거를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 어느 정도는 [연애상대에게만] 집중해 주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응, 어느 정도는 [연애상대에게] 집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막 자기 거만 고집하면서, 또 내 친구들만 챙기면서 이 남자에게 좀 소홀하고 그러는 것도 안 좋은 거 같아. 요즘에는 그래. (정선영, 30세)

개별자들의 상이한 관계들은 경험이라는 상위 개념에 통합되어 나타난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파트너에 대한 안정감에서 비롯되든(이혜규), 자신의 주체를 회복하기 위한 확실한 관계의 정리이든(김수진), 혹은 본인 느끼기에 연애관계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기까지 자신의 일상적인 관계보다 조금 더 염두 해 두는 관계이든 간에 여성들에게 있어 일상적인 관계와 연애관계에 대한 저울질은 결국 이 두 세계가 충돌하지 않고 매끄럽게 양립병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과 경험의 연속인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연애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의 희로애락 속에서 상처를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더라도 스스로 그 경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관계 안에서 또는 개별자의 인식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며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이 관계와 사건에서 오는 상처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단순한 논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관계와 사건을 거치며 경험했던 여러 감정의 면면들을 자신에게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극한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상황을 조

망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감정에 능한 여성들만이 대처할 수 있는 매우 능동적인 여성행위성의 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전적 이야기'의 성찰성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의미화는 남성들의 그것과 다르다. 어쩌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 수도, 혹은 사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언어에 대한 남성들의 전유가 과거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사실 언어에 대한 여성적 전유만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따라 올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언어의 (여성적) 전유에 있어 말/이야기라는 엄청난 매개변수를 능수능란하게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역사적, 철학적으로 로고스의 영역 아래 놓은 '체계적 이성'을 가진 인간 범주에서 항상 벗어나 있었다. 여성이 내뱉는 말들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언어였고, '말'로는 당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였다. 남근중심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언어는 '주술적'이고 '방언'같은 말이었다. 그러나 후기근대에 들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보내는 '공적인'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고 여성이 남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이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이해하기 힘든' '주술'적인 언어 뿐만 아니라, 남성이 사용하는 '문명화된' 언어에도 능하게 되었다. 여성에게 있어, '언어란 곧 (여성적) 언어'라는 등식에 어색하지 않는 역사성과 능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태어나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 나이대에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 연애도 한 과정인 것 같아. 사람 성장하는 그 과정에. 사람도 만나봐야 사람을 알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도하고. 왜, 아이도 낳아 봐야지 느낌이 다르대. 인간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해봐야 돼. 연애도 해봐야지 사람도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잘 고를 수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뭐라 그럴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까.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이런 것도. (그럼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고...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아픔도 있고, 뭐 헤어짐이 있으면. 그걸로 더 성숙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 간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다니는 걸 겪듯이 그 나이대에 필요한 거 같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난 거 같아, 연애도. 연애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랄까, 다 그 과정인 거 같아.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고. 부모가 돼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우리 언니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빠 보잖아.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가고 또 자식들이 태어나고. (서은영, 27세)

여성들이 인식하고 자서전적 이야기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그녀들의 삶을 이야기 하고 경험을 나눈다는 것을 거창하고 역사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실, 여성들의 자기 이야기에 대한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화 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은영의 말처럼, 그녀는 연애와 사랑을, 그리고 경험에 대해 의미화 할 때, 그것은 너무나 소박한 것이므로 감히 의미화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렇지만 말문이 트이자 서은영에게 있어 이러한 경험은, 바로 그녀 삶의 서사로 드러났다. 그녀가 짐짓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경험과 관계에 대한 사고는 그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닌, 여성들이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누군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한다고 [상대방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 뭐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런...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 (아, 함께 하고 뭐 그런..?) 함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시간 자체를...되게 다른 거와 틀리게 그런 시간은...사실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렇게 같이 있어서 이 사람이...그냥 카페에 앉아 있거나, 옛날에는 그게 되게 한심하게 느껴졌거든. 도대체 왜 쓸데없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시간 죽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억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야 뭔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렇게 아무 것도 없이 내가 뭐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더러 사람 돈 주고 사라는 소리나 듣지. (하하하) 아무튼 그런 게. 좋기야 좋지. 그런 게 싫다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말일 테니까. 그게 물론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친구랑은 다른 뭔가가, 쫘 다른 거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유일하게 생각을 해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고. 응. 그 유일하게라기보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좀 두고, 배려를 해주고. (김수진, 27세)

내가 전에, 만났었던 그 사람한테는 노력을 별로 못했던 거 같아. (아, 처음에 사졌던?) 아니, 여태까지는. 상대방이 많이 노력했던 편이야, 나는. 내가 특별한 노력을 안 하더라도. (그럼 언니는 상대방이 노력 하는 걸 보고만 있는 편이었어?) 그런 편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노력하려고 하지.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틀렸다고,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거 같아. '아 노력해야 겠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뀐 거 같아. (중략) 서서히 바뀌었겠지. 물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바뀌었겠지. 현재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바뀌었고. (중략) 어...그냥 마음에서 우러나. 잘 해주고 싶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 먼저 전화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서부터. 그냥 잘 해줘야겠다. 나도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겠다. 상대방에게만 그런 걸 바라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뀌었어. (정선영, 30세)

이렇게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재사고(re-thinking)이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관계와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개별자로서 자기 자신의 내밀한 자아

에까지 그 사고영역을 넓혀 나간다. 그것은 김수진처럼 자신의 욕구에 대한 당당한 고백이 될 수도, 정선영처럼 여러 경험을 거쳐 관계 안에서 이기적으로 굴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내밀한 고백으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만족감이 들지 않을까. 일단은. 요즘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내가, 하지 않고 있다기 보다 못하고 있는 내가 참 하나의 통조림이지.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정말 편범한 사람이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쁜 일 한 번 한 적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못 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가게 안의, 선반 맨 위에서 먼지를 맞으며 아무도 사갈 사람 없지만, 언젠간 팔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두커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통조림 같은 그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시장 바닥에 나 둥구는 배춧잎 같은 그런 상태. 그런 게 나는 너무 싫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떤 만족감이 들 것 같아. 나에 대한 만족감. (외부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지. (중략) 어,어. 예를 들어 일단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누군가를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야. 뭘 들어 주는 것도 싫고. 왜냐면 내가 다 들 수 있는데. 그 땐 유난히 그렇게 강했던 시기라 그랬는데. 내가 그 때 잠깐 친하게 지냈던 애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개가 옆에서 차 문을 열어주더라고. 근데 그게 별로 나쁘지 않았어. (응..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배려하고, 게다가 배려를 받고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 때는 거기에 totally into하지 못했어. 왜냐면 그러면 안 될 거 같았거든. 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아인데 왜 이런 것[배려 받는 것]에 이럴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필요해. (김수진, 27세)

김수진이 이야기 한 것처럼 여성이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에 긍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기 욕망 앞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김수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김수진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고민은 스스로에게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사고

에서 이다. 이것은 그녀가 주체적 자아로서 사고를 깨울리 하고 있거나, 의존성이 강한 여성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수진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과 이 사회에서 여성적 영역이라 폄하는 가치들에 대한 솔직한 욕구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행위성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전적 이야기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여성적 자아와 대면하고 또 그것과 거리두기를 시도함으로써 조금 더 내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성적 자아와 만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것은 여성들의 자기 이야기에 단순히 긍정의 의미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총체적인 행위가 가져오는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낙관에서 비롯된다. 온전히, 자신이 여성임을 확신하고 그 여성성의 확신에서 비롯된 긍정적 힘을 느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여성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바로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개별자로서 여성의 자아 주체성 그리고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이 세계 안에서의 의미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여성이 여성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이 사회제도 안에서 내가 나를 여성으로 인식하기까지는 여성의 고민과 성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근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 자체가 나를 어떤 여성이라고 인식해 주느냐에 그 의미의 경중이 갈리는 것이다.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은 또 그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연구자의 작은 물음은 결국,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계와 연애사건을 통해 여성적 자아와 주체성 그리고 행위성에 대해 사유해 보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음의 핵심에는 결국 본 연구자 역시나 고민과 갈등의 딜레마를 겪는 이 땅의 20대 비혼 여성이라는 자전적 성찰이 바탕 되었기 때문이다.

후기 근대는 ‘감정의 시대’라고 자처할 만큼 이성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감정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남성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처럼 감정은 이제 이 시대의 키워드이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감정에 대한 담론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화와 관심은 여성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남성들의 뒤늦은 출발이 이 시대를 감정의 시대로 정의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후기 근대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남근중심적인 문화 안에 고군분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도처에 넘쳐나는 감정의 홍수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은 왜 여성들이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 감정 영역에 대한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관계와 사랑, 만남과 연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하는가 이다. 친밀성의 구조적 변동은 사적 영역을 민주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든스의 낙관은 보기 좋게 비켜갔다. 여성들은 연애와 사랑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빈번하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비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인간관계를 가장 어려워하고 타자와의 관계맺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현대성의 한 특질이라지만, 남성도 아닌 여성이 여성적 영역 안의 가치들을 스스로 재현하면서 어째서 여성들만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가 취한 방법론은,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 안에서 여성적 행위성과 여성의 자아, 주체성의 새로운 의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었다. 특히, 감정 영역의 전문가라는 여성이 그 감정 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연애관계/사건을 통해 여성들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여성적 자아와 욕구는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은 이러한 관계와 사건 등을 통한 일련의 여성적 경험들이 과연 그녀들의 삶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일상들을 통해 구현되는 경험들이 결국 그녀들의 삶, 그 자체를 이야기고 있다는 논의임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여성적 행위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의 관계와 경험에 대한 감정들과 이러한 경험들을 연속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자전적 이야기에 대한 성찰은 여성들이 관계와 경험 안에서 자신이 여성임을 확신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II장에서는 가부장제 이성애 제도 하에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실제적인 일상적 경험과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개별자로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는 적극적인 자기 개념이 가지는 의미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이 가지는 의미는 특히, 이성애 제도 하에서 성편향적으로 논리화된 철학의 여성 주체에 대한 비판과 이를 여성주의적인 이론으로 전유한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 여성이 여성으로 자신을 긍정할 수만은 없는 가부장제 이성애 사회 안에서 우리 여성들이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함을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관계와 경험들을 의미화하고 자신의 행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러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은 끊임없이 이야기 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강조는 그들이 말하는 일상적 관계와 경험에서 끊임없이 변주되어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여성들의 근본적인 성찰성에 귀 기울일 때,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

는 여성들의 진정한 행위성 획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 14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분석했다. 여성들에게 있어 ‘여성’이라는 의미와 일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관계와 사건에 대한 의미가 가지는 분석들이 과연 그녀들의 삶에 있어 어떻게 전유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 했다. 여성들이 가지는, 소위 ‘여성적 감정’은 무엇이며 그녀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감정을 관계와 연관 지어 어떻게 사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 획득에 각기 어떻게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후기 근대의 비혼 여성들이 가지는 감정과 경험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영향 받는지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한 관계와 경험, 감정 같은 여성적인 것이라 일컬어지는 감정영역에 대한 진지한 성찰성을 사유할 때 이 제도 하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녀들의 일상성에 긍정적 행위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찰해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감정에 대한 의존증은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의이건 타의이건 ‘감정영역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여성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가고 있는데, 이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안에서 여성에게 거는 일방적인 기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반환경과는 별도로 감정의 전문가라는 여성들은 그들의 관계와 경험 안에서 여전히 성편향된 기대와 여성성에 대한 폄하라는 이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즉 여성은 그녀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회제도의 불합리한 기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갈등과 분열들을 관계와 경험 안에서 변주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기대에 대한 여성적 인식에도 주목을 하였다. 그것은 여성들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규정짓고 있지는 않

았지만, 경험을 통한 생생한 목소리는 곧 자신이 여성임에 대한 당당한 주체성의 성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에 대해 어떠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곧 여성들이 처한 각각의 개별자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유발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재구조 되는 여성적 자아, 행위성의 발견은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이러한 여성들 간의 경험적 상호교환에 대해 대체로 낙관하고 있었으며, 여성들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관계적 자아에 대한 사고를 수행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관계를 통한 긍정적 자기 개념의 성립과 유지가 여성들의 자아와 주체성에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 나타나는가. 이는 여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경험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현대 여성들은 더 이상 관계와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관계와 사건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자신이 삶에서 견지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도 하는 등의 유기적인 영향들을 주고받음으로서 자신의 자아와 행위성을 재구조화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여성들이 개별자로서의 삶에 당당하고 자신의 욕구에 솔직할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바탕이 되어 여성들은 어떤 곤경, 어려움, 상처와 대면했을 때도 그것에 좌절하거나 갈등하고만 있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행위성을 획득하고 하고 있다.

넷째, 여성들이 관계와 경험 안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적 곤경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지는 자전적 이야기에 주목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흘러나오는 여성의 자기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화이기도 하다. 여

성들이 자신의 관계와 경험을 다른 여성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들은 왜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바라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여성들이 이야기/말을 한다는 그 자체로서 그 안에 어떤 힘을 갖는다는 가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사유를 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여성들에게는 딱히 의미화 할 것도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행위’였다. 또한 어떤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여성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자체로서 자전적 이야기가 가지는 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개별자로서의 여성이 어떤 자기 인식을 거치든 간에 결국, 그것은 많은 부분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이 사회와 제도 안에서 여성적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만 사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 비혼 여성들은 이러한 사유가 보다 긍정적인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가능 하게함을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경험과 관계 안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 여전히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파트너와의 친밀감, 안정감, 사랑, 판타지 등과 끊임없는 줄다리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체험은 아직도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으로 제도화된 이 사회에서 쉽게 교섭/통합될 수 없는 가치들임을 그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날을 거두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대한 솔직한 행위성에 조금씩 힘을 더할 때 여성들이 말하고 바라는 진정한 이상적 관계가 도래할 날도 머지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거치는 연애편제와 연애사건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그녀들이 삶 속에서 크게 의미화하고 있는 사랑과 경험과 같은 ‘감정적 영역’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에서 시작

되었다. 과연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여성적 영역’이라는 감정에 어떤 자기 개념을 가지며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사회제도적으로 이분화 시켜 놓은 사랑, 연애, 경험과 같은 감정 영역의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서 남성중심적인 이분법적 등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여성들의 감정에 대한 긍정적 전유를 시도하였다. 이는 감정의 전문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이중의 난관을 설명하고 대안적인 여성성을 성찰해보기 위한 여성주의적 시도이다.

이러한 사유로 출발했던 본 연구의 종착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쉬이 그 끝을 보이지 않을 듯 싶다. 감정영역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은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각기 다른 목소리만큼이나 끊임없이 제 영역을 확대·재생산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본 연구자가 가졌던 작은 물음에서 시작된 모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성적 자아, 주체성, 행위성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도 그 체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 사회가 부차적인 것이라 여겼던 여성적 영역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거치며 내 안의 여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현재는 남성들이, 이 사회문화가 ‘감정’에 대한 필요와 관심을 표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감정이 ‘여성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여성은 ‘감정(영역)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이제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지만 바로 이 때, 남성들이 말하는 감정에 대한 열망이 과연 여성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도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도 이어지듯이, 여성이 여성에 대해 끊임없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 사고하는 것은 결국 보다 유연하게 바깥으로 상호연동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남성에게 자아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부추겨왔듯이, 여성들은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과 고민, 사

고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말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 ‘작은 것’에 대한 애착, ‘관계’에 대한 소통의 가능성 등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도 아닌 바로 여성 자신들의 굳건한 자아와 행위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적 경험들을 토대로 개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불연속적 경험과 비동일적인 자아 인식에 대한 보다 깊은 존중과 관심에 대한 필요가 결국 여성적 자아가 가지는 행위성이 보다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삶과 부합되는 가치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의 담론 안에서 남성적 자아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확실성만큼 완고한 것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현대 이러한 남성적 자아에 대한 확실성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제도적 역사성이 가지는 수많은 오류와 맞물려 더 이상 근본적인 개별자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 사유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서 남성 문화 안에서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여성주의자들의 한결같은 비판과 노력이 있었다) 발생하는 여성적 영역에 대한 탐구가 두 번 다시 여성을 이분법적 등식의 열등항으로, 혹은 여성을 사각지대 안에 머물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렇기에 여성적 자아, 여성적 행위성, 여성적 공간에 대한 성찰은 상이한 개별자들의 경험 안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주제인 것이다.

사랑과 감정에 대한 확신이 점차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이 시대에 여성들의 주체성을 억압하고 행위자로서의 성찰을 저지하는 방해물로서의 감정 노동은 이제 여성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 개별자들의 삶을 지탱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물로서 관계와 사랑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괄목할 만한 사건일 것이다. 이 사회가 여·남의 관계에서 바라는 이상적 결과는 이상대로 남겨놓고, 여성들은 관계 안에서 발현되는 자신

의 감정과 사랑에 대한 온전한 애착과 친밀성을 희망한다. 인류를 지탱해 온 유구한 역사 안에서 그간 여성들에게 ‘사랑의 이름’처럼 강력한 마법은 없었던 듯 보인다. 그녀들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성찰을 덮어 두더라도, 혹은 개별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그 부름에 답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온 것도 여성들은 물론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이 제도가 공고히 해온 ‘구조화된’ 감정 영역은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왔다. 여성들이 인식의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그녀들이 삶의 한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더 이상 이 제도와 문화, 그리고 여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힘에 변질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미연(2003). “페미니즘 사전-타자”. 『여/성이론』 (9호). 도서출판 여이연.
- 오세은(2004). “현대사회의 성과 사랑”.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성과 사랑의 시대: 성, 사랑, 섹슈얼리티』. 학지사.
- 이수자(2002). “여성주의적 방식으로 근대 넘어서기-유연성과 감성의 문화를 향해”. 『여/성이론』 (2호). 도서출판 여이연.
- (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노동, 몸,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 도서출판 여이연.
- 임옥희(2003). “사랑”.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 (2003). “환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 이소영(1994).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 이재경(2003). “가족의 변화와 미래, 그리고 페미니즘”. 『가족의 이름으로-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변혜정 엮음(2006).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동녘.
- 조혜정(1997). “결혼, 사랑 그리고 성”.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7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장윤필화(1999).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여성/몸/성』. 또 하나의 문화.
- 서동진(1996).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석·박사 학위 논문

장수정(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 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성미라(2006). 『‘상호의존성’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통한 주체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현경(2003).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학술지, 학회지, 정기간행물

이현재(2005). “인간, 여성 그리고 사랑의 정체성: 제시카 벤자민의 『사랑의 사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주현덕·박세니(2005).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연애관계와 연애태도에서의 성차와 진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권, 4호. 한국심리학회.

정영숙(1998). “친밀성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2권, 2호. 한국심리학회.

우어줄라 쇼이 엮음(2003). 『여자로 살기, 여성으로 말하기: 521명의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전옥례(역). 현실문화연구.

앨리슨 M. 재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집(2005). 『여성주의 철학 2』. 한국여성철학회(역). 서광사.

제프리 워스(1999).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역). 현실문화연구.

고갑희(1999). “여성주의적 주체생산을 위한 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성 이론』 통권 제1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 외국문헌

- Benjamin, Jessica(1988). 『*The Bonds of Love*』 . New York: Pantheon Books.
- Kitty, Eva Feder(1999). 『*Lover's Labor: essays on woman, equality, and dependency*』 . New York Routledge.
- Felman, Shoshona(1995). 『*What Doesn't a Woman Want?: Reading and Sexual Difference*』 . Baltimore: Johns Hopkins up.
- Weir, Allison(1996). 『*Sacrificial Logics: feminist theory and the critique of identity*』 . New York Routledge.
- Mann, Patricia S.(1994). "Agency in a Postfeminist Era", 『*Micro-Politic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onya Andermahr, Terry Lovell & Carol Wolkowitz(1997). 『*A Concise Glossary of Feminist Theory*』 . A Hodder Arnold Publication.
- Scott, Joan W.(1988).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ison, S. J.(1997). "Outliving Oneself: Trauma,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 『*Feminists Rethink the Self*』 . D. T. Meyers(ed.). Boulder:Westview Press.
- Benhabib, Seyla(1999). "Sexual Difference and Collective Identities: The New Global Constellation" .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ruew and Society*』 . vol. 24,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번역서

- 낸시 하트삭(1995). 「푸코의 권력이론: 여성을 위한 이론인가?」.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황정미 역. 새물결.
- 딜런 에번스(2002). 『감정』. 임건태(역). 이소출판사.
- 로즈마리 통(2000).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역). 한신문화사.
- 로지 브라이도티(2004). 『유목적 주체: 우리 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역). 도서출판 여이연.
- 리처드 래저너스·버니스 래저너스(1997). 『감정과 이성』. 정영목(역). 문예
출판사.
- 베티 프리단(2005). 『여성의 신비』. 김현우(역). 이매진.
- 벨 훅스(2004). 『사랑의 모든 것』. 윤길순(역). 도서출판 동녘.
- 볼프강 슈미트바우어(1999).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전재민(역).
생각의 나무.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2002). 『젠더 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탁선미·김륜옥·장춘익·장미영(역). 나남출
판.
- 시몬 드 보부아르(1993). 『제2의 성』. 조홍식(역). 을유문화사.
- 앤소니 기든스(1996).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역). 새물결.
- 캐롤 길리건(1997). 『다른 목소리로: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역). 동녘.
- 캐롤 타브리스(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
테리아(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1997).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박찬부·정정

- 호 외(역). 한신문화사.
- 파비엔 카스타-로자(2003). 『연애, 그 유혹과 욕망의 사회사』. 박규현(역).
수수꽃다리.
- 리타 펠스키(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심진경(역). 거름.
- 솔라미스 화이어스톤(1996). 『성의 변증법』. 김예숙(역). 풀빛.
- 재클린 살스비(1985).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규현(역). 민음사.
- 스튜어트 유웬(1996).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백지숙(역). 시각과 언
어.
- 론 루이스(2003). 『실용연애전서-남자용』. 서현정(역). 만물상자.
——— (2003). 『실용연애전서-여자용』. 서현정(역). 만물상자.
- 엘런 페인(2005). 『그 남자 그 여자의 연애기술』. 조정연(역). 더북컴퍼니.
- 엘리스 워커(2004). 『현경과 엘리스의 神나는 연애』. 현경(역). 마음산책.
- 오사와 마사치(2005).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송태욱(역). 그린비.
- 주디스 버틀러(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역). 인간사랑.
- 앤 브룩스(2003).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이론』. 김명혜(역). 한나래.
- 토마스 라커(1990). 『섹스의 역사』. 이현정(역). 황금가지.
- 줄리아 크리스테바(1999). 『포세시옹 소유라는 악마』. 김인환(역). 민음사.
- 뤼스 이리가라이(2000).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역). 동문선.
- 엘렌 식수(2004). 『메두사의 웃음』. 박혜영(역). 동문선.
- 미셸 무디-아담스(2005). “자아/타자.” 엘리스 M. 재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 『여성주의철학 2』. 한국여성철학회(역). 서광사.
- 고갑희(1999). “여성주의적 주체생산을 위한 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 / 성 이론』 통권 제1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김진송(1999).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
구소.
- 엘프레드 예리네크(1997). 『피아노 치는 여자』. 이병애(역). 문학동네,

줄리아 크리스테바(1997). 『포세시옹 소유라는 악마』. 김인환(역). 민음사,
존 그레이(200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역). 친구
미디어.

ABSTRACT

A Research on Restructured Female Agency through Love–relationship

Choi, Hyun Suk

Department of Women's Stud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meaning of feminist self/subjectivity/agency in the society. In this society, the emotional value such as relationships, love, and intimacy, which are considered to be in the emotional sphere, are officially belittled and even disparaged. These "emotions", which were mentioned above, of a feminine sphere has actually been an important issue since late modern. Nevertheless, what men expect from women is still emotional labour that has to remain invisible but helpful to others, so to speak, to men. This society only approves emotions masculinely expressed. Now, people can see woman's status being raised, and it is encouraged for women to show their desire for success. However, women are judged by a double standard in both a official sphere and a personal sphere.

In this situation, young women of the present age experience subjectivity confusion and mental dilemma. They start experiencing new

value, which women of past generations never had, through relationships. This value is very different from previous one in which having relationships should end up getting married was widely believed. Many women are no more ashamed of their various experiences of having relationships but consider such experiences as the power of their existences. Especially, young women's event serves them a testing ground in which they can show their feministic agency. Hopefully, women of this society can be free to show their emotions and experiences through social respect for women experience and an earnest discussion about positive feministic agency.

Based on a critical mind for dichotomous thinking about emotions in the society and a feministic point of view, I conducted depth interviews with 14 college-educated single women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who live in the Capital area. By means of the depth interviews, this paper studied the meaning of feministic experience and feministic agency in it.

Each chapter will be as follows.

In the second chapter, critical deconstructing the formula of 'emotions=feminineness' is tried by way of re-gendering a feminine sphere in which love, intimacy, and emotion are repressed. Moreover, feminist theories about a new feministic subjectivity and agency are examined to overcome such formula without repressing emotions and experience.

In the third chapter, the depth interviews with 14 women are analyzed based on the theories mentioned above. The third chapter also studied how experiences as love and emotions considered to be in a so-called a

feminine sphere are genderized, and what effects the way of thinking has on feministic agency. Also, criticizing feministic self and subjectivity that are described in the way of a traditional view and groping feministic agency that is re-generalized in feminism a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still a view of belittling women as an "emotional being" while a desire for love, relationship, and emotions is increasing in the present society. For the society forces women to labour or even to sacrifice themselves in a emotional sphere, women have much more complicated emotional structures and experiences than men do.

Second, it is the relationship where women's emotions and experiences are distinctly revealed. Women attained re-structuralizing feministic self and subjectivity by telling "stories" about their own experiences. In addition, that the process of telling stories can be a positive power to support feministic agency has been confirmed through women's own experiences.

Third, generalizing relationships and event that women think of performs a way of feministic subjectivity. This processing is the reason why women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ir selves. The meaning of women's telling and sharing stories should be reconsidered, which is the key of serious consideration about feministic agency.

This paper concretely studied dissociation and conflict caused by a dichotomous value about emotions and experience of single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y of feministic self and subjectivity that can overcome such repressive scheme is

considered. From now on, not only research on college educated women raised in a nuclear family centered environment, but also research on conflict and its solution of women from various social statuses and backgrounds should be carried out. That research can start from respect for experience of women in various statuses and criticizing regulated femininity by patriarchy. Also, the power to overcome such repression is after all found in femininity.